제대로 오로지 전통 수제 작설차만을 고집하는 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야생차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지정 한국전통식품개발 사업체 •
• 우리 차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객을 감동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 이자가 오르면 오른금리로 내입해는 적립금리로!
• 교육자금 주택마련 경조사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마클서비스 제공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7월 5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보살이 청정한 행을 갖추려면 자(慈)·비(悲)·희(喜)·사(捨)의 네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닦아야 한다. 〈열반경〉

법회 안내

보리사 (02)562-9939
초하루법회 매월 1~3일(음)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일반신도법회 화 오전10시30분
어린이 · 중고생법회 일 오전10시

파주 보광사 (0348)942-7701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보름인등법회 매월 15일(음)
지장재일법회 매월 18일(음)
관음재일법회 매월 24일(음)

밀양 대승정사 (0627)355-4846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고등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일반신도법회 매주 목 오후7시

사문선원 (0394)31-3125
초하루기도 매월 1일(음)
보름기도 매월 15일(음)
마룩불명안 천일기도 매일 오전 10시30분

상원사(0374)32-6666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일반신도법회 매월 22일 오전11시

부산 대각사(051)245-8781
약사재일 매월 8일(음) 오전11시
미타재일 매월 15일(음) 오전11시
청년부법회 매주 금 오후3시
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중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별지우표 별공양판 발행 타블로이드 4면

군승법사 5년내 2배 증원

청와대 · 국방부 확정…군포교 인력 양성 시급

군승법사의 수가 2천년까지 현재보다 두배가량 늘어난다.

그간 군승단과 종단의 숙원이기도 했던 군승법사의 증원과 관련 최근 국방부와 청와대 측은 2천년까지 연차적으로 약 80여명을 증원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현재 사단 단위까지 편성된 군승법사들이 연대급 부대에도 편성돼 군포교에 활기를 불어넣게 됐다.

군승단과 종단은 군내 신자수와 비교 군승법사를 최소한 현재의 두배까지 증원해야 한다는 건의를 관계 당국에 수차례 해 왔었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도 지난 14대 대통령 선거당시 군승 증원 문제를 대 불교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었다.

종단의 한 관계자는 "군승법사의 증원 방침은 이미 대통령의 결재까지 받은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군승의 증원 확정과 관련 군승단은 군내 신자수와 각급 부대의 법당 운영 실태등을 파악 늘어나는 군승들을 적절히 활용할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종단에서도 우수한 군승법사의 선발을 위한 새로운 방법 모색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동국대 졸업생을 중심으로 선발되고 있는 군승법사의 모집범위를 중앙승가대,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위덕대학에까지 확대할 것인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승단이 총무원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군내의 종교인구 분포는 불교신자 30%, 기독교신자 55%, 천주교신자 15%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군종장교의 비율은 기독교 66% 불교 19% 천주교 15% 선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군내의 종교인구 분포 비율은 기독교계가 집계한 것으로 국민 종교 분포와 대비할 때 신빙성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군승단 원로회의 의장 자광법사는 군승법사 증원의 확정과 관련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문제였다. 이제 군승단과 종단이 군포교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을 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연태 기자〉



또 아까운 인명이… 또 다시 안전이 무너져 내렸다. 지난 달 29일 오후 6시경 총체적 부실로 폭삭 무너져 내린 삼풍백화점. 구조대원 소방관계자 경찰관계자들마저 현장 접근이 힘든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구조작업 현장에서 박재원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직원들이 '우리는 불자가정' 스티커 붙이기 운동에 동참, 전국 경찰로 스티커보급 운동이 확산되길 서원하고 있다.

'불자 가정' 보급확산

'우리는 불자가정,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스티커가 개인단위로 보급운동이 확산되면서 전국 불자들의 동참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불자가정' 스티커 1천매 제작 보시금은 1십만원입니다. 또한 날짜에 대한 주문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본사는 우편, 전화, 팩시밀리 등을 통해 접수되는 사항에 대해 즉시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스티커 붙이기 동참자 천매이상 : △동국인천한방병원(병원장 이원철) △성무 호국사(법사 환진하)

천매이하 : △은석국교 연꽃어린이회 △태능선수촌 한마음법당 △한국불교포교사협회 △한국불교 교화복지선도회 △전남 성륜사 △창원 원각사 △경기 봉녕사 △한국불교문화원(원장 홍무흠) △이향춘 △김정순 △장재분 △조현화 △박국환 △남정애 △권중천(세원물산) △프랭크 테데스코 △서돈각 △이익선 △김영애 △김성민 △임옥현 △이해운 〈무순〉

동참금 입금계좌 안내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 금 주 현대불교신문
전 화 737-8881, 722-4162
팩 시 737-0698

현대불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대한불교진흥원

내년 '불교청소년의 해' 지정

조계종 포교원, 기획단 구성 21세기 청사진 제시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스님)은 내년을 '불교청소년의 해'로 지정, 청소년 포교·교화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포교원은 내년에 창립 30주년을 맞는 청소년교화연합회를 필두로 교법사단, 사찰 중고등부 지도법사를 중심으로 기획단을 구성, 중 고등학생 불교교과서 및 청소년 통일법요집 발간을 시작으로 청소년문화대축제, 독서캠프 등 본격적인 교화프로젝트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입시제도의 변화 및 교육개방의 대비해 중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대 혁신적인 포교를 시도, 미래 한국불교의 청사진을 제시하자는데서 비롯됐다.

15세~19세의 종교인구 분포를 보면 불교가 11.4%로 개신교22.6% (통계청, 94년 사회통계조사)와 비교해 청소년불자들이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같은 계획은 미래불교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마땅히 실시해야 하는 고무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옥불사를 통해본 중국불교 … 11면

'법인관리법안' 다음종회서 논의

승가대 이전비용 금년 20억 편성

조계종 117회 종회

조계종 제117회 임시중앙종회는 지난 달 23일 조계종 총무기관이나 승려 및 재가불자가 설립한 법인을 관장하고 지원할 목적의 '법인관리법' 제정안을 상정절차문제로 차기종회로 이월했다. (관련기사 14면)

이날 종회는 중앙승가대 이전 비용 마련 방안에 있어서는 총무원이 제시한 전국 본말사 예산의 5%를 3년간 특별분담금 형식으로 분담키로 하고 올해 20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또한 승가학원 이사후보로 종립학교관리위가 추천한 원산 서주스님등 10명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신임 사무처장으로 화범스님을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이날 선학원 대책특위, 조·태분규사찰특위, 총무원 무승인재산처분특위등이 각각 그동안의 활동을 보고했으나 법인관리법 상정문제와 연루 선학원대책특위, 총무원 무승인 재산처분특위가 27대 23의 표결로써 이날 해체됐다.

목어

"제 이름은 박혁거세 박자, 꽃뿌리 영자, 구슬 옥자 박영옥입니다."

목어자가 상해에서 만난 조선족 처녀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다. 우리 일행의 안내를 맡은 그녀는 통역사로서 연변대학에서 조선어를 전공했다.

"제 생각엔 조선과 한국의 말이 똑같은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제말을 다 알아 들을줄 알았는데 제가 말한걸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알수 없었어요. 제말이 이상하게 들리나 보다 생각하여 입다물고 있다가 이튿날 대해보니 조금 이해하는 것 같더군요. 조선과 한국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해가 쉽지 않구나. 그러나 서서히 서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 말씨로 남한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그녀의 소감을 들으면서 얼른 메모지를 들었다. 어쩌면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로 가는 답일수도 있다는 순간적인 생각에서였다.

조선족 처녀의 말

"그래, 서로 만나 대화하면서 동족임을 확인하고 같은줄 알았는데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하여 서서히 이해해 나가는 것, 그 길이 바로 통일을 단축하는 길이 아닐까"

우리의 쌀이 북한으로 가고 있다. 지원미 수송선 '시 아펙스' 호가 동해안에서 첫 뱃고동을 울린 날은 공교롭게도 '6월 25일'이었다. 그날 출항식에 환송나온 1천여 주민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했다. 한 실향민 할머니는 "북에 있는 남동생과 친척들에게 이 쌀을 전해달라"고 눈물 지으며 배를 향해 3번 절을 올렸다고 한다.

지원미를 쉬쉬하면서 받아들이며 안으로는 '올해는 풍년'이라고 선전하는 북한이 할머니의 조건없이 주고픈 마음을 알리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북한의 속을 뻔히 들여다보지만 서로 이해하는 그날을 위해 동족애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국내외 여행! 요금으로 비교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알찬 여행, 서비스의 양과 질로 비교하십시오.

국내 여행 안내
• 국내 여행 알선(육지, 제주도 및 도서관광)
• 최신형 고속 관광버스 전세
• 신혼 여행 알선
• 대한항공 · 아시아나 항공권 발권
• 전국 유명 호텔 및 콘도 알선 및 예약 대행
• 철도 매표 대리점
• 울릉도 승선권 발매 대리점
• 각급 학교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 알선
• 각급 학원 및 유치원 학습 관광 및 소풍 안내


春
• 제주도 유채꽃 축제
• 진해 · 벚꽃시 벚꽃진시
• 진도 오세의 기적
• 한라산 · 지리산 · 소백산 철쭉 축제
• 거제 해금강 · 한산도
• 울릉도(성인봉 등반)
• 자연농원 불림 축제 및 장미 축제


秋
• 스키 및 눈썰매 정기운행
• 부주스키 및 눈썰매
• 자연농원 · 눈썰매
• 용평스키 및 설악산 설경관광
• 온천 관광 정기운행
• 백암 온천 • 부곡 온천 • 수안보 온천
• 제주도 한라산 설경관광

대륙관광 사계절 특선


夏
• 피서지 정기운행
• 설악산 · 속초해수욕장 • 지리산 노고단 경유 (별서울/남원경계 시그마아울)
• 상주해수욕장 및 전국해수욕장
• 무주구천동 계곡
• 울릉도 · 홍도 흑산도 · 거문도 백도


冬
• 단풍관광 마일운행
• 내장산 • 주왕산
• 지리산 • 가야산
• 설악산 · 소금강 · 오대산 단풍
• 내설악산(백담사 · 봉정암 · 대청봉) (2박 3일 및 3박 4일)
• 자연농원 국화 축제

■ 도서관광 : 7월 20일부터 매일 출발 → • 울릉도 • 홍도/흑산도 • 거문도/백도
■ 여름피서지정기운행 : 7월 20일부터 매일 출발
• 지리산 뱀사골/달궁계곡/노고단 • 지리산 칠선계곡 • 피아골 • 불영계곡
■ 윤 8월 삼사 순례 다양한 순례 코-스 안내 → (당일 및 1박 2일) 많은 문의 바랍니다.

(주) 대륙 관광여행사
DAE LYUK TRAVEL SERVICE CO., LTD.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260-8(서면 중소기업은행 옆) / TEL : (051) 808-2211~5 / FAX : (051) 809-9630

해외 여행 안내
• 여권, 비자 발급
• 해외 신혼 여행 알선
• 국제선 항공권 발매
• 해외 여행 단체, 개인 상담 알선
• 해외 효도, 가족 관광 상담
• 성지 순례 안내

신 대 륙 하 계 해 외 특 선 국외여행등록 제24호

기획 1 중국	북경 / 만리장성 (4일) → ₩ 740,000 (8월 3일 출발)	기획 3 미국 캐나다	캐나다 특선 (8일) → ₩ 1,790,000 (7월 4, 6, 11일 출발)
	북경 / 백두산 (6일) → ₩ 1,120,000 (8월 13일 출발)	기획 4 남태평양	호주/뉴질랜드 (8일) → ₩ 1,390,000 (7월 26일 출발)
	북경/서안/계림/상해 (7일) → ₩ 1,270,000 (8월 15일 출발)		호주(케인즈)/뉴질랜드(9일) → ₩1,590,000 (7월 28일, 8월 4일 출발)
기획 2 동남아	태국 /싱가폴 (6일) → ₩ 850,000 (7월 30일 출발) ₩ 770,000 (8월 5일 출발)	기획 5 유럽	이태리/스위스/프랑스 (8일) → ₩ 1,810,000 (7월 22일 출발) / ₩ 1,710,000 (8월 12일 출발)
	태국/싱가폴/말레이지아 (7일) → ₩ 830,000 (7/28&7/31,33 출발) / ₩ 880,000 (7월 27일 출발)	* 여행 조건 : 1. 해외여행 보험 가입 2. 최소 10명 이상 출발 3. 특급 및 일급 호텔 사용(2박 1일) 4. 인솔자 · 가이드 동행 5. 현지 안내원 동행	
	필리핀(마닐라) (4일) → ₩ 650,000 (7월 28일 출발)		
	필리핀(보라카이)(5일) → ₩ 790,000 (8월 6, 13일 출발)		

영겁을 두고 되풀이되는 중생의 업을 구원하고자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에서 성불했던 득도의 땅—인도
이 생생한 깨달음의 현장에서 백팔번뇌의 무상함을 느껴보십시오!



인도 불교 성지 순례 안내(11일)
부산—서울—델리—스라바스티—룸비니—루시나가르—파트나—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서울—부산

스리랑카 불교 유적지 순례 · 중국 불교 유적지 순례 · 실크로드 불교 유적지 순례 · 티벳, 네팔 불교 유적지 순례 등 다양한 코-스로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주) 신대륙 해외여행사
SHIN DAE LYUK TRAVEL SERVICE CO., LTD.
부산 광역시 중구 중앙동 6가 58번지(부산 시경 입구) / TEL. (051) 464-4111 / FAX. (051) 464-1316

사 설

이번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긍정적 측면이란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선거답게 많은 사람들의 높은 관심속에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점이다. 부정적 측면이란 우리나라의 고질병인 지역할거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 정치의 후진성은 물론 민족적 동질성 형성에 심각한 우려감을 던져주었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정부와 정당은 물론 일반국민까지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바른 원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합 우선하는 정치

가장 먼저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마음을 잡지 못한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자체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바꾸어야 할 것은 바꾸어야 할 것이다. 지역할거주의가 국민의 마음에서 지워지려면, 정부는 지역에 안주하는 정치를 펴는 인사를 과감히 정리하고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세대교체와 물갈이를 제대로 했어야 했다. 정부가 개혁의 공신력을 잃어버린 것도 큰 흠이었다. 정부가 보수와 개혁의 갈림길에서, 이제 분명히 개혁의 길을 선택하고 틀을 바꾸며, 세대교체에 앞장선다면 이번 선거의 참패는 정부와 여당 모두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타 정당에서는 이번 선거의 결과가 승리로 이어졌든 패배로 결말났든간에 지역분할구도에 힘입었음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만약 지역분할주의의 기반 위에 내각제로의 개헌이 시도된다면, 우리나라는 최악의 정치체제를 갖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일부 정치인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는데는 바라던 바일지 모르나,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국민은 자신이 찍은 후보가 당선되었다거나, 낙선되었다는 데에 희비를 나눌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갈라진 이번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우선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지역분할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큰 정치를 구축하는 움직임이 태동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정정파를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모임이어서는 안되며, 과거 지향적 정치를 배격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치를 지지하는 모임이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종교적 차원과 더불어 생각할 때 모든 국민이 마음속의 편갈이와, 대립 반목의 잘못을 참회하는 속죄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세계화시대이며, 정보화시대이다. 파이의 분배를 둘러싼 대립과 투쟁을 집단적 경쟁으로 제도화하는데 성공한 20세기와 대조적으로 대립적 요소는 다양성의 공존으로, 투쟁은 조화로 전화시키는 것이 21세기적 질서이다.

지역갈등을 지역적 다양성으로 승화하여, 민족적 화합을 이룰 때 우리민족의 21세기적 발전과 통일이 기약될 수 있을 것이다.

현 대 만 평 박구원



어깨띠를 머리에 매고…



◇지난달 23·24일 양일간 화성 신흥사에서 개최된 경승단 연수회에는 2백30여 경승이 참석 경승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했다. 사진은 경찰과 경승이 함께 모여 법회를 봉행하는 모습.

활동 모범 사례

성북서, 법우회 구성 봉사 전력

전국 2백51개 경찰서 가운데 경승이 활동하고 있는 곳은 1백20여곳. 그중 모범적인 경승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곳 중의 하나로 성북경찰서(경승실장 원운스님)를 꼽을 수 있다.

성북경찰서는 현재 6백30여명의 직원중 1백1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법우회'라는 신행단체를 중심으로 매월 정기법회와 전·의경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 청소년 윤락녀 등을 위한 선도법회, 유치장 위문법회와 각종 기원법회, 경찰관 포교법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관내 주지스님 13명이 경승위원으로 위촉돼 있어 양적으로도 모범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성북경찰서는 이외에도 경찰 개인상담과 경찰관자녀 장학금 지급, 성지순례법회, 파출소 위문, 불서도서관 운영, 경찰의 날 행사, 6.25전몰 경찰 합동위령제 등 다양한 포교사업을 펼치고 있다.

열 린 마 당

경승 활성화



자우스님

"지역사암과 협조체제 구축 위상강화 모색을"

87년 경승제도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훨씬 이전인 79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경승활동을 해왔지만 여러가지 제도적인 문제점도 많고,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경승은 말그대로 경찰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주변의 모든 것을 폭넓게 감싸고 이해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원력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록 큰 원력을 가지고 경승활동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활동을 멈추거나 그만두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것은 크게 두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그 지역에서 경승을 후원해주는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다. 지역 사암연합회와의 협조체제가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 하나는 종단이나 중앙경승단의 관심과 협조부족이다. 경제적 후원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경승자체에 대한 위상강화적인 측면에서는 종단이나 중앙조직의 홍보와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시대와 제도·사회구조가 변하는 상황 속에서 경승의 역할 또한 지금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지금과는 다른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시·군·구 단위로 연합체를 결성해 충분한 재정확보는 물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법회를 다양화해 많은 경찰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경승이 그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경승의 원력이 한데 어우러진다면 분명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실장〉



김종규씨

"사회 어두운 구석 어루만지도록 후원 확대돼야"

경승연수회가 성황리에 끝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으로 흐뭇했다. 진작 활성화됐어야 하는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경승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매우 축하할 일이다.

경승은 한마디로 이 사회를 뒷받침해 주는 사회의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다루고 있는 곳에서의 포교야말로 진정 불교가 해야할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승은 그 위상과 위치에 걸맞는 활동을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재정적인 문제와 경승의 상호교류, 경승단의 효율적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했으며, 그 중요성마저도 일반인들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경승은 우선 범죄자들과 그들을 대하는 경찰직원들을 정서적으로 포근하고 따뜻하게 하는 중요한 일을 한다. 그리고 경찰가족을 비롯해 그 지역 주민들과도 자주 접하고 대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경승활동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경승스님들이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사회교화와 불법포교에 진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담당 경찰서는 물론 지역 복지사업에도 힘써야 한다고 믿는다.

각 경찰서 경승들간의 교류를 원활히 하고 그래서 상호방문을 통해 경찰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좋은 법문도 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경승후원회를 맡고 있는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반가운 마음을 표하며, 이번 경승연수회야말로 그런 기틀을 다지는 확실한 계기가 되서 보다 다양한 포교활동이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한다.

〈경찰청 경승후원회장〉

경승단 연수 취재기

재정확보·조직정비·프로 다양화 '한 목소리'

지난달 23, 24일 양일간 화성 신흥사에서 개최된 대한불교 경승단 연수회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전국의 2백30여 경승들이 참가한 가운데 바람직한 경승 활동방향이 모색됐다.

이번 연수회는 지난 87년 경승단 창립일에 첫 연수회가 열린 후 8년만에 모처럼 개최된 탓인지 경승활동에 대한 기탄없는 비판과 활성화 방안이 시종 열띤 어조로 논의됐다.

특히 각 지방별 12개 분과로 나누어 '경승활동의 구체적 실천방법과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승들이 경승활동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나타냈다.

우선 경승에 대한 개념과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식부족, 경승인원 부족과 재정여건 열악, 지역별 지단을 통한 조직체계 미흡, 종단의 지원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해결책 또한 참가 경승들간의 상당부분 공통된 인식하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경승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고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승스스로의 적극적인 마음자세가 필요하다는 자성이 최우선 과제로 지적됐다. 또한 경찰직원과 그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를 위한 다양한 접촉 등이 경승활동의 폭을 넓히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꼽혔다.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의견은 경승활동을 위한 재정충당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승법회시 사찰 신도회장이나 총무 등을 참여시키고, 경승활동에 관심이 있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경승에 대한 이해를 높힘과 동시에 후원회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른 경승인원의 확충 또한 재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이외에도 조직적 활동을 위한 정기모임의 필요성과 지역 사암연합회와의 유대강화, 중앙 경승단의 경승실 설치 지원과 각 지단의 월말보고서 활용, 경승단 활동지침 마련 등 중앙경승단에 대한 요구도 만만치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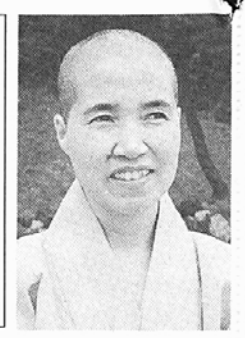
그러나 현재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이 당연직으로 경승단장직을 맡고 있고, 중앙 경승단 업무는 포교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원적 조직구조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점으로 제시된 조직정비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이번 제 2차 경승단 연수회는 불교의 대사회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승역할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명우 기자

인터뷰

비구니경승 상덕스님



"경승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승스님의 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법을 바로 전하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데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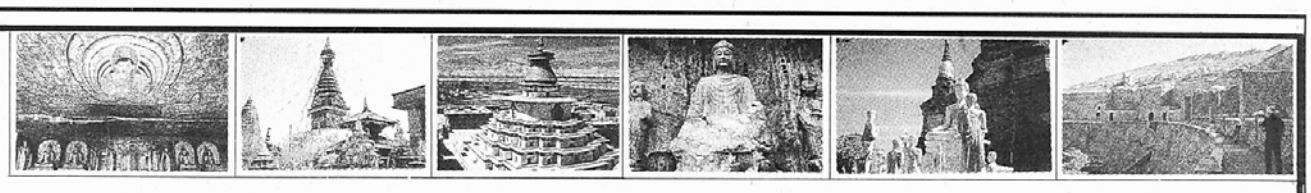
87년 경승제도가 실시되면서 지금까지 줄곧 성동경찰서 한 곳에서 경승활동을 해 온 상덕스님(정수암 주지)은 경승단의 시급한 해결과제 중 하나로 잘 짜여진 경승단의 조직정비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한다.

"홍보나 경승활동의 범위설정이라든지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조직적 후원과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의경들이나 윤락녀, 재소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포교지침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중앙 경승단의 다양한 지원 못지않게 재정을 충당해 줄 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매월 정기법회는 물론 명절이나 각종 기념일때 불우한 이웃과 경찰직원들을 위로하고 사회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덕스님은 "불교를 현대시대에 맞게 접목시킨 설득력있는 포교프로그램이야말로 불교가 자신감을 갖고 경승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소신도 밝혔다.

"봉사원력 세워 부처님 법 전하죠"



불교 성지 순례

실크로드 대장정 23일

-중국 불교유적지와 간다라 불교유적-

- 출 발 : 7월 24일, 8월 28일
- 동참금 : 295만원
- 일 정 : 서울-북경-서안-난주-가욕관-돈황-투르판-우룸치-카슈가르-문자랍고개-훈자-길기트-스왓-페샤와르-탁실라-이슬라마바드-라호르-방콕-서울

실크로드 불교유적지 11일

- 출 발 : 7월 21일, 8월 25일
- 동참금 : 188만원
- 일 정 :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벳·네팔 9일

- 출 발 : 7월 23일, 8월 27일
- 동참금 : 210만원
- 일 정 : 서울-상해-성도-라사-쟝체-시가체-라사-카트만두-방콕-서울

스리랑카 캔디 불치제 6일

-스리랑카 최대의 불교 축제 캔디 페라헤라·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 출 발 : 8월 4일
- 동참금 : 118만원
- 일 정 :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시기리야-풀론나루와-덤블라-캔디(불치사)-콜롬보-서울

중국불교유적지 13일

- 출 발 : 8월 29일, 9월 19일
- 동참금 : 195만원
- 일 정 :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숭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백두산 연길 북경 5일

- 출 발 : 7월 15일, 7월 29일
- 동참금 : 100만원
- 일 정 :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 보로부두르 사원-

- 출 발 : 7월 23일, 8월 27일
- 동참금 : 95만원

대 만 5일

- 출 발 : 8월 20일, 9월 20일
- 동참금 : 65만원

■ 여행조건 ●호텔 : 특급 및 1급,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 ●최소 출발인원 : 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 (代)

시 론

쌀로 허무는 남북의 벽

북한의 경수로 문제를 해결짓는 과정에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일은 바로 한반도문제인데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중대한 문제일수록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해결지어야 하는데, 우리는 뒷짐지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북한에 쌀을 제공하기로 결정했고, 북한 당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쌀 15만톤 제공을 합의했다. 작년 7월 김일성주석 사망이후 남북한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어 한때는 위기감마저 느껴 왔는데, 북한에 쌀제공으로 남북한간에 대화의 통로가 열렸으니 경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건없는 쌀제공 제의와 그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는 북한의 태도는 모두가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장 을 병
〈前성균관대 총장〉

이러한 쌀 문제의 해결은 우성호 어부의 송환문제에도 기대를 안겨주고 있을뿐 아니라 남북한간의 다각적인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남북한 정상회담까지 점치게 만들고 있다. 한반도의 문제를 제3국을 통하지 않고 남북한 당국자들에 의해서 논의하고 매듭지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면에서 천만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주통일 가능성 열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쏟고 통일에 대해서 논의하는 나라들은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통일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나라들이 몇이나 될 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말로는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는체 하면서도 제나름의 이해관계 때문에 내심으로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통일의 길 이외의 다른 방도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바로 북한에 쌀제공으로 자주통일의 가능성마저 비치게 만들었으니 다행으로 여기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네 주변에서는 '물에서 꺼내 놓으니 보따리 달라' 고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측도 있고, 북한으로서는 다급한 문제인 식량문제를 해결해 주면 나중에 우리에게 덤빌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측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다급한 식량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자체가 우리의 여유를 알리는 것이고 우리의 도량을 알리는 계기이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남을이 있으면 북한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하겠다.

주는 마음 받는 마음

우리는 통일에 접근하는데 독일의 체험을 참고로 삼아야 하겠다. 우선 서독이 여유를 갖고 동독을 다각적으로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더욱이 어느날 갑자기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경제의 6배 규모인 서독경제가 휘청거렸다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하겠다.

적어도 이 민족의 통일을 원한다면, 그것도 흡수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우리는 여유있는 것을 아낌없이 북한에 제공해 주겠다는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베풀 때에는 북한이 무슨 소리를 해도 크게 개의치 말아야 한다. 베푸는 사람은 여유가 있지만 베품을 받는 사람은 심리적인 여유가 없다. 어떻게 해서든 그간에 쌓인 남북한간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불신을 해소해야 대화도 올바로 진행될 수 있고, 서로간의 협조도 가능해질 수 있다. 이번 우리 정부의 쌀제공이 남북한간에 쌓여있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로만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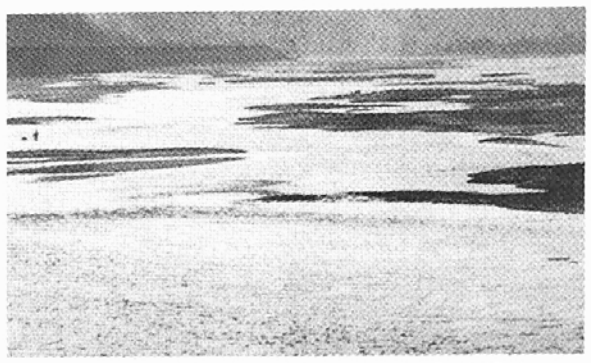
특히 불가에서는 이상향인 피안(彼岸)의 세계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여섯가지 행동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육바라밀'이라고 한다. 그것은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正進), 선정(禪定), 지혜(智慧)등 여섯가지인데, 그중에서도 보시를 으뜸으로 친다. 그런데 불가에서는 보시를 해도 소문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과보(果報)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도 불가의 보시정신을 거울삼아, 허튼소리를 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부처님의 지구사랑
전 재 성 ⑰

가뭄과 홍수

법화경의 약초유품(藥草喩品)에는 운우(雲雨)의 비유가 나온다. 먹구름이 가득히 퍼져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어 일시에 큰 비가 고루 내리어 흡족하면 모든 초목이나 숲이나 약초들의 차별적인 다양한 것들이 그들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여러가지 모습으로 성장하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부처님 당시에 고대 인도는 운우가 내리면 초목들이 잘 자라고, 초목들은 물을 보존했다가 적절히 기화시키거나 방출하는 자연의 순환구조가 온전했다. 율장에 의하면 당시에는 수신(樹神)에 대한 숭배가 있어 식생(植生)의 파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인도아대륙은 홍수와 가뭄에 시달리는 나라가 되었다. 해마다 7~8월이면 홍수로 1만5천명이 실종, 2만여명이 고립되는 등의 기사를 볼 수 있다. 1987년 인도의 서북부지역은 최악의 가뭄사태로 가장 심각했던 라자스탄 지역은 1천2백만ha의 경지에 90% 가까이 곡물을 심을 수 조차 없었고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였다. 한편 그때, 방글라데시는 대홍수로 국토의 ⅓이 침수되고 2천만명의 이재민과 1천1백여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러한 방글라데시의 홍수는 연중행사에 가까운 것이 되어 버렸다. 74년 홍수와 기아에서는 30만명이 사망했다. 히말라야를 수원으로 하는 갠지즈강이 통과하는 이 지역은 해마다 침수와 가뭄이 교차된다.



◇무분별한 삼림벌채는 가뭄과 홍수의 악순환을 가져온다.

삼림 무분별 벌채가 원인

인도·아프리카·남미등 전세계 인명 피해 속출

인도아대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83년 아프리카의 최악의 가뭄으로 3천5백만명이 식량위기에 직면했으며, 85년에는 비가와서 한시름을 덜었지만 이디오피아, 모잠비크, 수단 등지에서도 커다란 홍수피해를 겪었다. 남아메리카에서도 1982년 아마존강 상류가 범람하여 5천6백여명이 사망, 실종되었다. 그해 3월과 6월에는 콜롬비아, 페루, 에쿠아도르, 볼리비아의 안데스지방의 여러나라에서 금세기 최악의 수해와 산사태가 발생해서 1천명 이상이 사망, 실종되고 수십만명의 이재민이 생겨났으며, 그 직후에는 볼리비아와 페루에 1백년만의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 2백만명 이상이 재앙의 피해를 입었다.

개도국인 중국에서도 일례를 들어, 1981년 여름 양자강을 휩쓴 대홍수는 건국이래 최대규모로 철도 도시 기반시설을 파괴하고 사망자 4천명, 가옥건조물파괴 50만호, 침수가옥 2백만호, 50만ha의 농경지 침수라는 재난을 가져온 이래 가뭄과 홍수가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에서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나타나는 가장 표면적인 원인은 수원(水源)지대의 삼림이 마구 벌채되어 우기에 보수력(保水力)을 잃은 삼림에서 물이 한꺼번에 넘쳐 흘러 홍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대량의 토사가 흘러내려, 하천바닥을 높여 많은 지역을 침수시키고, 한편 우기에 비가 적어지면 극도의 가뭄에 시달리게 되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도처에서의 가뭄과 홍수의 악순환의 본질적인 원인은 선진제국의 복지사회를 위해 소위 가난한 나라의 원시림과 식생을 식민지화하여 탐욕스럽게 수탈하기 시작한데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해 지역사회의 민중들 사이에 수신(樹神)의 신화가 무너진데 있다.

신행수첩



◇조선시대 목조건축물인 기림사 대적광전은 본당으로서 비로자나삼존불이 봉안되어 있다.

'나 혼자서도 잘해요'

무진법장사 여름불교학교

신나는 여름방학. 부모님 옆에서 어리광도 부리며 맘껏 뛰놀 수 있는 즐거운 시간들, 이렇게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며칠쯤은 부처님 동산에서 효를 배우고 재미있는 놀이를 즐기며 친구를 사귀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무진법장사가 마련하는 여름불교학교는 학교성적보다는 올바른 가치관과 정서함양에 보다 큰 뜻을 둔다고 한다. 유치부나 국교생만 참가할 수 있어 아쉽긴 하지만 한여름 태양을 밟으며 부처님 미소를 배우는 아이들의 함박웃음을 생각해보라. 무엇이든 혼자서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배울 수 있는 여름불교학교에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 (02)932-2333

"천년古都의 숨결 느껴요"

신행연 경주로 문화기행

토함산에 자리잡아 멀리 바다건너 불국정토를 내다보시는 석굴암 부처님과 함께 민족의 정기를 이어온 천년고도 경주.

불교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이 경주지역 불교문화기행을 떠난다.

제헌절 연휴를 이용해 오는 15~17일 경주 남산·석굴암·감은사지·기림사등 15곳의 불교문화 유적지를 찾아 떠나는 이번 기행을 통해 살아 숨쉬는 우리역사의 숨결을 느껴보자. (02)587-6613

올 피서는 자비의 땀으로

호스피스 간병전문인 교육

바야흐로 산과 들로 더위를 피해 나가는 여름 피서철이 다가오고 있다. 이왕 흘리는 땀방울을 좀 더 보람되고 알차게 흘릴 방법은 없을까.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불자라면 말이다.

육체의 고통을 호소하는 여웃들이 있어도 전문적 지식이 없어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불교 바라밀간병인협회(원장 효종)는 제2기 호스피스 간병전문인 교육을 21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올 여름을 소중한 '자비의 땀'으로 보내고자 하는 불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051)633-6413

"첫 발심이 바른 깨우침"

보광사 실천불교학교

초심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열린 광장이 마련된다. 수많은 불자들의 근기에 맞는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는 보광사(주지 효림스님) 실천불교학교가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0348) 942-7700

민족문화의 꽃 팔만대장경 보급

해인사 모조경판 제작 '학교에 보내기' 운동

해인사에 봉안중인 고려대장경판은 국보 제32호로서 고려 목판활자문화의 꽃이며 민족문화의 자랑이다. 그러나 전국의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통해 잠시나마 경판을 접할 기회가 있으나 주마간산(走馬看山)격의 구경이 되기 쉽상이다.

해인사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료용 뿐만아니라 국보문화자료전시용, 인경(印經)실습용으로 전국 초·중·고교에 모조경판(해인사에 보관중인 8만1천2백 58판의 경판중 가장 표본이 되는 경판 1판)을 제작, 기증자를 통해 '학교에 경판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기증신청의 접수는 장경연구소에서 하며 경판 1매의 기증가격은 15만원이다. 기증자가 직접 원하는 학교에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소에 위탁할 경우 기증자가 선정하는 학교에 보내 준다. 경판보내기운동으로 발생되는 이익금은 전액 연구소가 추진하는 대장경판의 보존화와 전산화 사업에 쓰인다. (0599)31-1023

때로 배우니 또한 즐겁고

부산 정토법당 불교학교

공자 삼락중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말이 있다. 바쁜 일상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겐 법당을 찾아 불법을 배울 시간적 여유가 없고 비록 여유가 있다해도 불법에 대한 체계적 학습은 참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부산 정토법당이 이런 직장인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실천불교학교'를 연다.

불교의 특징과 우주관, 세계관을 배우고 거기에 불교의 인생관과 사회관을 배우고 나면 몸과 마음은 어느새 정토세계에 닿아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것이다. 불법을 배운다는 것, 또 하나의 세계를 얻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051)557-2746

정토로 가는 설법의 향연

실천적 불교사상 대강좌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이 무엇일까?

"개인이 수행을 통하여 맑은 마음을 갖고 그러한 개인이 모여 좋은 벗을 이루며, 모두가 잘 살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일구자는데 있다"고 정토불교대학생회는 말한다.

정토불교청년회가 불교근본교리의 실천적 사상을 배우고 인생관·세계관을 확립할 수 있는 '제14차 실천적 불교사상대강좌'를 개최한다.

법륜스님, 유수스님 등을 법사로 무아, 무상, 일체개고, 인연고, 중도, 육바라밀을 공부하는 이번 강좌는 새로운 길을 찾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개방된다. 강의는 7월10일부터 8월14일까지. (02)379-1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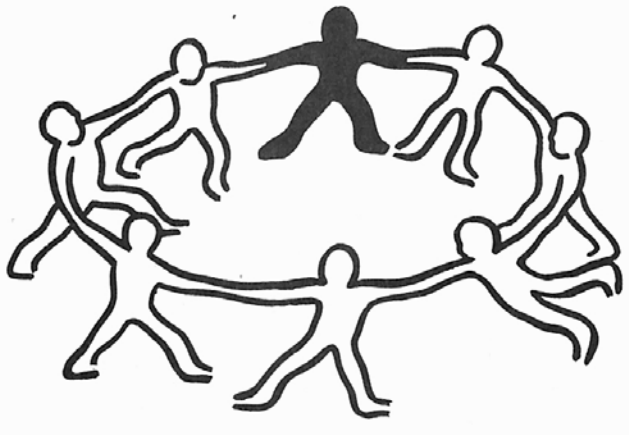
생활속의 불교 ㉛

남의 손으로 가려운 데를 긁는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다. 친구가 볼 일이 있어 나루를 건너는데 덩달아 따라 나선다는 뜻이다. 얼핏 들으면 서로 거들어주는 우애를 강조한 말 같지만 실은 줏대없는 삶을 빗댄 것이다. 그런데 현대인의 삶이란 대부분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곰곰이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일상은 대체로 남이 생각해낸 대로 생각하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서 산다. 남들이 큰 집에 살면 나도 큰 집에서 살아야 하고 남들이 고급차를 타면 나도 그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린다. TV광고에서 좋은 상품이라고 선전하면 그런 줄로 알고 언론이 '이렇더라' 하면 철석 같이 믿는다. 자고 새면 '남들은 어떻게 하나? 남들은?' 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운다. 서양의 어떤 철학자는 현대인의 이런 삶을 가리켜 '참 삶을 잃어버린 허풍 인생'이라고 했다.

현대는 복잡다단한 시대이다. 따라서 세파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 정보야말로 불가피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어디서 무슨 일이 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쯤은 알아야 살아갈 수 있다. 적자생존의 원리인 것이다.

그러나 정보를 갖는다는 것과 외부의 영향에 따라 기계적인 삶을 사는 것과는 다르다.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과 남이 생각하고 남이 한 것대로 따라 사는 것과는 인생의 의미부터가 다르다. 쳇바퀴를 따라 돌 것이냐, 나의 길을 갈 것이냐, 군중 심리에 휩쓸려 들쥐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우주의 중심임을 자처하며 살 것이냐는 정말로 관이한 삶의 방식이 아닐 수 없다.



남이 가르쳐 주는 것을 듣고, 남이 하는 것을 보고 '그게 이렇더라' 하는 것은 마치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자신의 진화엔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한다.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납득하고 스스로 발견해야 참으로 아는 삶을 이어가는 것이다. 가려운 데를 긁을 때는 내 손으로 긁는 것이 가장 시원하다.

주체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자기성찰(省察)을 말씀하셨다. 남의 거울에 비춰보지 말고 제 마음의 거울에 비춰보라고 하셨다. 헐떡이는 망념(妄念)을 쉬고 조용히 내 마음의 거울에 되돌려 비춰보라(自心返照)고 하셨다.

나의 생각·느낌·언행의 모든 것, 심지어는 숨 쉬는 일까지도 비춰보라고 가르치셨다. 그것이 거품 같은 인생, 남의 발뒤꿈치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닌 참다운 삶, 참나와 더불어 사는 삶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우신건축설계사무소
소 장 : 문 근
광주시 북구 중흥동 693-13 새한빌딩
전화:광주 525-3130 / 팩스 : 521-1845



월주스님 안휘성 서기장과 만찬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달 26일 타워호텔 한국관에서 한·중문화교류협회 초청으로 방한한 안휘성 서기장과 만찬을 함께 했다. 법타스님, 송석구교수(동국대 총장), 방조양(안휘성정부 고급고문), 장두성(대외문화교류협회 명예회장)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휘성 서기장은 경주에 신라승 김교각스님의 동상 건립계획을 밝혔다.



한국종교교육학회 창립 총회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박선영, 동국대교수)는 지난 달 24일 동국대 동국관에서 창립총회 및 기념 학술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박선영교수가 초대회장에, 명성여고 김형중 교법사와 대진대 윤기봉교수가 감사에 각각 선임됐으며, 임태평, 김용표, 이장용, 황옥자, 방정애교수 등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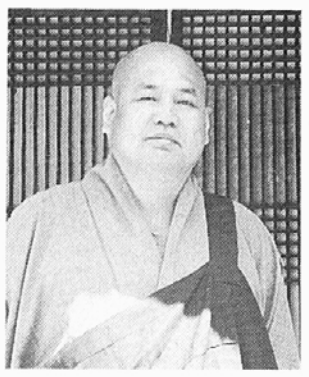


구룡사 극락전 열반상 점안식

조계종 통도사 서울 포교당 구룡사(주지 정우)는 지난 달 23일 오전 10시 구룡사 5층 극락전에서 열반상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안식에는 태응스님(불교텔레비전 사장)을 비롯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했다.

"화엄사상 기초로 종단 교육체계 확립 한국불교 대중성 확보 주력"

화엄학림 초대학장 연관스님



"화엄은 한국불교의 사상적 토양입니다. 화엄학림은 화엄의 사상과 선(禪)이 만나 새로운 빛을 내뿜는 곳이 될 것입니다."

화엄학림의 초대학장 연관스님은 한국불교가 관념불교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역사성과 대중성을 확보하고 고준한 사상의 뿌리를 굳건히 하는 일이라며, 화엄학림은 이를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엄학림은 조계종의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입방할 수 있는 화엄경 전문학림으로 △조계종 교육체계의 확립 △교육의 방법과 내용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대사회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놓여 있으며, 새로운 세계관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세계관은 불교, 그 가운데서도 화엄사상이 가장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수학기간 2년동안 화엄현담 화엄경 화엄경소 화엄학개론 화엄교판사 그리고 화엄과 수행론 등 주로 '화엄'을 공부한다.

화엄학림이 종단의 교육체계를 바로잡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장소임을 중책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는 연관스님은 "소규모의 강원에서도 전문학림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 교육체계 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구佛放 추진위원장



설조스님(불국사 주지)은 지난 18일 대구불교방송 추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위촉됐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위원에 무공스님(동화사 주지), 일타스님(은해사 주지), 법조스님(고운사 주지), 녹원스님(직지사 주지)을 선임하고 5개 교구본사에서 자금을 갹출하여 일정액의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깨달음의 장' 수련회 개최



법륜스님(불교환경교육원장)은 3일부터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진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수련프로그램인 '깨달음의 장'을 네차례에 걸쳐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개최한다.

청교련 중앙이사 피선

진영스님(과천 보광사 주지)이 지난 14일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중앙 이사로 조행숙씨와 함께 정식 승인됐다.

美필라델피아 관음사 방문



혜남스님(중앙승가대 불전국역연구원장)은 지난 달 28일 미국 필라델피아 관음사를 방문, 8월 중순 귀국한다.

전통가요 앨범집 출발



대주스님(백선사 주지)이 전통가요를 담은 1집 앨범을 출반했다.

'떴다 스님'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스님은 올 겨울쯤 자작곡을 위주로 2집을 선보일 예정.

사원주지연 합창단장 맡아

동진스님(망월사 주지)은 지난 23일 대구 국제오피스텔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제3차 임시총회에서 새로 창단된 사원주지연합회 합창단의 초대단장으로 임명됐다.

미얀마 안거차 출국



자명스님(시인)은 안거 결제차 지난 29일 미얀마로 출국했다. 스님은 양곤 수행처에서 안거를 마치고 11월경 귀국한다.

중국연변서 합창 공연

정우스님(제주 우담바라 어린이 합창단장)은 오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중국 연변에서 맑고 고운 목소리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온 '우담바라 어린이 합창단'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중국 연변 태평소학교 '꽃봉오리 예술단' 초청으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입정大와 교류차 일본 방문



목정배교수(동대 불교대학원장)은 해외 대학과의 자매결연 및 학문교류를 위해 지난 달 26일 일본 입정대학을 방문했다.

미주 BBS 후원회장 취임



권기종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지난 15일 미주 L.A불교방송 후원회장에 취임했다.

'제일방송' 사장 취임



정인섭씨는 지난 26일 케이블TV 오락프로그램 공급업체인 제일방송 사장에 취임했다.

정사장은 불교방송의 제2대 사장직무대리를 역임했었다.

한국공법학회장 피선

박윤흔교수(경희대 법과대학)는 지난 2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공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7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부산 btn 총괄국장에 임명

이영구(전 부산 MBC 아나운서 부장)씨가 지난 1일 불교텔레비전 부산지사 총괄국장에 임명됐다.

이씨는 대전보문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제주 MBC 입사, 74년 부산MBC에 입사하여 지난 94년까지 재직해 왔다. 94년 4월에는 대한민국 국민포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울갤러리서 풍경화전



박명순씨(한국풍경화가회 부회장)가 자연의 빛깔과 향기를 독특한 터치로 선보인 '풍경화전'을 오는 9일까지 태평로 서울갤러리에서 갖는다.

수미정사서 아함경 강연



전재성교수(한국불교대학)는 7일 오후 7시30분 서울 동대문구 수미정사에서 백화도량(상임법사 김호성)이 마련하는 제31회 특강법회에 참석, '왜 아함경은 중요한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02)929-0929

6·27 광역 기초 단체장 불자 당선자

지난 27일 실시된 지방자치 단체장선거에서 불자이거나 친불교적인 성향의 인사가 다수 당선된 가운데 시 도지사 15명중 5명이 불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불자라고 밝힌 당선자는 홍선기(59, 대전시장) 주병덕(59, 충북지사) 허경만(57, 전남지사)씨 등이며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조순씨(67)와 부산시장의 문정수(56)씨도 교계에서는 친불교 인사로 알려졌다.

시·도지사 당선자 중에는

조순 문정수씨 등 시도지사 5명 영예

무종교인 3명, 기독교인 4명, 천주교인 3명으로, 비슷한 종교분포를 나타냈다.

한편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이배영(서울 은평구청장) 김두기(서울 영등포구청장) 엄태항(경북 봉화군수) 정채호(전남여천시장) 박팔용(김천시장) 김학문(문경시장) 김근수(상주시장) 김기인(경북도의원) 박두필(경북도의원)씨등 다수의 불자들이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조 순씨



◇문정수시



◇허경만씨



◇홍선기시



◇주병덕시



서울시장 조순씨 부인 김남희 보살

"임기동안 불심 내조 하겠어요"

"여러 불자님들의 성원으로 껍질하나 벗은 듯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임기가 끝날때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민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조순씨 부인 김남희(보현행 64)보살은 "선거운동을 통해 서울시장 자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자리인지를 알게 되었다"며 "올바른 남편 봉양이 불자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보살은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매월 4~6곳의 사찰을 참배하며 '소외된 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손길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발원했다.

투표일 아침에도 안방의 대형 초에 불을 붙이고 삼배와 반야심경으로 남편의 당선을 기도했다.

처음에는 "나이들어서 꼭 출마해야 하느냐"고 반대했던 김보살이었지만 "그동안 밖기만 했으니 이제 남을 위해 베풀어야 한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결정한 남편을 위해 고아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과 달동네를 찾아 강행군을 했다.

김보살의 신행은 어려서부터 시작돼 결혼해서는 풍양조씨 시조가 창건한 남양주 견성암에서 신행활동을 이었고 봉천동으로 이사하면서부터는 15년째 강남 봉은사를 찾고 있다.

결혼생활 49년째로 4형제를 보란듯이 키워낸 김보살은 신임 조순 서울시장에 대해 "이제껏 손에서 책을 놓은 모습을 본 적이 드물다"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 실천하고 부당한 것은 절대 하지 않는 완고함이 있지만 손수 차를 끓이는 자상한 남편이다"고 소개한다.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부산지사 개원기념

고은선생 초청 법회



◇고은 시인

지난 달 10일 개원한 현대불교 부산지사가 개원을 기념해 고은선생 초청 대중법회를 개최합니다.

본지 논설고문이며 우리시대 최고의 문학가인 고은 선생은 이날 법회에서 화엄경의 가르침을 통해 참다운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시할 것입니다.

부산·경남지역 불자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 주 제 : 천진난만의 경전—화엄경의 한 측면
- 일 시 : 1995년 7월 11일 오후7시
- 장 소 : 범일동 동보빌딩 4층 현대불교 부산지사 강당 (국제호텔 뒷편)
- 문 의 : (051) 634-5114
- 강 사 : 고은 선생(시인·본지 논설고문)

게시판

▲전통침술강좌 개강=불가침구학회(회장 이홍재)는 전통침술강좌 기초반을 3일 개강한다. 월·화·수 오전10시 수업.(02)725-7932

▲야간학교 학생모집=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국졸자나 중학중퇴자를 위한 무료 야간학교 학생을 모집.02)985-0161

▲자기표현훈련=목동청소년회관이 방학을 맞은 국민학생을 위한 자기표현훈련 특강을 오는 24일부터 8회에 걸쳐 실시. (02)646-6818

이전 한국전문신문협회는 지난 30일 종로구 신문로 2가 1-181로 사무실을 이전.

알림 이건호(보림사 대표) 모친 이순자보살이 지난 달 20일 숙환으로 별세. 8월7일 마포 석불사에서 49재.

남지심(우리는 선우 공동대표) 모친 지난 달 19일 숙환으로 별세. 8월6일 경북상주 남장사에서 49재.

부산불교 거사림회 **공병수 회장**



불사후원등 초발심 자세로

"무능한 사람이 막중한 직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초발심의 자세로 돌아가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지난달 27일 부산불교거사림회 제10대 회장 취임식에 앞선 공병수(59, 법명 來山)씨의 소감이다.

창립 2년뒤인 74년에 입회, 89년 제7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공씨는 선배 역대회장들의 불교발전을 위한 노심초사 덕분으로 오늘의 거사림회가 있게 되었다며 경험많은 역대회장과 회원들이 한덩어리가 되는 거사림회를 만들어 가겠단다.

"전반적인 불교의 흐름은 과거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승가대의 이전과 불교텔레비전, 불교방송 개국 등으로 도제양성, 포교가 활성화되고 있어 불교의 앞날은 희망적이라 봅니다."

그러나 공회장은 불교가 타종교에 비해 조직적인 면에서 치밀하지 못해 각종 불사나 사회활동 등의 원만 회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병〉

동서심리학연구소 **이광준 소장**



禪심리학보급 자아회복 기여

"마음의 병(業障)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론을 심리학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禪심리학입니다. 이 동양의 심리학은 세계화시대에 서양의 사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될 것입니다."

일본 구마자와(駒澤)대학에서 카운셀링 치료심리학을 전공하고 92년도에 '카운셀링에 있어서의 선심리학적 연구'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후, 지난해 봄부터 동서심리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왕성한 저술활동과 강연을 통해 국내에 선심리학을 보급하고 있는 이광준소장 (55).

"선심리학의 방법론은 현대사회에서의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시켜 줄 뿐 아니라, 인간의 원형적 심리구조를 밝혀준다"는 이소장은 "카운셀링으로서의 禪은 자기자신을 비춰주는 역할과 진여법계(眞如法界)로 돌아가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방편이 된다"고 강조한다. 이소장은 '선·동양심리학 총론'과 '일본문화론'을 집필중이다. 〈재〉

● 보살행이 숨쉬는 현장 ●

금하선원 사랑나눔마당

"따뜻한 자비손길 동심 꽃피워"

소년소녀 가장·심장병어린이 돕기 기금 조성



"엄마! 스님이 그러시는데 부처님은 우리같은 꼬마친구들을 좋아하신데."

준이(영희국교 2)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제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없이 앉아만 계시는 부처님이 자기와 같은 어린이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의외인 듯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마냥 신나기만 하다.

금하선원이 지난 24일 토요일 강남구 일원동 일원공원에 마련한 '차 한잔의 사랑 나눔마당, 소년소녀 가장 및 심장병어린이 돕기 기금조성 일일 차 대접' 행사장.

공원으로 들어오는 길목엔 멀리서부터 엄마 손을 잡고 걸음을 재촉하는 어린이들이 하나둘씩 들어선다. 쳇바퀴 돌듯 학교와 학원을 전전긍긍하며 버젓한 놀이문화 한번 누려보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돈다.

2천년대를 책임질 어린이들의 밝은 마음과 깨끗한 세상을 일구는데 남다른 관심과 함께 활동을 펴 오던 청암스님과 금하선원의 1백여 불자들은 오랫동안 계획해 오던 어린이대축제날에 꼬마친구들이 속속 모여들자 아이들 못지않게 흥분된 표정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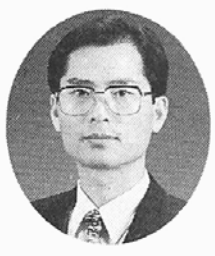
금하선원의 1백여 불자들은 어린이 교육과 포교에 출가이후 어린이 교화에 줄곧 뜻을 펴 오던 청암스님과 함께 하는 신심깊은 불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별다른 모임의 이름은 없다. 불자 어린이들 뿐 아니라 어린이 누구나와 언제나 부담없이 함께하기 위해서다.

"오늘은 너희들 날이니 맘껏 웃고 놀아." "아줌마! 까까머리 스님도 저희랑 똑같이 웃고 계시네요." 아이들의 호기심 섞인 한마디 농담에 행사장 안팎은 웃음바다가 됐다.

어린이 대축제를 계기로 청소년가장에게 백미 30여 가마와 감로심장재단에 기금을 전달한 청암스님과 행사진행 불자들은 이날 함께한 어린이들이 불교와 가까워진 것 같아 흐뭇하기만 하다.

그런 중에도, "부처님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시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라며 특별히 초청돼 온 소년소녀 가장의 용기를 돋우는 부처님 법과 사랑이 전해진다. 그리고 일원공원엔 어린이, 부모님 노래자랑이 한창이다.

〈도필선 기자〉



대한불교청년회 **이상번 회장**

"재정자립·교계 지원 절실"

"불교청년회가 발전하려면 개인회비 내기가 정착되고 교계스님들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29일 만해 환용운선사 열반 51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한 대불청 회장 이상번씨는 스님의 정신계승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기반 달성과 교계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어린이·학생에서 일반인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청년문화는 생산적 소비문화"라는 이씨는 "불교청년운동이야말로 지방화시대의 지도자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불사"라고 강조한다.

지난 6월 북경에서 열린 한중일불교우호회의에 다녀온 뒤로는 북한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 넣는데 앞장서는 일과 연변조선족에 한글경전보내기 운동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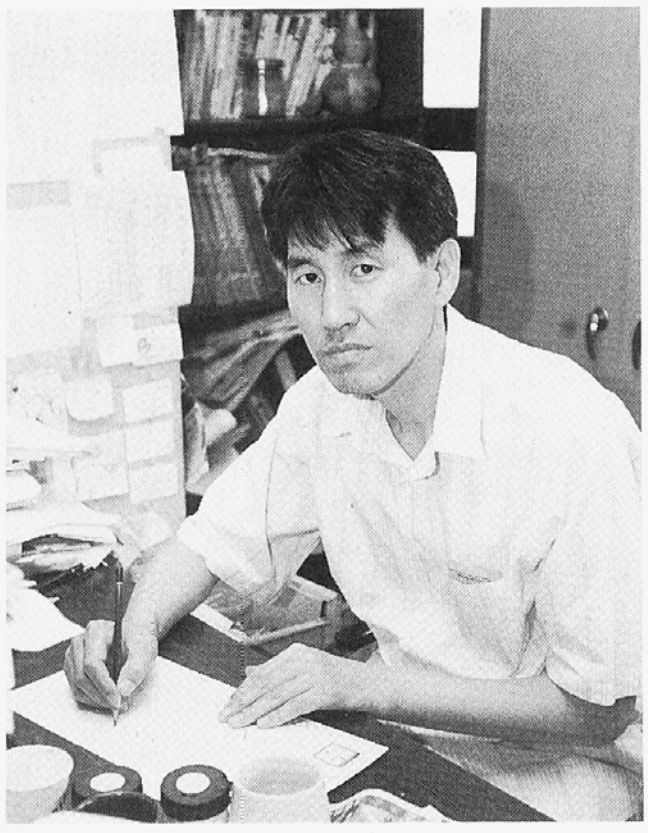
올 1월 취임후 적지않은 사재를 들여가며 불청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이씨는 3월1일에는 만해백일장을 개최했고 4월2일에는 42평규모의 만해교육원을 개원하여 북한으로부터 기증받은 백자불상등 불상 2점을 봉안했다.

앞으로 만해학교(학교장 석주스님 내정)를 설립하는게 당면과제라는 이씨는 "청년불교가 서야 불국토가 이룩된다"며 말을 맺는다. 〈윤〉

매일 백척간두서 '만평화두' 풀기

산문밖의 禪

시사만화가 박 재 동 씨



"저는 날마다 하나의 화두(話頭)를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오전 편집회의부터 오후 마감시간까지 그날의 만평(漫評) 주제를 풀기위해 골몰하지요."

한겨레신문의 얼굴이자 최고 인기코너인 '한겨레그림판'을 빚어내는 시사만화가 박재동씨(43).

자신의 처지(?)를 "나날이 명을 단축하며 사는 신세"라고 표현하는 그는 언제나 몇 초후의 스타트 총성을 기다리는 육상선수처럼 긴장 속에 깨어 있지만, 가까운 삶의 얘기나 사회적인 이슈를 내면화해 빈 백지에 그려내는 자신의 작업을 쉼없는 구도행(求道行)으로 본다.

그는 하나의 그림을 낳는 산고(産苦)를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의 진일보(一步)'로 파악한다.

화두 삼은 주제를 푸는 열쇠인 아이디어가 앞뒤로 막혔을 때 그에게는 언제나 '마감시간'이란 절벽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를 뛰어넘기 위한 필사의 도전이 절벽 위에서 몸을 던지는 행위로 표출된다는 것.

진퇴양난의 시점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정신을 집중할 때 막혔던 벽이 뚫어지고 절벽이 사라지면서 하나의 화두가 빛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마치 선승(禪僧)의 견성(見性)이 몸을 던지는 불퇴전(不退轉)의 순간에 나타나듯….

"호랑이와 마주쳤을 때 회피하면 잡아먹히지만 죽기살기로 맞서면 때려 잡을 수 있다"는 용기와 배짱, 끊임없는 도전의식으로 항상 생명력있는 그림판을 엮어내는 그는 게으름과 현상유지, 그리고 일상(日常)에의 안주를 가장 싫어한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언제나 젊고 신선하며 파격적이다.

바둑격언에 '겁자무공(怯者無功)이요 탐자견망(貪者見亡)이라'는 말이 있다. 겁을 내는 자는 공을 못세우고 욕심을 부리는 자는 망한다는 뜻이다. 이 말에 비춰볼 때 그는 '용기가 있어 독자들에게 인기가 있음에도 과욕을 부리지 않아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중도(中道)를 지킬 줄 아는 언론인이다.

그는 자신의 강력한 비판의식(용기)이 "시민들의 쌈지돈을 모아 설립된 신문사의 자본구조와 1번씩 죽었다 살아난(해직된) 경험이 있는 겁없는 기자들의 근성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한다. "개인은 약한 존재일 수 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는 자신의 작은 용기도 그와같은 든든한 배경 덕분에 위력을 발휘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조심성 있게 그림을 그린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권력과 금권(金權)이 아닌 자신의 그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뜻밖의 피해자들이다. '만화'라는 고도의 추상성과 집약성을 지닌 그림이 행여 뜻하지 않은 의미까지 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언론의 횡포를 걱정할 줄 아는 중도적인 인물이다.

실제로 그는 날카롭고도 신랄(辛辣)한 풍자의 칼을 찬 협객(俠客)의 풍모를 지녔으면서도 고요한 사색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수행하는 구도자의 모습을 함께 지녔다.



그는 매일 점심식사 후 1시간 가량을 신문사 근처 효창공원에서 산책을 겸한 사색으로 보낸다. 그토록 바쁜 사람이 그토록 한가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참으로 만화가다운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걸까? 아니면 禪이 가져다 주는 여유일까?

그만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여유는 이러한 독특한 시·공 속에서 엮어진다. 그러나 그의 독특한 개성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은 결코 아니다.

서울 미대 시절,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던 그가 어느날 우주와 인생과 자아를 찾기 시작할 때부터 삶은 깊이를 더해 갔다. 온갖 의문 속에 쌓인 문제의식들은 무위식 중에 그를 불교의 큰 바다로 이끈 것이다.

불교라는 큰 바다에서 그는 〈한글 팔만대장경〉〈숫타니파타〉 등의 불교서적을 통해 삶의 방향을 정립하게 됐다. 특히 초기불교의 서적들은 부처님의 육성을 들려주는 듯해 방황하는 미술학도에게 더없는 감동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그가 경험한 또하나의 감동은 '진정한 스승의 사랑'을 체험한 일이다. 그는 당시 부산에서 해산(海山)스님이란 대덕(大德)을 통해 "부모의 사랑도 애인의 사랑도 아닌 가장 숭고한 스승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한다.

"당시 온갖 아집에 빠져 있던 나는 스님을 뵙는 순간 나도 모르게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 속에 가득찬 온갖 의문 덩어리가 눈녹듯이 사라졌으며 다만 '올바르게 살면 되지'하는 마음만 들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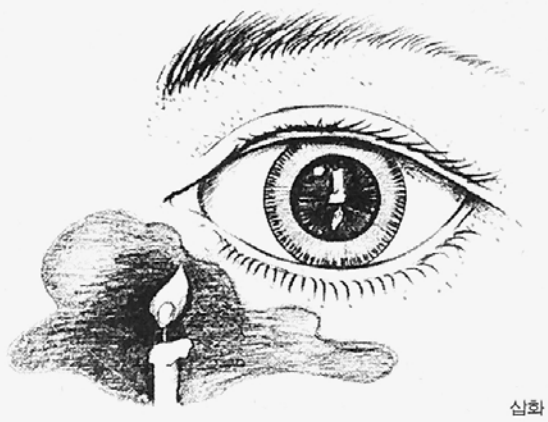
그는 이때 처음으로 자만에 차 있던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달았다고 한다.

스스로 찾은 불교와의 인연으로 그는 4년전 승가대신문 편집장이었던 보천스님을 만나면서 '승가그림판'을 그려오고 있다. 이처럼 승가그림판에 애착을 가져 온 것도 "작품활동을 하나의 구도행"으로 보는 그의 세계관 때문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세상에서 친절과 우애를 나누며 사는 사회가 불국정토"라고 말하는 그는 "구도자라면 개인의 자기완성을 통한 해탈과 함께 역사적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는 중생을 위한 불국정토의 실현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김재경 기자

용기있는 비판·다수 위한 中道 경전 통해 배워
승가 그림판 4년째 작업…"작품은 구도행 산물"



삽화 · 이기선

사실을 직시하는 정견 갖자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㉝

전도(顚倒)
과정 도외시하고 결과만 중시

시장경제에서 쓰이는 말 중에 파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여 사람의 생각을 흔들리게 한다. 백화점이나 슈퍼에서 내놓은 현수막이나 광고에 쓰여진 '가격파괴' 문구는 좋은 예다. 도대체 가격파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격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다. 생산과 소비가 맞물려 나가야 한다. 생산이 과잉되면 자연히 소비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구매자의 소비성향이 증대되면 시장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상거래의 기준인 것이다.

소비자 수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데 비하여 물건의 품귀현상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가격이 폭등하여 일부 사람들만이 독점하는 경제 악순환이 발생한다.

하지만 생필품의 가격은 언제나 적정선에서 유지되어야만 일반 서민의 생활이 지탱된다.

그러나 요사이 상거래에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작희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보통사람은 이에 따라 갈 수가 없을 때가 종종 있다. 창고공개 창고털이 가격파괴 이러한 용어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게 양질의 상품을 손쉽게 아니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뜻으로 내다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기묘한 암수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

가격파괴 속에 숨은 암수

가격이 파괴되었다면 가격이 폭락이 되었다는 의미이고 구매자는 싼 가격에 다량의 물품을 구입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생산자가 생산가 이하로 낮추어 준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 아닌가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인줄 알면서도 당장 가격이 저렴하다는 생각에, 마구 구입하게 된다. 그러다보면 좁은 집안이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가 된다.

생산자의 창고에서 개인집의 공간으로 창고이동이 일어나는 현상은 아무도 감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생산자의 창고에는 새로운 상품을 보관, 유통하게 되니 벌개의 이익을 추구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의 사실이다. 이것은 창고털이라는 어감에 서민이나 소비자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 또한 가격파괴라는 광고전에 말려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들은 모두가 현명하고 똑똑한 듯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아둔한 범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범부적 생활을 하지 않고 영리한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는 착각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불교용어에 전도몽상(顚倒夢想)이란 말이 있다. 실재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뒤집어 보고, 거꾸로 보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 앞에 사실적인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직시하는 안목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안목의 결여는 현실성을 파악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과오를 범하게 된다.

부처님은 언제나 사물을 대할때 그 사물의 참다운 형성과정을 바르게 파악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물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현상적 즉물로 보고 그 원인적 발생, 동기, 진행성장의 전과정을 도외시하고 다만 즉물적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있을때는 행복하지만 없으면 답답하게 생각하고 비감에 빠지게 된다.

몽상서 벗어나도록 노력

그러나 즉물적 현상을 정견으로 인식하면 증감, 생멸, 유무에 매이지 아니하고 연기적 실상으로 지실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전도된 사고가 아니라 정립된 사고로 생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몽상이 있을 수 없다. 몽상이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몽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자기 본위의 정위치에서 생활하게 된다.

창고를 비운다. 창고를 털어 놓는다. 가격을 파괴한다 등 생산자가 어떤 수단으로 광고효과를 노리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만이 필요하다고 정견적 구매의식으로 생활한다면 정상적 생활인이 될 것이다.

사람은 바른 눈이 있어야 하고 그 바른 눈은 도착된 현상에 빨려들어가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것은 몽상적 비전에 마음을 끌어들이지 않는 자각상태가 온전함에 발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견의 안목이 흐린 사람은 비전이란 몽상에 전도되고 착시하는 현물을 보고 살아가는 허수아비가 될 것이다.

세계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95 전국 청소년 하계 극기 수련대회

1. **행사명 :** '95 전국 청소년 하계 극기 수련대회
2. **주 제 :** *세계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3. **취 지 :** 불교청소년의 보다 건전한 육성과 세계화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진취적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
   - **일 시 :** 1995년 7월 28일 ~ 7월 31일 (3박 4일)
   - **장 소 :** 속리산 유스타운
   - **참가대상 :** 불교 청소년 150명 (선착순)
   - **참가회비 :** 25,000원 (기념T-셔츠, 교제 지급 및 범주사 답사)
     (1인 소요경비 70,000원 중 45,000원은 본부에서 지원)
4. **수련내용**
   - **가. 과정 프로그램 :** 만남의 시간, 조별시간, 과정훈련
   - **나. 교양 프로그램**
     - 강의 – ① 세계 속의 우리 청소년의 역할
       ② 불교청소년의 올바른 이해(법문)
       ③ 영원한 자아발견
     - 민속놀이 한마당, 공동체놀이, 즐거운 한마당
     - 우리는 하나 – 주한 외국인과의 만남
     - 사경, 심성개발
   - **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 탈춤체조
   - **라. 작업활동 프로그램 :** 만들기 시간
5. **준비사항 :** 세면도구, 필기도구, 간편한 복장, 랜턴, 발우공양준비 (공기 또는 대접 4개, 수저, 깔판, 보자기)
6. **주 최 :** 사단법인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7. **후 원 :** 문화체육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현대불교신문사
8. **신청마감 :** 7월 13일 (목) 오후 6시까지
9. **접수 및 문의처 :** 사단법인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39-1 상운중심 3층
   (전화) 02-735-8165, 733-5138 / (팩스) 02-722-6623

* 기 타
- –. 회비를 직접 접수하지 못할 경우는 아래 은행으로 입금하여 주십시오.
  (국민은행 / 예금주 : 청교연 / 계좌번호 : 023-01-0504-027)
- –. 은행으로 입금하신 분은 행사당일 입금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 행사 당일 오후 2시까지 수련장소로 개별 도착하셔야 합니다.
- –. 교통편
  - 서울 / 동서울 시외버스터미널, 서울 남부시외버스터미널
    → 속리산 行 직행버스(속리산 유스타운까지 도보 10분 거리)
  - 대전 / 대전 → 보은 시외버스 터미널 → 속리산 行 직행 버스
    (속리산 유스타운까지 도보 10분 거리)

사단법인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회장 박현성 합장

강원 민통선 불교유적 '최초' 정리

신종원 교수 심원사 누석대등 민속신앙과 융화과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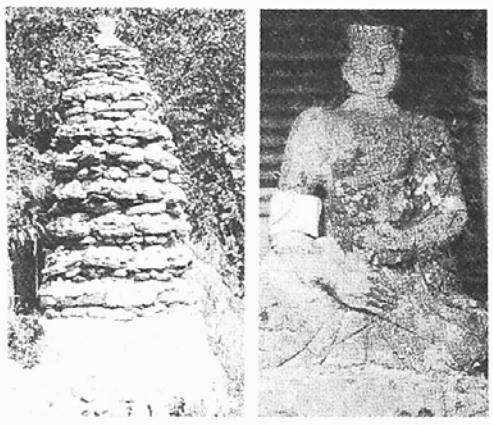


◇신종원교수

남북한 접경지역인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등 강원도 북부지역의 불교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향토사를 정리한 논문이 최초로 나왔다.

〈강원민속학〉 제11집에 발표된 강원대 신종원교수(역사교육과)의 '강원도 북부 남북한 접경지역의 향토문화조사'란 이 논문은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가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향토사 민속 설화 민요 고고학 등 5개 분야의 연구성과를 포괄한 〈강원도 북부 남북한 접경지역의 문화조사 연구〉 중 향토사 분야의 연구 성과물이다.

신교수는 △철원군 심원사 석대암(石臺庵)의 누석대(累石臺)를 중심으로 이형(異型) 불탑과 누석대형 불탑의 민속기원설을 연구하고 △화천군 간동면 용호리 미륵 △양구군 용다사 범종 △인제군 지역의 석탑과 대왕각(大王閣), 기린면 방동리 미륵불 △고성군 건봉사 백운교 준공 명(銘) 등을 유적과 문헌을 통해 조사, 이 지역 향토사의 체계화를 시도했다.



◇강원도 정선군 문곡리의 자문사 돌탑(좌)과 화천군 간동면 용호리 미륵.

특히 신교수는 "석대암의 석대(石臺)는 민속상의 누석대(서낭당 결의 돌무더기)와 형태상 차이가 없다"며 "석대암의 경우는 절을 짓고 탑을 세움에 있어 재래의 방식대로 탑을 쌓아올렸다"고 지적했다.

신교수는 경북 선산 도리사 탑과 군위 삼존석굴의 탑 등을 예로 들면서 이들 탑들이 재래의 누석대형 탑에서 한 단계 발전한 탑일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을 연결시켜 이해할 때 한국 불탑의 시원(始原)에 대한 새로운 해명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한국고유의 석제 조형물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던 결과 한국불탑의 시원형 내지는 중국계 불상과 연원이 닿지 않은 불탑에 대한 연구는 거의 황무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 따라서 관련기록이 거의 없는 이형(異型)탑에 대한 연구는 전통 민속신앙과 불교의 융합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가 될 것이란게 그의 설명이다.

이밖에 전형적인 마을미륵인 간동면 용호리 미륵의 민속신앙적 요소를 답사와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분석, 불교의 토속화 과정을 보여준 연구도 관심을 끈다.

그간 민간인 통제구역의 자연환경, 지형지질과 기상 등 자연과학을 중심으로 한 조사보고서인 〈휴전선일대의 연구〉(강원대출판부, 1987) 〈민통선북방지역자원조사보고서〉(강원도, 1987)가 있었으나 인문분야의 조사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재경 기자

종교법 법학적 입장서 조명

손성교수, 政敎 관계등 현안 분석



◇손성교수

최근 조계사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 난입과 관련, 실정법과 종교법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법에 대한 법학적 의의를 조망한 글이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동국대 법대 손성교수가 동국대 〈불교대학원논총〉 제2집에 발표한 '종교법의 의의'란 이 논문은 학문으로서의 종교법학과 종교법에 있어서의 종교의 정의를 밝히고 있다.

손교수는 "통교권(統敎權; 종교제도 또는 政敎관계), 치교권(治敎權; 교단의 지도권력, 행정권력 및 교도권)의 법적 문제나 종교단체법인론의 문제를 종교 및 종교단체의 특유한 생활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법학이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종교법학"이라고 정의한다.

손교수는 "1960년부터 지금까지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기독교재산관리법에 대한 논란과 종교법인법의 입법 요청등이 입법상의 문제가 되고, 헌법아래서 신교(信敎)의 자유 보장이 한층 완전해지고, 종교와 교육에 관한 규정이 교육기본법 속에 들어가게 되어 법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 이해는 실제상으로도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교수는 또한 최근에 야기되고 있는 국가의 종교행정적 정책의 대표적인 문제로서 △종교재산에 대해 조세정책적 입장에서 특례를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종교조직 중 대표자로 하여금 관할청에 신고토록 하는 문제 등을 들었다.

"월정사 9층탑 10세기초 조성"

문수신앙바탕, '신의' 스님 건립 유력

精文研 강병희교수 주장



◇강병희교수

월정사 8각9층석탑의 조성시기는 기존의 11세기에서 올려잡은 10세기 초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신문화연구원의 강병희교수는 지난 24일 미술사학회 월례 연구발표회에서 '월정사 8각9층탑의 조성 배경'이란 발표문을 통해 "월정사탑은 대체적인 탑의 양식으로는 통일신라 말까지도 올려 볼 수 있으나 기단부의 연화, 탑내외의 출토유물을 고려해 보면 10세기초에 조성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탑을 조성한 인물로는 "당시 명주지방 호족 세력과 깊은 관련을 가지며 그들의 비호 아래 인근 지방까지도 세력을 가지고 있던 사굴산파의 개조인 범일(梵日:810~889)의 10성인 중의 한명인 신의(信義) 두타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월정사 탑내에 봉안된 사리에 대해서는 우파국다와 석가세존의 사리라는 두가지 사료가 있으나 우파국다의 사리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지적하고, 탑의 조성배경에는 문수신앙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둘이 아닌 도리의 참뜻은

문 교리 가운데 자주 둘이 아닌 도리(不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참뜻은 무엇인지요? 아울러 무주상보시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신순남·경북 포항시 장흥동〉

답 이 세상을 두루 살펴보면 모두가 불교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고, 서로 말과 말이 통하는 것, 즉 식물과 곤충, 아니 무정물에 이르기까지 서로 대화하며 서로 존중하며 얼키고 설켜서 돌아 가는 것, 이 소통이 바로 '교(敎)'인 셈이죠.

그 통함에는 죽은 세상 산 세상도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꼭 말이 따라야만 통하는 게 아니고 말없이 소식이 전달되는 묘한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일체 만물 만생에 천백억 화신으로 응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뱀이 원한다면 한 찰나에 뱀으로 응해주는데 그 모습까지도 둘이 아니기에 걸림없이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관세음보살로 나투시고 지장보살, 약사여래를 염하면 또 그렇게 나투십니다. 부처님의 나투심에는 풀 한포기, 곤충 한마리, 산 세상 죽은 세상 가림이 없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식에게 아무 조건없이 응해주는 마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마음세계에서 근본이 같고 무소불통이니 겉모습이 다르다해서 어찌 둘이다, 따로따로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으로는 둘이 아니라고 하고 그 둘 아닌 도리를 깨달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둘이 아닌 즉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 주었다고 할 것도 없겠지요. 제 자신이 저에게 무엇을 하고서는 누굴 위해 무엇을 했노라는 생각을 합니까? 아니지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는데 내가 나를 위해 밥을 먹게해 주었노라는 생색을 내지는 않겠지요. 그와같은 것, 그것을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본래가 둘이 아니니 줄 것도 위할 것도 없이, 즉 했다는 상을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무주상보시란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상대를 둘로 보고 '~에게' '~위해서' 했노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는 본래가 둘 아닌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라 제대로 된 보시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했다'는 머무는 마음, 먹은 마음이 없는 보시를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머무는 마음이 있으면 진정한 보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주인공 찾는 것도 대상이 아닐까

문 스님께서는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일체를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인공 당신만이…'라고 하게되면 주인공이라는 대상이 있어서 거기에 맡기는 결과가 됩니다. 주인공을 생각하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공을 대상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는게 아닐까요?

〈유양호·서울 서초구 우면동〉

답 제 말을 잘 알아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공'을 말하고 주인공에 맡기는 도리를 얘기해 주니까 어떤 스님은 당신의 책에다가 '타종교에서 말하는 절대신과 무엇이 다르냐?'고 썼다는데 아마 적지아니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도 그와 비슷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결코 대상이 아닙니다. 주인공을 대상인듯 오해하게 되는 경우는 백이면 백 주인공을 바라보는 주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로 선 내가 있으니까 주인공이 대상처럼 여겨지겠지요.

그러나 본래 나는 空입니다. 누구나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을 돌고 돌아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럼 어느 때의 모습이 진정 '나'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돌고 돌아 지금에 이른 이 모습을 '나'라고 한다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또 '나'라고 하는 그놈은 도대체 실체가 무엇일까요? 또 있습니다. 찰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돌고 도는데 어느 순간을 '나'라고 할 것이며, 가령 한순간을 집어서 그때의 '나'를 나의 실체라 한다면 그 찰나 전이나 찰나 후의 모습은 또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누차에 걸쳐 말하지만 우리가 '나'라고 딱 못박아 생각하는 그 '나'는 결코 진정한 '나'가 아닙니다. 그런 '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의식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을 상정해 놓고 '네가 형성시켰고 끌고가고 있으니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일러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치 실체가 있는양 착각하는 그 '나'를 죽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없는 '나'이니 죽일 것도 없지만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 생각부터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가 쑥 빠진 주인공에 맡기는 작업을 함으로써 참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본래 없고 주인공이 있다, 밖으로 찾는게 아니라 일단 안으로 되돌려라, 그렇게 해서 그 딱딱한 통속의 '나'가 죽는 도리를 일러주고자 '주인공'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공은 개별적인 주인공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인공을 또 어떤 실체로 관념화할까 싶어 공(公)이 아닌 공(空)이라 했습니다.

안으로 관하는 길에서는 주인공만 남고 나, 상대는 자연히 사라집니다. 참 나가 드러날 때 주인공도 방편이요 이름인줄 알 것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통도사 황화각

大護法不見僧過
(대호법불견승과)
善知識能調物情
(선지식능조물정)
百戰英雄知佛法
(백전영웅지불법)
再來菩薩說家常
(재래보살설가상)
永使蒼生離苦海
(영사창생이고해)
恒敎赤子有慈航
(항교적자유자항)

큰 호법은 절집의 흉 허물을 보지 않고
선지식은 능히 세상물정을 살필 줄 아네
백전영웅은 부처님 법을 알고
거듭 화현한 보살은 일상의 도리를 설해주네
길이 중생들로 하여금 고해를 여의게 하고

해설 통도사 황화각은 큰 강당이다. 전통 강원으로 쓰이는 이 황화각은 1백여간 규모의 건물로 고려 충숙왕 4년(1317)에 초창 되었다가 여러번 중창을 거쳤다. 현재의 건물은 1899년 성해(聖海)스님이 중수한 것이다. 현재 이 건물은 통도사승가대학으로 사용되고 있다.

건물의 용도가 학승들이 공부하는 곳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 주련의 내용도 이해가 빠르다. 학승들의 면학을 독려하는 분위기가 시종 흐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학승의 면학 독려하는 경구

항상 친자식처럼 보살펴 잘 인도해 주시네

학승은 글자 그대로 공부하는 스님을 뜻하는데 여기서의 공부는 경전을 통한 공부를 뜻하는 것이다. 때문에 교학을 탐구하는 입장에서 절집의 흉 허물도 세상물정도 분명한 지혜로 살필 줄 아는 경지가 요구되는 것이다. 거듭 화현한 보살은 누구인가. 공부하는데 지혜와 원력을 보태주는 보살이 거듭거듭 학승들의 마음을 독려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므로 문수라든가 보현이라든가 하는 보살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다만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진정한 선지식이 되는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강사)이나 또 그 길에 들어서는 사람(학인)도 화현한 보살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안동 경안중 교사〉

海東佛敎大學
— 통신 수강생 모집 —

◉ 법사(法師)과정
고졸 학력이상의 불자로서 신심이 돈독하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로서 20세 이상의 남녀.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여하에 따라 단기간내에 과정을 수려하여 법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삼장법사(三藏法師)과정
대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불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자로서 포교원 또는 암자를 설립 운영하실 분으로 불교지도자로서 자질에 손색이 없는 25세 이상의 남녀 불자.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실력과 노력에 따라 단기간내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불교의식 과정
조석예불, 불공시식, 49재, 다비식에 이르기까지 완전 기초부터 통신으로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남녀 승속불문하고 누구나 통신 수강할 수 있음.

※본 대학에서는 87년부터 94년가지 우리나라의 권위있는 불교 관계 교수님과 석학승려들의 강의 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통신강의 수업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교육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통신 과정 수업은 시간·장소에 구애를 받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지금은 타계하셨거나 은퇴하신 원로 교수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법사나 삼장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서신 주시면 자세한 안내서·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시 입학 가능※

문의처 : 110-3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10 경한빌딩 2층
해동불교대학 교무처 ☎741-0495~6 FAX 763-4603

海東佛敎大學
학 장 장 이 두
대학원장 김 지 견

교직자 양성전문교육

제15기 佛敎儀式(범음,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 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 업 반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 작법(나비춤) 등
■ 모집인원 : ○○명
■ 교육기간 : 3개월(각과정)
■ 구비서류 : 본 대학 소정원서 사진 1매
■ 원서접수 : 1995년 6월25일~7월24일까지
■ 개강일시 : 1995년 7월24일 오후5시 정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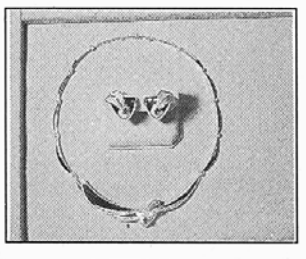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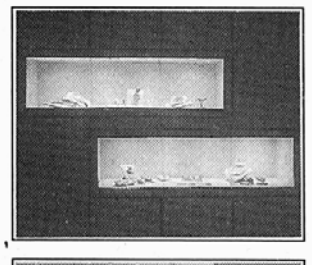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10번지
탑골공원뒤 허리우드극장에서 종묘방향
구산빌딩 앞 경한빌딩 2층
☎741-0495~6 FAX 763-4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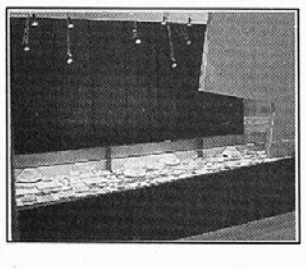
海東佛敎大學
儀式敎育院
學長 張二斗
院長 鄭大隱

'이제 당신의 우아함이 깊이를 더해갑니다'

귀금속 青雨







섬세하고 정교한 제품,
서정적인 주제와 독특한 감성표현,
각 개인의 개성을 소중히 하는
디자인……
青雨 귀금속은 유행을 넘어선
남다른 아름다움의 깊이를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녹음이 짙어져가는 계절
클래식한 우아함과 세련된
현대 감각이 함께하는 곳
青雨에서 당신만의 개성을
만나십시오.

'青雨' 劉慈也 씨 전시경력

1971~1972 국전 서양화 부문 입선 20,21회
1976 파리 니델재산 공모전 입상
1977 파리 Cite International des arts 주최 전람회 출품
1978 불란서 전국 사진 공모전 출품
1979 파리 프리마그 로지에 공모전 입상
1980 파리 화랑 전람회 출품
1977 불란서 예술원 공인 미술작가
1980.6 제1회 개인전(신세계 백화점 화랑)
1982 한국 공예가회 출품
1983 한국 공예가회 출품
1984 한국 공예가회 출품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65-1, 2 한양타운 107호 / 우편번호 135-120 / TEL 3442-4434~5

"법맥 복원 종단도약의 계기죠"

수요인터뷰

한중 천태종 조사기념당 봉안 주역

전 운 덕 총무원장

대담 : 최정희 국장



—6월17일 국청사에서 조사당 낙성식을 봉행할때 천태종 스님들과 종도들은 한결같이 감격과 환희에 찬 모습였습니다. 불사를 직접 추진하면서 중국을 8번이나 오고간 스님의 감회는 남다르셨을 텐데요.

▲낙성법요식을 성공적으로 마치게돼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국 천태종이 이제 큰 걸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했다는 자긍심을 갖게되는군요.

이 불사를 원만히 회향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중국불교협회 조박초회장과 국청사 방장 가명스님 등 중국 불교계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법맥복원'이란 말에 일부에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태사상을 새롭게 조명하고 시대에 맞게 다시 꽃피우기 위해 비록 타국이지만 본 고향에 조사당을 세운일은 뜻깊은 불사라고 박수를 보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의미가 더 커졌습니다. 모두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세분 조사의 비문과 벽면의 법통도표를 올가을 마무리 하려면 천태산에 또 가셔야 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사가 끝나더라도 한중 천태종 사적답사 및 한국 천태승들의 업적정리등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는 조사당 건립과 맥을 같이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이 지자대사 열반 1400주기여서 특히 한중 불교의 역사를 되새김하면서 새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대작 불사를 시작하게된 배경과 경위가 궁금합니다.

▲1992년 4월 본종의 간부들과 동국대 김영태교수를 비롯 17명으로 구성한 '천태종사적조사단'이 중국 국청사와 항주·영파일대에 산재한 한국 천태종스님들의 사적을 두루 답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일행은 북경에 가서 조박초회장등 중국불교협 간부들을 만났는데, '형제애의 산증거'라며 양국의 적극적 교류를 제의해 왔습니다. 당시는 양국이 수교전이었습니다. 이자리에서 국청사에 천태종 '전법기념비'를 세우자고 했습니다. 이 안은 상월조사의 유촉이었습니다. 귀국후 곧 '승인' 회답을 받아 불사는 급진전 됐습니다.

약력

- 63년 동국대 경제학과 졸
- 충북 태권도협회장
- 불교종단협 부회장
- BBS 이사(현)
- 천태종 5~10대 총무원장(현)

법화 가르침 펴면서 불교의 생활화에 역점

한중 불교교류의 새 장

—전법기념비가 조사기념당으로 바뀐데도 사연이 있을것 같은데요.

▲국청사 경내 관음전 옆에 일본측 천태종 비각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고 경외에 자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오고간 끝에 경내에 부지가 확정됐는데 터를 닦는 과정에서 현재의 관음전 윗자리에 앉게되면서 조사당을 건립하고 천태지자, 대각국사 상월조사상을 봉안하게 돼, 불사의 일본서도 국청사 행사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들리더군요.

▲3국 천태종이 유대를 갖고 미래지향적 불사를 추진하여 천태사상으로 21세기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천태사상은 법화경을 중심으로 천태지자대사에 의해 그 사상이 조직 정리되어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쉽게 풀어주시죠.

▲다 아시겠지만 법화·천태는 화엄교학과 더불어 중국과 한국불교의 교학을 대표하는 교학사상인 동시에 선과 함께 실천수행문의 쌍벽을 이루는 선관사상이기도 합니다. 실상을 중히 여기는 사상으로 회삼귀일(會三歸一) 즉 성문·연각·보살 등 3승은 방편일뿐,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이 담긴 일불승(一佛乘)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천태의 교관이 대각국사에 의해 이땅에 전래돼 개창되었지만 실은 법화경 신수봉행은 이미 삼국시대에 행해졌죠. 특히 고려초에는 침체에 빠진 중국 천태종을 회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상월조사께서는 어떻게 천태종을 중창 하셨나요.

▲13세때 사서삼경을 다 배운후 15세때 삼척 삼태산(三台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백일기도를 마친후 3년간 축지법 차력 등을 배웠으나 더른 진리를 찾아 불문에 귀의했습니다. 선지식을 찾아 다니다 1942년 중국으로 건너가 곤륜산, 오대산, 보타낙가산 등을 순례하고 45년 귀국하여 명승지를 찾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의 소백산 구인사 터입니다. 1951년 12월 공삼매(空三昧)를 체득, 회삼귀일을 민족통일 이념으로 삼고 법화의 가르침을 생활불교 지표로 삼아 새불교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교세가 확장되자 1966년 종의회를 구성하고 67년 종단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424 세종6년 선교양종 통합으로 종명을 잃어 버린지 540여년만에 그 이름을 되찾은 셈이죠.

—새불교운동이라면….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하여서 선행(禪行)을 실수하는데 주경야독하는 이채로운 행업을 홍보했습니다. 노동을 통한 실참을 중시하면서 교학공부도 게을리하지 않는 정진이죠.

—원효의 화쟁(和諍)사상이 성립된 요체도 바로 법화사상이라면서요. 그렇다면 법화·천태사상은 이나라 국가통일이념으로서 깊게 뿌리를 내려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천태종에서도 그런점에 역점을 두고 불교의 생활화와 더불어 남북통일운동을 점진적으로 전개할 방침입니다.

—그럼 우선 천태사상을 널리 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천태종과 그 역사 및 사상을 알리는 몇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만 이제 구인사에 있는 역경원과 종전(宗典) 편찬연구원(원장 김영태교수)에서 천태사상을 구현할 수 있는 각종 간행물을 펴낼 것입니다.

—교계에는 범종단적으로 해야할 불사가 산적해 있습니다. 영상포교매체인 불교텔레비젼이 2차 주식공모에서 매우 성과가 부진해 '발등의 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것 같습니다. 또 교육불사, 의료사업, 모두 불교계의 과제인데요.

▲숙지하고 있는 일인데요, 종단내 불사가 어느정도 진척되면 동참 내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하지 않겠습니까.

교계 불사에도 관심을

—이번 국청사의 조사기념당 낙성식에서 보니 천태종 비구·비구니스님들과 신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더군요. 놀랐습니다. 4백여 스님과 1백50만 신도가 바로 저렇게 움직이니까 큰 불사를 척척하나보다 싶었는데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상월조사와 남대충종사의 힘이 근간이 됩니다.

—1966년 총무국장으로 시작하여 5대부터 현재 제10대 총무원장직을 역임하고 계신데 혹시 종정을 꿈꾸어 보신일은 없으신지요.

▲전혀 없습니다. 불법을 바로 알면 그런 꿈을 꿀 수 없습니다.

—국청사에 조사당을 건립한 것은 대한불교 천태종 30년의 축적된 힘이며, 새 불사를 위한 기반구축이라고 봅니다. 더 큰 불사로 한국불교의 내일을 밝혀주시길 기대합니다.

나의 수행일기



사재동 <충남대 국문과 교수>

젊은 시절 말로만 듣던 불교는 '관세음보살·나무아미타불'이었다. 어릴 때 멋모르고 외할머니나 어머니의 치마자락을 붙들고 가까운 절에 다니면서 그저 호기심으로 뛰놀았고, 학창시절에 소풍·여행을 떠나 대소 사찰을 구경하면서 매력을 느끼는 정도였다.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신앙과 정서의 바탕은 '불교'였던게 분명하다.

한창 생각이 많고 발랄한 나이에 군대에 들어가 고생을 하게 되었다. 막내아들로 어머니 사랑을 입고 모범학생으로 교수님의 귀여움을 받다가 살벌한 훈련소를 거쳐 낯익은 전우들과도 헤어져 최전방 강원도 산골짝이에 뚝 떨어졌을 때에, 절망감 같은 것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벌써 '어머니!'를 속으로 되뇌이고 있었고, 막연한 상념인 채로 어느새 간절한 기도 같은 것이 우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이라고 소리내지는 못하였다.

날이 갈수록 생활의 고통은 정말 혼자 감당키 어려울 지경에 이르고, 당장에라도 도망쳐 고향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렇지만 그럴 수도 없었고, 그래서는 안된다는 강박관념에 무섭게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극한상황 속에서 드디어 돌파구를 찾은 것이었다. '모든 것은 생각할 나름이다. 생각을 말아야지!' 모든 것을 잊어 버리고 출가자의 심정으로 참고 견디자는 뜻이었다.



그로부터 엄정한 군영생활이나 고된 야영훈련에서 군모의 왼쪽 모서리에 '생각을 말아야지!'라고 써 붙이고 다녔다. 그것은 학보병들의 공감대가 되어 그들의 모자 한 모서리에는 거의 다 그런 말이 쓰여 있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은 강행군 끝에 높다란 험산에 진지를 구축하고 실전에 임하듯 경계근무를 하면서, 태연한 듯 경건한 마음이 되어 앞에 보이는 우람한 바위에 대고 몰래 절을 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어떤 대상을 향한 하소연이기보다는 차라리 절대자에 대한 기도였다.

꿈과 같이 제대 복학하였을 때 '불교문학'을 수강하는데, 그 교수님이 원효대사와 관련된 '一切唯心造'를 간곡하게 설과하여 가슴이 후끈하는 감명을 받았다.

일찍이 군대생활에서 체험한 '모든 것은 생각할 나름이다'와 즉시 일체감을 이룬다고 절감하였다. 그것은 이치를 따진다거나 불법에 합치한다는 문제를 떠나 완전히 가슴으로 느끼는 그 자체였다.

어머니가 과로로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늦게야 병원에서 불치의 병이라고 선고를 받았을 때 '미련한 자식'을 되뇌이면서 어안이 벙벙하였다. 고향집으로 모시고 말로만 위로하면서 얼떨결에 '어머니, 관세음보살을 염하셔요'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어머니는 고통 속에서도 알아들은 듯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떡이시는 게 아닌가. 그 순간 울음이 복바쳐 도망치듯이 뒷방으로 올라와 소리없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너무도 무력한 자식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어쩌지 못하여 '관세음보살님, 어머니를 구해주소서'라고 비로소 말문을 열었다.

어느 토요일 새벽에 어머니께서 흰옷을 입고 오셔서 우물우물 하시며 어디론지 가신다기에 '어머니'를 부르며 뒤따르다가 잠을 깼다. 온 몸에 땀이 흐르고 힘이 쭉 빠져 일어나기 조차 어려웠다. 이상하다는 생각과 함께 자식의 예감 같은 것이 있어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하였더니 '어머니가 위독하니 속래하라'는 전보가 왔다. '어머니가 새벽 그 시각에 돌아가셨다'는 직감이 들었고, 알고보니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막내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더니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이시려고 꿈속에 나타나신 어머니는 '관세음보살'로 승화하셨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어머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어머니'. 이로부터 나의 신앙은 안으로 못박혔던 것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관세음보살이다. 어머니처럼 부르는 그 이름이다. 크고 작은 일을 당했을 때, 괴롭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몸이 아파 기침을 하거나 주사를 맞을 때까지도 '관세음보살'을 염한다. 그러면 정말 모든 일이 다 마음 먹은 대로 무난하게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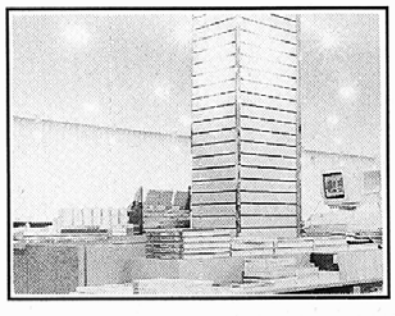
어머니가 도우면 안되는 것이 없었을 때와 같이 지금은 관세음보살이 도우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 믿음이 행동화되었다. 그렇다면 내 몸·마음과 하나가 된 관세음보살이신가. 그 확답은 누가 할 것인가.

생활 철학은 '모든게 생각 나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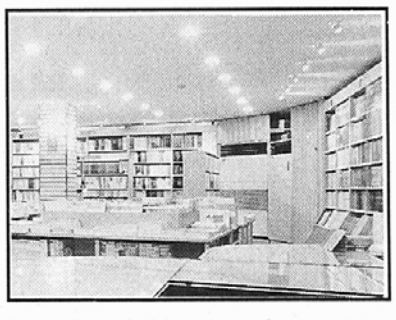
고통당할 때 '관세음 보살' 부르며 어머니 그려

불을가득 · 법향가득

책 방 여 시 아 문 으로 오십시오



- 저자와의 만남(격월)
- 계절별(분기별) 책잔치 개최
- 통신판매—전화, 팩스 주문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편리한 도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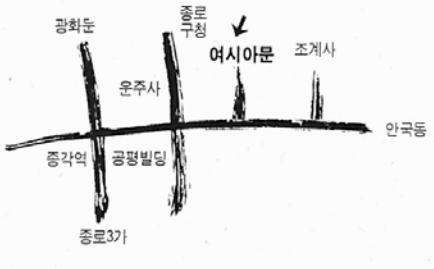
-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5천 여종, 3만 여권)
- 불교관련서적(역사, 철학, 사회과학 등 망라)
-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 열람 가능
- 편리한 도서안내
- 편안한 독서 공간
- 도서상품권 취급



- 도서회원제 운영 (1995.4.1.부터 시행)

회원특전
- 현대불교신문사, 도서출판 여시아문 발행도서에 대한 회원 우대 사은권 제공
- 소식지를 통한 도서 정보 제공
- 통신 주문
- 전화 도서 목록 검색 서비스 (737-0695)
- 책방 여시아문 · 현대불교신문사 주최 행사 우선 초대

오시는 길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대표) 737-8881 (서점직통)737-0695 / 팩스 737-0696 / 교통편 전철 :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 32, 59,84,159,331,588-2번

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18〉

雲法師 務學十門(운법사 무학십문) ④

比 眞敎凌遲 慧風掩扇 俗懷傾慢
비 진교릉지 혜풍엄선 속회모만
造出非法 竝由師無率誘之心 資缺奉行
도출비법 병유사무솔유지심 자결봉행
之志
지지
二彼相捨 安流鄙境 欲令道光 焉可得手
이피상사 망류비병 욕령도광 언가득수

요사이는 불교가 점점 쇠퇴하고 지혜의 바람이 일지 않고(부채질을 감추며) 속인들은 법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고 도의 길은 비법으로 나아가니 아울러 스승에겐 이끌어주는 마음이 없고 제자에겐 받들어 모실 뜻이 없으니 이로 말미암은 때문이다.

이 둘이 서로 버려서 망녕되이 비루한 지경이니 도를 빛내고자해도 어찌 얻어지겠는가.

④不習誦 無以記
불습송 무이기
記諸善言 强而誦之
기제선언 풍이송지

迦葉可難 具足住持八萬法藏
은 하루에 능히 기억했다.

그 스승이 찬탄해 이르기를 하루의 배움이 삼십명을 당적한다고 하였다.

然 人之至愚 豈不日記一言
연 인지지우 기불일기일언
以日繫月 以月繫年 積工必廣 累課
이일계월 이월계년 적공필광 루과
其道 自微而生 何患無所立矣
기도 자미이생 하환무소입의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미련해도 어찌 하루 한마디를 기억 못하랴.

날로써 달을 잡아매고 달로써 해(年)을 잡아매면 공부를 쌓음이 반드시 넓고 과업이 누적되어

그 도는 미세한 데서 나오리니 어찌 이룰 바 없을까 염려하랴.

⑤不工書 無以傳
불공서 무이전
書者 如也 敍事 如人之意
서자 여야 서사 여인지의

防現生之妄失 須繕寫而編錄
방현생지망실 수선사이편록

경전 말씀 읽고 외우는데 게을리 말아야

날마다 공부 쌓으면 반드시 넓고 깊어져

가섭아난 구족주지팔만법장
西域東夏 高德出家 幼年始習 皆學誦持
서역동하 고덕출가 유년시습 개학송지
竺佛圖澄 能誦佛經數百萬言
축불도징 능송불경수백만언
佛陀跋陀 此云覺賢 同學數人 習誦爲業
불타발타 차운각현 동학수인 습송위업
餘人 一月工誦 覺賢 一日能記
여인 일월공송 각현 일일능기
其師歎曰 一日之學 敵三十夫
기사탄왈 일일지학 적삼십부

④외워 익히지 않으면 기억함이 없다.

모든 좋은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고 읽어라

가섭과 아난은 부처님의 일대 교설을 다 받아 지녔다.

서역(인도) 동하(중국)의 고승대덕은 출가하여 어려서부터 익히기 시작해 다 배우고 외워지녔다.

인도 불도징선사는 능히 불경의 수백만 말씀을 외웠고

불타발타는 각현이라고도 하는데 함께 여럿이 배우면서 익히고 외우기를 일삼으니

다른 사람이 한달에 외울 것을 각현

欲後代人流轉 宜躬書以成集
욕후대인유전 의궁서이성집
則使敎風 不墜 道久彌芳
즉사교풍 불추 도구미방
故 釋氏經律 結集具多
고 석씨경률 결집괘다
孔子詩書 刪定竹簡 若不工書 事難成就
공자시서 산정죽간 약불공서 사난성취

⑤힘써 쓰지 아니하면 전할 수 없다.

쓴다는 것은 같이하는 것이니 사실을 서술함에 사람의 뜻과 같이 하는 것이다.

현생에 망실됨을 막으려면 모름지기 잘 손질하여 베껴서 묶어 낼 것이오

후대에 유통시키고자 하면 마땅히 몸소 써서 책을 낼 것이니

그렇게 한 즉 교풍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도는 오래도록 꽃피게 될 것이다.

고로 부처님의 경률은 패다라 나뭇잎에 적어 집성했고(종이가 없던 시절이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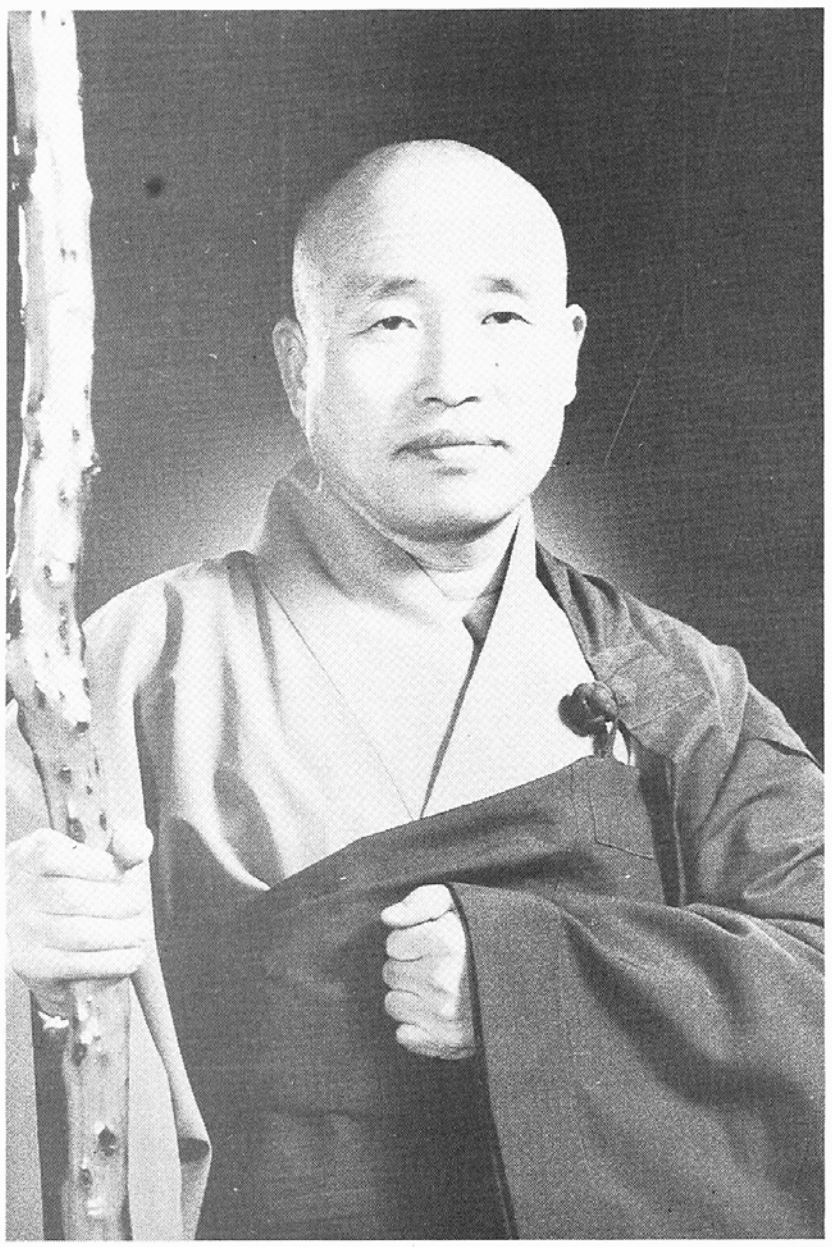
공자의 시·서는 대나무 쪽에 깍아 새기니 만약 글을 쓰지 않는다면 일을 이루기가 어렵다.

龍眼

★ 지 상 법 석

"업에 끄달리지 않으려면

혜정스님 〈청계사 조실〉



약력
- 1933. 7. 28 정읍生
- 경남대 종교학과 졸
- 53년 금오 스님 은사로 득도
- 법주사 주지역임
-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조계종 총무원장 역임

중생들이 근본자리 못 찾는 것은 삿된 욕망으로 바른 수행 못하기 때문

이 세상에 수십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같은 불자가 되어 성불의 길을 가겠다는 같은 목적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은 다겁으로 지은 인연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겁의 인연으로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불자들은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실천에 옮겨 보려고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겁으로 지은 업장(무명)이 마음의 본심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명을 제거하고 마음의 본심을 깨달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더 졸음이 오고 온갖 망상이 끊임없이 일어나 수행의 장애가 됩니다.

저는 확철대오한 부처님이나 옛조사들과 같은 깨달음을 증득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몇년전 봉암사에 입산, 주야로 정진을 한적이 있습니다.

행주좌와 모든 생활속에서 항상 화두에 대한 의심을 놓지 않고 정진에 정진을 거듭했습니다.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기에 빨리가서 조사와 같은 스님이 되어 보겠다는 발심을 한 것이지요.

깨달음을 향한 정진이 있어서는 교학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원력과 확고부동한 신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몇년간의 수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선을 행하는데 있어서 우주에 꽉 차는 의심도 가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수행이 얼마나 잘되고 안되고의 문제는 신심이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행정진하는데 있어 돈독한 신심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번뇌망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장애의 구렁텅이로 빠질 뿐입니다.

이처럼 정진하는데 있어서 신심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심이 뒷받침 안되는 수행정진은 깨달음을 향한 진정한 수행이라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신심을 바탕으로 화두에 대한 의심을 지속적으로 해 갈때 그 의심덩어리는 깨어지고 깨달음을 증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 조사스님들의 수행 발자취를 보면 구봉스님의 경우 앉거나 서거나 참선에 몰두했지만 불같이 끓어오르는 번뇌망상과 졸음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봉스님은 돌을 등에 짊어지고 용맹정진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같은 옛 조사스님이나 선지식들께서 용맹정진하시던 확고한 정신과 수행의 방법을 따르면 깨달음의 길은 결코 멀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중생들은 마음의 근본자리인 불성을 찾지 못하고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것은 삿된 욕망에 끄달려 올바른 수행의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나 조사들과 같은 용맹정진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행을 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고 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도의 정보화 시대로 치닫고 있는 요즈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자신도 모르게 물질문명에 끄달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라 수행에 장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집착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불자들은 이러한 현실에 만족하거나 안주해서도 안됩니다. 고도의 물질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더 자신의 본래 마음자리를 찾아야 하고 초월해야 합니다. 즉 물질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뛰어 넘어 정진을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다보고, 들을 것 다들고 온갖 생각 다하고 한가롭게 앉아 언제 조사스님들과 같은 정진을 하며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정진하는데는 대원력과 대신심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지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법화경 강좌
강사 최공덕 스님
문의전화
부산:645-6224
대구:952-8711

화분·바구니·신부화 꽃다발·장화·코사지·농장관·서양란
연 꽃 방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 738-3933
(자택)934-1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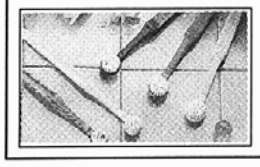
직인 무료 공고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산 98-9
• 사찰명: 보각사
상기 사찰의 주지 직인을 95년 6월 22일 개인하였기에 이후로는 이전 직인은 무효임을 공고함
보각사 주지 안광응(성만) 합장

스님 및 지도교사를 위한
찬불가 피아노 반주 3개월 완성
교과특성
개인지도 원칙, 레슨기간 자유선택,
찬불가를 통한 음악이론 및 실기지도,
시창청음 별도수업실시
•등록:수시접수(725-7527~9)
•장소:불교교육연구원(조계사 옆)
불교교육연구원

합작
운동화 제조하는
분과 합작을 원합니다
불교도라면 더욱 환영합니다
봉제공 모집
나이 35~40세 女
카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을 모집합니다.
하는일
잠바, 배낭, 텐트 수리
자구교환, 침식제공
Rocky Mountain Footwear Ltd.,
P.O.Box 2607, Banff, AB. TOL OCO Canada
Phone:(403)762-2032 / FAX:(403)760-3111

아봐타코스 수련생 모집
자연스럽게 깨달음을 얻는 곳
7월 15일 ~ 7월 23일 9일간
신청접수:선착순 10명에 한함
깨달음·견성·해탈·영적완성
등 당신의 의문을 아봐타코스는
명확히 경험하게 합니다.
慧元 아봐타코스 전화 579-9379 팩스 572-5514

정통 중국어 속성강좌
냉·난방, 최고급 시설과 어학실습실 완비
중국 사범대학 교수 초청강의 책임지도
기초반, 회화반, 유학반, 비지니스반
■ 스님 유학반 모집(이미 출국유학중)
■ 학위및 자격취득 책임보장
■ JW 202 유학허가및 입학통지서 보장
■ HSK 시험대비 중점 강의
中國語 : 漢文 : 書法
평일 6:30~22:00(9월 학기 유학생 모집)
특별반 토→14:00~18:00 일→10:00~18:00
정기 학원생 취업보장(수시접수)
상담 : 代 (02) 246-8256, 246-8257
韓中語學院
원장 : 중국 학빈 사범대학교 경제학 교수
중국 학위 심사위원(한국인 최초)
관허 1670호 기업진흥상담

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칫솔
좌우로만 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온라인: 농협역삼동지점 096-01-239051(서클상사)
■전화 (02)556-3076~7 ■팩스 (02)556-3078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법상·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용상 복원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성남(법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충주(상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다산(진관사): 대웅전 수미단 용각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시봉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 쉽게 풀이된 해설「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 학교수업식「강의 녹음」학습
대학 졸업과정 | ⊙ 천저한 1:1「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中·高·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영·수)「비디오가정교사」(특별제공 (1년직도용)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일(남, 27세) 드림-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항만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

지 상 법 석

모든 것을 놓고 다 비워야”

“물질·명예의 노예가 되어 무명서 헤매지말고 중생을 교화하겠다는 원세워 공부하십시오”

큰 원력과 확고 부동한 신심이 정진을 좌우

‘나 아니면 안된다’ 사견 들면 남까지도 오염

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신심이 없는 정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화두를 하면 반드시 성불 하겠다’는 확고하게 믿는 마음이 선행돼야 합니다. 공안을 참구하는데 있어서도 망상이 생긴다든지 과연 이것이 부처가 되는 자리인가 하고 믿는 마음이 헤이해져 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하기에 앞서 견고한 신심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심이 견고해야 수행의 과정 속에서 한치의 흔들림이 없는 참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심을 바탕으로 참선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회장에서 항상 사홍서원을 하는 것처럼 수행자는 반드시 커다란 원을 세워야 합니다. 사홍서원 가운데 ‘중생을 다구제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큰 발원입니다. 곧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입니다. 이러한 논리적 구조 속에서 중생이 없으면 부처님도 없다는 뜻이지요.

이 세상에는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나만 잘되고 나만 깨달으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소승적인 마음이 아닐까요. 부처님을 믿고 신행하는 불자라면 깨달음을 얻어 사바세계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대승적인 발원을 세워야 합니다.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서원을 세우고 내가 어떻게 하면 대승보살도를 깨달을 것인지 항상 참구해야 합니다. 또한 중생의 근기에 맞는 교화 방법을 계발하겠다는 발원도 해야 합니다.

정진할 때는 쓸모없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너무나 쓸모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로써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 아니면 안된다는 사견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런 사견에 물들어 천상천하유아독존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오염될대로 오염되면 산천도 오염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고 했습니다.

정진하는데 있어서도 마음이 청정해야 되고 그런 정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참된 정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 다하고 누릴것 다 누리면 할일은 언제 하며 언제 공부합니까. 우리가 할일은 오직 깨달음을 위한 참선 공부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야만 참으로 큰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밖에 다른 모든 것은 일이 아닙니다. 단지 이 몸뚱이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물체로서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 몸뚱이를 지탱하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시간을 의미없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몇백년 몇천년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불교를 신행하는 불자들은 업으로 태어나거나 업에 끄달려서는 절대 안됩니다. 업을 자유자재 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원생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됩니다. 업으로 죄 지은 사람이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업으로 끄달린 사람이 어디에 태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불법이 있는 좋은 국토에 태어나고 좋은 인연, 좋은 스승, 좋은 도반, 좋은 부모를 만나야 하는데 견고한 신심과 원력이 밑바탕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정진이 잘되는 것은 고사하고 안심입명도 되기 힘듭니다.

여러분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보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시간은 흐르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

명예의 노예가 되어 늘 주야로 끄달리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십시요.

특히 수행자라면 탓진치의 삼독심을 버리고 정진해서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교화해야 합니다.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교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법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깨달은 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을 알아야 법을 설할 수 있고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같이 수행해가는 도반의 입장에서 서로 격려하는 말을 몇마디 하는 것 뿐입니다.

> “물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지만 마음은 몇억년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몇천년 몇억년을 지나도 절대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물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해갑니다. 절대로 영원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얽매어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물질도 필요하겠지만 너무 얽매여서 꼭 해야할 목적과 방편이 정립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대자유인이 될 때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닫지 못한 경계에서는 생활이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고민하십니까.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돈만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돈 많은 사람이 더 괴롭고 고민이 많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서 고민하는 반면 있는 사람은 있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 했고 고해중생을 건지려고 사바세계에 출현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불자들은 부처님께 늘 무한한 감사와 고마움을 가져야 합니다. 조사들도 ‘가령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몸은 상이 되어 삼천대천세계에 두루하더라도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면 부처님의 은혜를 갚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설하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지 깨닫지 못하면 교화 할 수 없습니다.

정진할 때는 모든 것을 놓고 다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비워서 하나의 의심덩어리가 우주에 꽉차고 견고한 신심을 발휘해야 뜻한 마음자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불국토를 실현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훌륭한 마음, 나라를 위하는 마음, 중생을 위하는 마음을 항상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이러한 보살의 마음이 충만해 졌을때 이 세계는 불국정토가 되는 것입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31

양 형 진

승의제

세속제가 중생의 근기에 따라 방편으로 설해진 상대적인 언설인 반면에, 승의제(勝義諦) 혹은 제일의제(第一義諦)란 언설불가득공의 진리이며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는 무분별지라고 지난 번에 소개하였다. 세속이 우리들의 경험적인 언설이라면 승의는 경험적인 언설의 부정 즉 불가언설(不可言說)이다.

세존께서 무상정등각을 이룬 후에 스스로의 깨달음을 설하기를 주저하였던 것이나 무기(無記)에서 보인 침묵의 태도는, 더없는 최상승의 진리를 언어로서 나타낼 수 없음을 보이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속제에 의하지 않고는 제일의제를 증득할 수 없고 제일의제를 증득하지 않고서는 열반에 이를 수 없으므로(중론 觀四諦品 제24장 제8게), 부처님은 대자비의 마음으로 세속의 언설을 방편으로 삼아 승의의 진실을 보이신다. 모든 부처님은 이렇듯 제일의제와 세속제에 의거하여 중생을 위한 법을 설하시니(제9게) 이 이제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심오한 불법의 진실한 뜻을 알 수 없게 된다(제10게)고 하였다.

또한 중론(觀法品 제18장 제9게)에서는 “자기 스스로 알뿐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면, 적정하며 희론이 적멸하고, 차별이 없으며 무분별이다. 이를 이름하여 실상이라 한다”고 하였다. 즉 승의란 다른 사람의 언어나 문자의 가르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온갖 개념의 장난 즉 희론(戱論)에 의해 상대적인 분별지로 객관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희론이 적멸하여 적정하며 무차별하고 무분별하여 언어의 길이 끊어진 곳에서 주체적으로 자각될 뿐인 공의 세계 그것이 승의일 것이다.

능엄경에는 세존께서 아난에게 다음과 같이 이르는 장면이 나온다. “네가… 발심하여 무상보리를 구하기에 내가 지금 제일의제를 너에게 개시하였는데 어찌해 또 세간의 희론과 망상인 인연에 얽매이느냐? 네가 비록 다문하였다고 하지만, 마치 약을 말하는 사람이 앞에 놓인 훌륭한 약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으므로 여래가 너를 가련하다 하느니라.”이는 그것이 아무리 부처의 설법이라 하더라도 설법을 많이 듣는 것 만으로는 제일의제가 요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승의의 진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역시 “유마의 침묵”이다. 유마를 문병하는 자리에서 보살들은 최후로 지혜제일인 문수보살에게 불이(不二)의 법문에 관하여 물었다. 문수보살은 “일체 법에 있어서 말할 것도 설할 것도 나타낼 것도 인식할 것도 없어서 일체의 문답을 떠나는 것이 절대 평등의 경지에 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언어도단 심행소멸의 경지를 말하였다. 그러나 이것마저 벌써 달인 까닭에 그것이 궁극적인 것일 수는 없다. 뒤이어 문수보살이 유마에게 이를 되물었을 때, 유마는 오직 침묵하여 한 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뢰와 같은 침묵이었으며, 개념으로 설정된 일체의 희론을 단박에 뛰어 넘는 침묵이었다.

승의란 공의 세계를 스스로 체험하는 것

현대물리학 不可言說의 진리 일부 파악

어떻게 언어나 논리 혹은 이를 형상화한 기호를 떠나 언어의 길이 끊어진 곳에서 과학이 성립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과학 그 자체는 승의제 혹은 제일의제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시간이 지난다거나 과학이 더 발달한다고 하여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어쩔 수 없는 과학의 한계라 하겠다. 그러나 그러한 한계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대물리학이 언어적 개념으로는 사물의 실상이 온전히 드러낼 수 없음을 보여준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며, 세계의 실상을 한 단면이나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그동안 우리의 사고를 지배해 왔던 서구의 고전적 세계관이 어떠한 한계를 가지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현대 과학의 기초 위에 이루어진 자연에 대한 이러한 성숙한 이해는 새로운 세계관의 형성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 작업은 우리 세대가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 있어서 동양 내지는 불교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승도인쇄 스티커 전문
불심과 공익정신으로 정성을 다해 제작합니다
문의처 (02)273-1239
대표 이 강 화 합장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 출판 운주사
·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TEL (02) 720-9372~3
· FAX (02) 723-0646

구직광고
사찰운전기사·男
가족과 함께 사찰에서 생활하며 일하고 싶습니다
연락처 042) 252-5422

안내문
8·15 제50주년 추념 호국선열·전몰장병 위령대제
8·15 제50주년을 맞이하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오늘의 고유문화를 꽃피우다 희생하신 호국선열·전몰장병의 영혼을 추모키위하여 대한불교청림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호국선열·전몰장병 위령대제를 봉행코저 합니다.
■ 일시: 1995년 8월 13일 (일) 12:30~15:00
■ 장소: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구 육군본부) 현재 전쟁기념관
■ 주최: 대한불교청림회
■ 고문: 국회의원 임복진, 국회의원 김장곤
■ 집행위원장: 국가유공자 최안월
■ 집행부위원장: 청림회 회장 김경술
■ 집행부위원장: 청림회 심병수
■ 집행위원회간사장: 인광수
■ 추진위원장: 서의륜
■ 후원: 불교방송, 불교TV, 청림회 일동
■ 문의처: 683-3993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 보 기 업
전화 (02)279-2715
팩스 (02)275-3739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걸이, 주불, 열쇠고리 등
한남상사
Tel: 02)795-4083, Fax: 02)792-9659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생기와 영업의 활기를 가져오는 길화로 전해오는 바 생동감을 주는 산작품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실내외 벽화·병풍 및 액자화 작품
● 불사용작품(作品)은 주문에 의하여 봉사가로 특별 작품해드립니다.
사내 지방 외국 어디나 그림만 보는 표구작품을 해드립니다
우만(宇滿)화실
서울 용산구 청파1가동 173-1 전화 (02)3273-0081
온라인 국민은행 남영지점 822-24-0171-328(우만)

오직 일념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조각의 명문 동양석재
● 일찍이 홍익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 전통 불교문화 창달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작품 제작을 일념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사오니
● 대덕 스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 바랍니다.
조각가 이 규 동 합장
대 표 이 규 영
동양석재 주간: (0357)541-4705 야간: (0351)847-2001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유풍B/D (을지로 2가)
전화: (02)266-2629, 404-9521 팩스: (02)266-2679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T. 02-737-8881
F. 02-737-0697

부산지사
T. 051-634-5114
F. 051-634-5188

광주지사
T. 062-375-9986
F. 062-371-7544

대구지사
T. 053-427-8008

목포보급소
T. 0631-281-2534

공주보급소
T. 0416-856-3280

“2천만에 깨달음을

고은 불교 대하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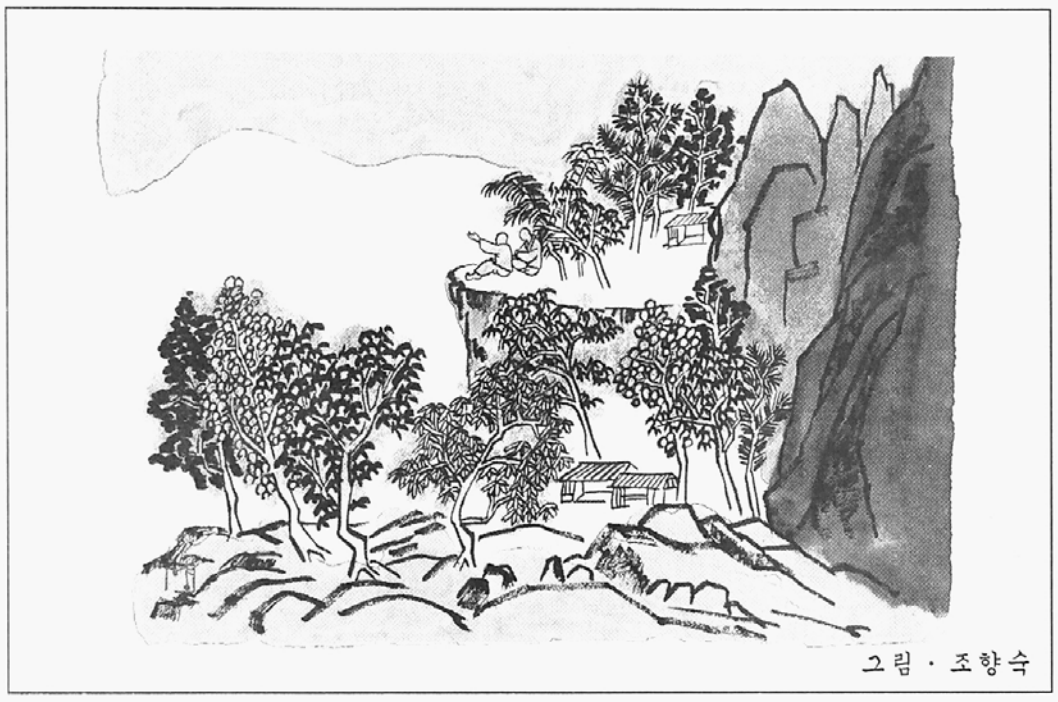


그림 · 조향숙

떠도는 시인 불이(不二)

사바세계의 시간으로 남각이 죽은 지 21일째가 되는 세번째의 명계(冥界) 심판에서 법관(法官)인 송제왕(宋帝王-문수보살의 화신)에게 가서 고양이와 뱀을 만나서 놀라고 있는 때였다.

사바세계의 무욕도에서는 그동안 남각의 행방불명으로 깊은 상심(傷心)도 없지 않았으나 겉으로는 여느 일정 그대로 보내고 있었다.

이 무렵 그곳에서는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났다. 불이가 시 한 수를 한밤중의 파도에 대고 큰 소리로 읊어대는 일이 그것이었다.

앞에는 푸른 물결 뒤에는 푸른 바위
갈대와 소나무가 섞여 우수수
사공(謝公)의 흥취는 나무신 두 짝일 뿐
장한(張翰)의 향수는 한 돛에 가득하면서
후산(侯山)에서 백학을 타야만 하니
분포(盆浦)의 푸른 소매 적시어 무엇하냐
십주(十州) 삼도(三島)를 두루 다 노닐어도
표연히 범골(凡骨)을 바꾸었으니 부끄러워라
(前壑音波後壑猿 蕭蕭蓋雪半松杉
謝公遺興惟雙履 張翰鄕心滿一帆
只要侯山觀鶴舞 不須盆浦泣靑衫
十洲三島遨遊遍 自愧飄然肯換凡)

이 시는 불이의 전생 가운데서 고려의 불우한 시인 임춘의 생을 사는 동안 그의 막역한 친구인 시인 이인로(李仁老)의 것이었다.

그렇다면 불이의 기억 밑바닥에 남겨진 전생을 통해서 그는 그 자신의 시가 아닌 친구의 시를 떠올려 그것을 즉흥으로 터뜨린 것인지 모른다. 그 자신의 전생에 친구와의 수작이나 친구의 시까지도 편입된 셈인가.

이 시의 '사공(謝公)'은 고대중국 남조(南朝)의 큰 시인 사영운(謝靈運)이다. 그는 불교에 깊이 귀의해서 당대의 염불선(念佛禪)의 정토발원으로 이름난 고승 혜원(慧遠)을 자주 찾기도 했으며 다른 산에도 오르는 것을 즐겼다. 그가 산에 오를 때에는 나무신의 뒷굽(後齒)을 떼고, 내려올 때는 앞굽을 떼는 것이었다.

장한은 낙양에 가서 벼슬을 살다가 고향의 산나물과 농어회 생각이 간절해서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온 사람이다.

후산이란 곳은 한 왕자가 신선이 되어 백학을 타고 승천한 산이다. 이와 함께 분포는 백거이(白居易)가 강주(江州-분포)의 지방관으로 머물던 중 '비파행'을 지었는데 그 시에 '좌중에 흐느낀 울음 누가 제일 많았나. 강주라서 푸른 소매 모두 젖었네'에서 연유하고 있다.

십주 삼도도 바다 가운데 신선이 사는 곳이다.

이 이인로의 시 '앙암사(仰巖寺)'는 현실에 대한 깊은 비관끝의 매우 초현실적인 신선사상이 주제가 되고 있다.

바로 이런 친구의 시를 고려 당시의 임춘은 무척이나 좋아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제 임춘의 후신인 불이의 시심(詩心)을 통해서 그 자신의 즉흥으로 재생된 것이다.

이것은 남각의 실종 또는 죽음을 연상하는 것이 틀림없다. 불이는 남각이 무욕도의 현세를 떠나 바다 저쪽의 신선이 된 것이라고 노래하는 것이었다.

불이는 인담으로부터 남각이 지옥으로 가고 싶다는 말을 서슴치 않고 내뱉는 사실을 들었으나 그는 지옥이 아니라 이승의 신선이 된 남각을 상상하고 있었다.

"파도소리는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

불이는 말문이 막혀 있었다.

"파도 하나 하나는 천년인들, 만년인들 똑같지 않은 것이어요. 그러므로 파도는 언제나 새로운 파도입니다. 그렇지요? 불이스님."

드디어 우녀의 본심이 나왔다.

"아까 불이스님은 큰 소리로 시를 읊으셨지요? 그렇게 큰 소리로 읊어서 파도소리를 이기려 하셨지요. 그래서… 파도소리를 이기셨습니까?"

이제까지 우녀로부터 뜻밖의 이성(異性)을 느끼고 있었던 불이는 몇마디 말을 듣는 동안 전혀 다른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성은 커녕 여전히 서릿발이 어리는 위엄의 여자가 바로 우녀였던 것이다.

그녀가 허파에 병이 든 환자가 토하는 검은 핏덩어리같은 말을 내던졌다.

"남각스님의 일을 알고 싶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왜 알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저도 알고 싶은 일인데요."

남자나 여자가 생전의 성행위가 사음(邪淫)이나 과음이 아닐 경우는 고양이와 뱀이 가만히 있게 된다. 그렇다면 남각은 생전의 강간 때문에 세번째의 심판에서 고통받는 중생계로 들어갈 죄가 분명하게 되었다. 바로 이같은 사실을 우녀가 그의 투시력으로 알아내어 불이에게 알려주었다.

"남각스님 같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다니요"라고 불이가 고개를 저었다.

우녀가 그런 불이에게 한마디 던졌다.



〈 34 〉

"불이스님도 남각스님이 간 곳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불이스님은 아직 그곳으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만 들어갑시다. 새벽 기운에는 몸이 상하기 십상입니다. 뿐만아니라 시인 불이스님과 내가 애련(愛憐)을 속삭인다고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반드시 누군가가 보는 것이 이 세상이니까요."

그러나 우녀는 여느 때의 그녀가 아니게 불이의 몸이 그녀의 몸에 몇번인가 닿아도 가만히 있었다. 아니 그러기를 바라는지도 몰랐다.

"파도 하나하나는 천년인들 만년인들 똑같지 않은 것이어요 그러므로 파도는 언제나 새로운 파도입니다"

이제 어둠은 어김없이 물러났다. 빛장이가 빛을 받고 떠나듯이.

그때였다. 불이가 파도 위에 타고 밀려오는 것을 손가락질 하였다.

"저것은 고기가 아닙니다."

연 그 물건은 광어나 가오리 따위가 아니었다. 인담이 좀더 가까이 갔다. 그것은 옷조각이었다.

"장대를 가져오시오"라고 인담이 말하자 수월이 긴 장대를 재빨리 가져왔다. 그 장대로 파도 끄트머리에서 밀려왔다가 밀려가기를 되풀이하고 있는 옷조각을 어렵사리 건져올릴 수 있었다. 인담이 한숨을 섞어 말하였다.

"남각화상의 것이 틀림없소."

"아니… 정녕 그렇다면…."

"그도 관화스님을 그렇게 뒤따라서…."

그때 우녀는 북관의 개마고대(蓋馬高臺)의 산촌 언저리에서 어떤 떠돌이 사냥꾼이 길을 가다가 그 길 위의 언덕에서 굴러내린 감투만한 돌에 맞아 쓰러졌다.

그는 갑작스런 비명(非命)으로 죽어야 하였다.

"아 이 사람, 사흘전 호랑이를 잡은 사냥꾼 아닌가?"

"그 호랑이를 값도 받지 않고 윗말 사람들에게 주어버린 사람이로군… 이런 도량큰 사람이 이렇게 죽어야 하다니…."

이런 소리를 하며 모여든 산촌 화전민 남정네들이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은 떠돌이 사냥꾼의 혼백은 그 자신의 시체와 그 시체를 둘러싼 화전민들로부터 점점 멀리 멀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마치 연실이 끊어진 연이 공중의 바람속에서 떠날려가는 것처럼.

그러다가 그 혼백의 사정이 바뀌더니 아주 천천히 그 자신의 시체로 가까이 갔다. 그 뒤 혼백은 시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제서야 떠돌이 사냥꾼은 죽었다가 깨어나서 심한 통증 때문에 소리를 질렀다.

"어! 깨어났어!"

"살았어!"

이런 화전민들의 놀라운 소리도 사냥꾼의 소리와 어우러졌다.

바로 이런 광경을 우녀의 신통력(神通力)은 어떤 전생의 일로 그려내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남각의 전생이었다.

"과연 장부의 생사로군."

바로 이런 남각이 저승으로의 여행에서 몇군데의 과정을 거치는 중이었다. 그것도 그녀의 특별한 직관으로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

"과연 장부다운 길이로군! 지옥에의 길!"

불이는 캄캄한 밤에 혼자 방을 빠져나와 어둠 속에서
파도의 저 먼곳에 있는 남각을 생각했다
그때 불이의 등짝을 가만히 건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불이는 캄캄한 밤에 혼자 방을 빠져나와 어둠 속에서 히끗거리는 파도자락의 그 지칠줄 모르는 힘에 시로잡혀서 파도의 저 먼 곳에 있는 남각을 생각하며 그 자신도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충동에서 헤어나기 싫었다.

그때 불이의 등짝을 가만히 건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우녀였다. 우녀와 합덕의 처소는 위쪽의 정사인데 여기까지 내려온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우녀는 그녀의 권력의 지와도 같은 수행의 위엄 따위는 벗어난 한 여성의 자리로 돌아가 있었다. 그런 우녀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 불이는 이성(異性)에 대한 일종의 무증력 상태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우녀가 불이의 몸을 건드린 일도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

"그 스님은 이승을 떠나셨습니다. 지금쯤은 저승으로 가는 도중에서 고양이로부터 양물(陽物)을 물리고 있을 것입니다."

"네? 양물을?"

불이는 우녀의 입에서 남자의 성기까지 주저하지 않고 입에 올리는 것에 당황하였다.

"생전에 그분이 이 섬으로 출가하시기 전의 뱃사공 시절 황해도 몽산포 여염의 아낙을 강제로 상관한 일때문에 송제왕의 집행을 맡은 고양이가 그분의 양물을 물어뜯은 것이지요."

그녀는 이어서 다른 말도 하는 것이었다.

여자의 경우는 그 여자가 만약 생전에 지나치게 음탕한 사실이 있었다면 남자에게 고양이가 덤벼들 듯이 뱀이 그런 여자의 음처(陰處)에 들어가게 된다 하였다.

"먼저 들어가시지요"라고 그녀가 불이의 등을 아주 그윽하게 미는 것이었다.

불이의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때였다. 저 위쪽의 정사에서 합두가 내려오고 있었다. 우녀가 약간 당황한듯이 합덕에게로 갔다.

"또 한 사람이 새벽 파도에 이끌려 나오셨네."

"스님. 저는 일어날 때가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벌써 그런가요? 그렇다면 새벽 예불을 서둘러야겠습니다."

이곳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본래의 갈대정사에 거처하던 남자수행자들도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인담을 비롯해서 과행 수원 수월들도 언제 잠을 잤던가 하는 것 같은 밝은 얼굴로 나와서 짠 바닷바람에 젖기 시작하였다.

제·원·스·님·에·세·이

고적한 산사(山寺)에서 우리가 사는 도심(都心)까지 배달되어 온 마음의 소포,

그것은 제원스님의 흙빛 언어, 파란 감동 에세이집!

우리는 가끔 염라대왕이 보내는 엽서를 받지 못했다고 우기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은 그 녹슨 우체통을 열어본다.

누군가, 저 멀리서 독각의 언어를 내뿜고 있다.

▶ 산길을 닮은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행복찾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큰 정치를 위해 군살을 빼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무소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절망과 희망의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 혼자 사는 이의 조촐한 멋이 있습니다.
▶ 맑은 영혼을 가진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이 책은 BBS불교방송 〈불국토의 아침〉을 진행했던 제원스님이 수행자라는 입장에서 쏟아놓은 언어들이다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한번쯤 체에 걸른 것처럼, 영혼을 내뿜은 진한 감동의 에세이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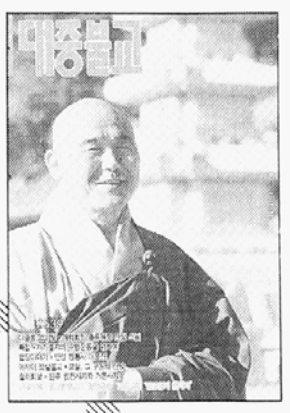
그래서, 독신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값6,000원 TEL(02)711-8948,1868/FAX(02)711-1869 이목

"월간 〈대중불교〉를 만나십시오"

수행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도반은 필요합니다.
〈대중불교〉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법에 입각한 신행운동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불자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과 역할을 끊임없이
모색해온 불교정론지 〈대중불교〉가
이제 수행운동을 함계 펼쳐갑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과 보람으로
이끌어줄 대중불교!
지금 당장 전화로 신청하세요!



불교방송교재
'경전공부'
'교리강좌'
'불교영어 한마디'를
권말부록으로
발행합니다

구독문의 :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재)대원정사, 월간〈대중불교〉
전화 : (02)773-5731, 752-7047 / 팩스 (02)771-6796



◇불학원에서 교리공부를 하고 있는 학인스님들.



◇옥불사의 상징인 백옥부처님. 미얀마에서 모셔왔다.

상해 옥불사를 통해 본 중국불교

정기법회 수만 신도 운집
새 기운 싹터… 통계 미비

옥불사(玉佛寺)는 '인간의 거리'로 알려진 중국 상해 도심에 위치한 명소다. 주지 진선스님(중국불교협 부회장)에 의하면 하루 평균 참배객이 2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청대(1882년)에 세워진 이 절은 임제종 계통의 선종 사원이다. 절이름 옥불사는 미얀마에서 모셔온 백옥좌불(높이 1.95m)과 길이 1m의 백옥와불에서 유래됐다.

우리의 강원격인 불학원이 있는 이 절에는 1백60여 스님이 공부를 하고 있다.

옥불사 불학원은 1986년 9월 문혁후 처음으로 4년제 졸업생 22명을 배출한 알려진 강원이다. 젊은 학인들은 경전 공부 뿐 아니라 서예, 산수화 등을 익히고 좌선 수행도 한다.

초하루 보름에 정기법회를 여는데 신도들이 많이 모이는 날은 3~4만명이 동참, 분향을 못할 정도라고 한다.

강경법회는 날을 정해 7일간 설하는데 우리나라 山林법회처럼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공부한다.

수륙법회도 거행하는데 구경나온 주민들까지 동참 경내가 꽉 찬다. 사진으로 본 모습이 마치 해인사 정대불사를 연상케 한다. 또 스님들이 불전함에 복리기금을 넣는 광경도 볼 수 있다. 이때 거사들은 일어서서 합장을 하며 스님들의 자비에 동참한다.

옥불사의 또 하나 특징은 사찰음식이다. 素菜·素點 등으로 불리는 옥불사 야채요리는 하루에 6백여명이 사 먹을 정도다. 아예 절안에 레스토랑이 마련돼 있다.

옥불사 외에 상해의 용화사 사찰요리도 유명하다고 중국불교협 국제부장 신재부씨는 귀띔한다.

이 절 장경루에는 경책이 잘 보존돼 있으며, 수·당·명·청대의 문화재급 성보가 상당히 많다.

중국에도 범패는 물론 찬불가가 있다. 절강성 천태산 국청사가 1987년에 펴낸 범패 및 불교가곡집 '普聲佛事'란 책에보면 범패와 '청량가곡' '불교가곡' 등이 수록돼 있다. 이 책에 의하면 황자(黃自), 숙우매(肅友梅), 전인강(錢仁康)씨 등 중국 근대의 저명한 작곡가들이 찬불가를 남겼다. 이 책을 감수한 황지륭(黃智隆)거사의 '나무관세음보살' 등은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5월 북경에서의 한중일 불교대회 때도 학승들이 찬불가를 불렀다고 했다. 이렇게 볼 때 중국불교는 우리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대부분 절은 아직도 관광 목적으로 복원되고 있다. 문혁 때 환속시켰던 스님들이 다시 승려증을 발급받았으므로 중국에는 노스님과 젊은 학승뿐 중년층 스님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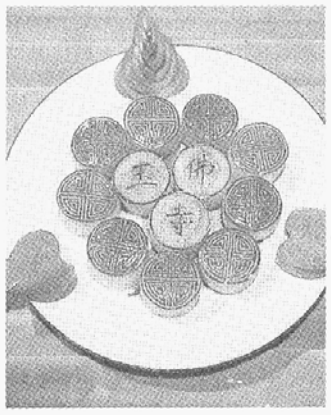
사찰을 찾는 신도들은 향을 사루고 촛불을 밝히나 도교나 민간신앙과 습합된 기복성이 짙다.

우리일행을 태운 버스 운전석 앞에 걸린 일본관광객이 주고 갔다는 '平成觀音交通安全守護' 부적은 중국불교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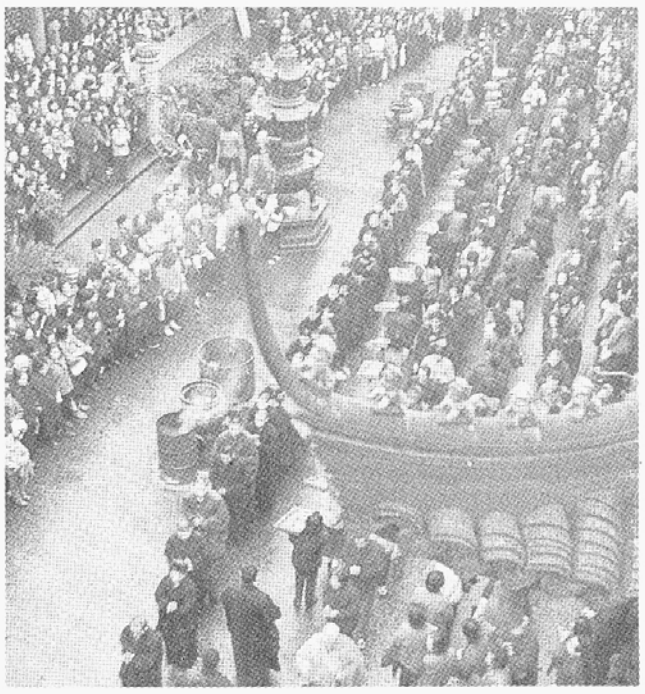
불학원서 1백60여 스님 공부
수·당·명·청대 성보 다수보관

1953년 설립된 중국불교협회나 국무성 종교국에는 불교신도 및 종교현황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중국불교의 현실을 잘 대변한다. 그러나 92년 장춘 반야사의 신도들이 경학공부를 하고 나오다 한국스님들에게 공손히 합장하던 모습이나 옥불사를 볼 때 중국불교는 이제 곳곳에서 새롭게 피어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상해=최정희 국장



◇옥불사의 소채음식은 널리 알려진 사찰 요리다.



◇옥불사의 수륙재

만화 法句經 법구경

* 일천(千)의 장 * 가장 뛰어난 승리자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

이 향 원



명문대가집
현미먹는 비법
먹기어려운 현미 이렇게 먹으면 된다!

고향에 계신 어머님처럼 정성을 다하여 절구통으로 방아를 찧어서 먹던 쌀과 같이 원하는 분도로 즉석 정미한 저분도 쌀을 먹으면 됩니다.

절구통표 米壽米 – 현미저분도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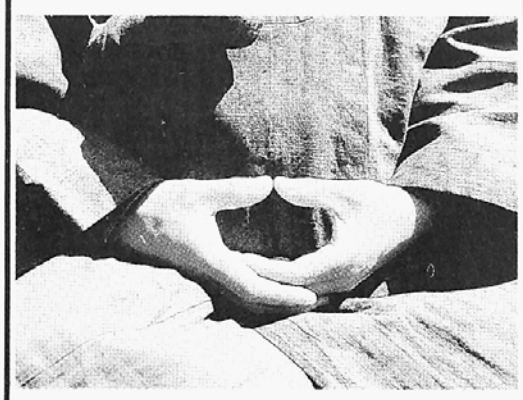
1. 현미의 문제점 : ① 먹기 어렵다.
② 영양섭취율이 떨어진다.
③ 묵은 현미를 먹을 가능성이 크다.
2. 왜냐하면 상인들이 현미의 먹기 어려운점을 악용하여 묵은 벼로 현미를 만들어 시중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먹기어려운 현미를 그냥 먹으라는 것은 먹지말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4. 먹기엔 백미처럼 부드럽게 먹고 영양은 현미처럼 풍부하게 먹을수 있다면 완전한 해답이 됩니다.

2분도 현미(주식으로)+미강가루(없음)=현미(먹기 어렵다.)
3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쉽다.)
4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더쉽다.)
5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조금 더쉽다.)
6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아주 더쉽다.)

5. 변비에 특효인 미강가루는 거치른 쌀겨가 아니고 밀가루처럼 곱고 부드러운 분말로 생산하여 쌀과 함께 드립니다.
6. 회원이 원하는 분도별 쌀을 주문받아 생산하여 배달하는 것이므로 신선도, 맛, 영양가에서 뛰어납니다.
7. 회원의 집까지 배달됩니다.(20kg이상) 대리점모집중
8. 원하는 분도별 쌀 kg단가는 1,950원 입니다.

조상의 얼을 지키는
쌀바르게먹기운동중앙회
TEL. (02) 231-5421~2, 235-1846~7
正米食(쌀을 바르게 먹음)이면 米壽亥(여든여덟살이 되는 해에 베푸는 잔치)이다.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 : 수시접수 (영구회원 접수중)
수련과정 : 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 (02) 735-6795 · 6796 / FAX (02) 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창(성오) 합장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대표 02-737-8881	●팩스 02-737-0697
	●광고국 02-737-0692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전화 051-634-5114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전화 062-375-9986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전화 053-427-8008	
경기지사	●전화 032-613-4027	●팩스 032-665-0965
목포보급소	●전화 0631-281-2534	
공주보급소	●전화 0416-856-3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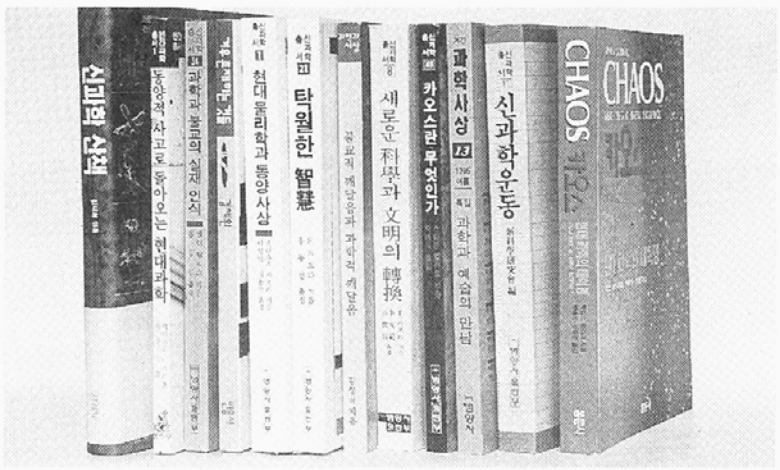
"불교사상 토대 신과학 이론 정립"

우주의 진리 불법서 찾는 서적 출간 '러시'

신과학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불교와 과학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두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 활발히 소개되는 신과학을 통해 불교와 과학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신과학이 애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과학산책〉(김재희 엮음, 김영사) 〈카오스〉(제임스 글리크, 동문사)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K.카프라, 범양사)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 〈탁월한 지혜〉(〃,〃) 〈과학과 불교의 실재 인식〉(앨런 월리스, 범양사) 〈신과학운동〉(이용희 외, 범양사)등이 주목되는 책들이다.

지금까지의 과학, 즉 기계론이 표방하는 물리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과학으로 설명하는 신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가르침
신과학 운동 출발점

의 세계는 절도있게 질서잡혀 있으며 우주전체가 마치 톱니바퀴로 이어진 기계처럼 구성되어 있다는 세계인식이다.

이와는 달리 신과학은 모든 유기체가 서로에게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유기체적 전체론적 인식이 주요한 특징이다. 이것은 기계론 결정론의 세계관으로 중병상태에 놓인 현대문명을 진단, 새로운 문화의 대두에 의한 새로운 문명의 출현을 예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현대물리학이 발견한 상대성원리 양자역학 등의 이론적 성과를 근거로 한 신과학은 기계론에 바탕한 기성문명의 한계에서 벗어나 새문명을 모색하기 위해 유기체적 사고로 전환하자는 일종의 사상운동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신과학은 그 출발점에서 불교의 세계관과 밀접한 사상적 토대를 확보하고 있다. 〈동양적 사고로 돌아오는 현대과학〉의 저자 이시카와 미츠오는 "과학은 설명되어지는 것이었지 삶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로 사고의 전환을 강조한다. 부처님은 추상적인 세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명제와 상통한다.

신과학의 대표적 논자는 K.카프라.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에서 카프라는 현대물리학에서 일어난 새로운 사상·우주관을 현대의 여러 학문분야로 확산시켜 현대문명 전체를 비관하고 새로운 세계관과 학문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동양사상〉에서는 유기체적 세계관이 담겨 있는 불교 도교 등 동양사상의 경전들을 인용하면서 동양사상의 우주관과 현대물리학의 자연관과의 유사점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불교를 통해 신과학을 설명하는 책으로는 〈동양적 사고로 돌아오는 현대과학〉 〈과학과 불교의 실재 인식〉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책은 불교의 선과 '색즉시공 공즉시색' 등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현대과학의 기초에 적용하고 있다.

신과학이 주로 외국학자의 저작인 점에 반해 〈신과학운동〉은 국내의 학자들이 신과학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이밖에 신과학과 현대물리학의 어려운 개념들을 쉽게 풀어쓴 입문 또는 개론서로는 〈신과학산책〉 〈카오스〉 〈겨우 존재하는 것들〉등이 있다.

정성운 기자

'신과학'은 상대성이론,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원리와 상보성 원리, 열역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증대의 법칙 등을 토대로 홀로그래피의 이론, 일반시스템 이론 등이 연관되면서 '신과학운동'이라는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에 따르면 주관(관찰자)과 객관(관찰대상)은 따로 떼어서 논할 수 없고, 물질과 에너지는 다른 것이 아니며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고, 소립자라는 극미의 세계와 우주라는 극대의 세계는 생성과 소멸을 잠시도 멈추지 않는 변화무상한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홀로그래피의 이론과 시스템 이론은 부분과 전체는 따로 떼어서 논할 수 없고 전체 속에 부분이 있고 부분속에 전체가 있으며 서로 상호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본다면 신과학에서 주장하는 세계는 '色卽是空 空卽是色' '不生不滅 不增不減' '無盡緣起' 등의 세계와 상당히 유사하다. 따라서

'신과학' 어떻게 읽어야 하나
언어·논리초월 사고로 시대적 한계 극복을

현대물리학은 동양적인 사유, 특히 불교적인 사유를 통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현대는 가히 과학의 시대이다. 아무리 영생과 왕생극락을 이야기 하더라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한 믿으려 하지 않는 게 요즘의 세태다. 그런 점에서 신과학 내지는 현대과학에서 주장하는 여러 이론들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무적이다. 그러나 현대과학에서 주장하는 이론들에 대한 해석이 아직도 분분한 상황이고, 특히 신과학에서 주장하는 세계관들이 일부의 영역에서 참인 것을 모든 영역에서 참이라고 확대해석한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과학은 현대과학이든 신과학이든 시대적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으며, 과학은 언어와 논리를 통해서 세계를 보고 불교는 언어와 논리를 초월해서 세계를 본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유용택〈과학사상 편집주간〉

명사추천 불서 100선

'선과 정신분석'



고 영 일
〈공인회계사〉

내가 20대의 한창 나이에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과 막연한 불안에 잠 못 이루어 할 때 〈선과 정신분석〉이란 책은 나에게 禪의 정신세계를 처음으로 접하게 해 주었으며, 우리가 그토록 천대시 했던 불교사상의 우수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저자인 에리히 프롬은 저명한 사회심리학자로서 그의 저서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된 바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유로부터의 도피〉 〈사랑의 기술〉등은 당시 낙양(洛陽)의 지가(紙價)를 올린 바 있다.

다른 한사람의 공동저자인 일본인 스즈키 다이세쯔는 유려한 영어와 선의 실수(實修)를 바탕으로 서양에 대승불교와 선사상을 전파하는데 공이 큰 인물이며, R. 테마르티노도 선불교를 오래 연구한 美 콜롬비아대학 교수 출신의 저자이다. 번역자는 동국대의 김용정 교수로 그의 또 한권의 번역서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F. 카프라)〉은 오늘날 불자들이 꼭 읽어 볼만한 좋은 책으로 생각된다.

이 책에서 에리히 프롬은 정신분석과 선의 목표가 인간의 욕망과 권위로부터의 극복과 독립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보았다.

또한 프롬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의식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허구적이고 망상적이며 정확하게 현실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의식이 자각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필터를 통과해야만 하고 이 통과 과정에서 의식이 왜곡되거나 무의식으로 잠재되어 버린다고 한다. 이들 필터중 첫째는 인간이 의식을 언어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어떤 것을 말로 표현하자마자 하나의 소외현상이 일어나며, 온전한 경험은 이미 언어로 대치되어 있다고 프롬은 말한다. 이는 선의 요체인 불립문자(不立文字) 직지인심(直指人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겠다.

또 다른 필터는 의식화에 방해를 받는 무의식적으로 잠재해 있는 인간의 원천적인 죄의식 또는 사회적인 금기(타부)이며 그 외에도 논리의 간섭, 의식의 관념화(觀念化)등을 들고 있다.

스즈키 다이세쯔는 선의 본질을 자기 존재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기술이며 속박으로부터 자유에의 길을 일러주는 에네르기의 해방을

의식 불확실성 禪으로 해명
불교사상 우수성 드러낸 책

의미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진정으로 내가 어떤 꽃을 본다는 것은 내가 그 꽃이 되어 그 꽃과 같이 되는 것이며, 꽃과 같이 비를 맞고 햇빛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는 꽃으로 되고 꽃은 나로 되며, 나는 꽃의 모든 신비와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끝으로 나는 다음과 같은 에리히 프롬의 독백을 소개하여 우리 불교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어떤 형태의 비합리적 권위도 없는 종교, 또는 그 종교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인간을 모든 의존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를 활동적으로 되게 하며, 어느 누구도 자기가 아니면 자기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종교에 대하여 프로이트는 무엇이라고 말하였을 것인가?"

'불교 근현대사 자료집' 곧 펴내
선우도량 출판 사업부, '금강경 간정기' 도

선우도량 출판부(책임간사 법진)는 선우도량 소속스님들의 연구성과물을 활발하게 출판키로 하고 곧 〈금강경 간정기〉(연관스님) 〈화엄경 입법계품〉(도법) 〈어린이포교〉(철오) 〈한국불교근현대사 자료집〉을 펴낼 예정이다.

〈한국불교근현대사 자료집〉에는 1920년부터 70년까지 주요 일간신문의 불교관계 기사를 수록해 4X6배판 2권 분량으로 9월중 선보인다. 현재 편집과 색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혼의 거장들 시집
민족사, 3권 동시 출간

권위주의와 온갖 주의주장을 완강히 거부하는 젊은날의 크리슈나무티를 비롯 인도의 시성 미라(Mira, 1503~1573) 까비르(Kabir, 1440~1518)의 영혼의 시편을 모은 시집 3권이 민족사에서 동시 출간됐다.

미라의 〈누구의 여인도 될 수 없나이다〉는 크리슈나에 대한 사랑과 찬양의 언어로 가득하다. 이제까지 추상적이었던 신과 인간의 사랑이 미라의 시편을 통해 남녀의 사랑으로 구체화되었다.

까르비의 시 〈그가 있는 어디든 나는 있으리라〉는 신을 향한 한 직공(까르비)의 헌신과 사랑의 노래. 이 사랑은 감각속의 영혼을 통해서 영혼의 문을 열려는 탄트라적인 사랑이다.

〈그대는 너무 멀다〉는 젊은날의 크리슈나무티가 남긴 시들을 모은 것으로, 이데올로기와 교조주의를 거부하고 오직 '자아의 각성'만을 추구한 그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3권 모두 석지현스님이 번역했다.

민족사는 '영혼의 거장들이 남긴 시' 시리즈 1차분 3권에 이어 〈기탄잘리〉 〈밀라레빠〉 〈한국선시〉 〈한산시〉등 20권을 계속 펴낼 예정이다.

해외 포교 특집 꾸며
'다보' 여름호 발행

불교종합 학술정보지 계간〈다보〉 여름호(통권 14호)가 나왔다. 대한불교진흥원 펴냄.

'특별기획' 해외 불교포교의 현주소와 불교의 국제화 △해외포교 현황(강건기) △해외불교포교의 실태(원명) △국제포교시대 한국불교의 해외포교 대책(보광) '결집 3000-21세기의 불교' △가정윤리(최봉수) △미래의 문화(허균·이근후) △정보사회와 인간의 가치(이정) '세계불교 동향과 종교적 관용' △불교의 사회사상과 민주주의사상의 특성 △불교의 7대특성 '지상중계' 불교신행, 그문제의 방향 '인물탐구' 틱낙한(김형균).

이밖에 자료로 교계 행사일지 및 보도자료, 불교관련 방송비평, 한국불교관계 논저 총합색인을 실었다. 5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역자	출 판 사
1	선 100문100답	진 제	파란나라
2	영가천혼법어	석 성 우	토 방
3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일 타	효 림
4	부처님 말씀	성 열	법 등
5	삶에서 깨어나기	틱 낙 한	장 경 각
6	하산	홍 주	불 지 사
7	서양에서 본 불교	미네시미히데오	불교시대사
8	연꽃만화	장 지 연	부다가야
9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10	42장경	라즈니쉬	성 하

구입문의:(02)737-0695

새로나온 책……

▲바구니에 물을 담고 달려간들 무엇하리(윤청광 지음)=고승열전 시리즈 11권째로 조계종 초대종정에 추대된(1936년) 한암큰스님의 일대기를 소설로 엮었다. 한암스님은 50세에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삼춘에 말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노라'맹세하고 오대산 성원사에 안거하여 입적할 때까지 참선에만 몰두하였다. 〈언어문화사, 6천원〉

▲부처님의 전생이야기(신지우 엮음)=부처님의 전생을 기록한 〈자타카〉에서 52편을 가려뽑아 일반인들도 〈자타카〉의 가르침을 쉽게 알도록 꾸몄다. 중생을 건지오리, 번뇌를 끊으오리, 법문을 배우오리, 불도를 이루오리 등 4장으로 구성했다. 〈불교시대사, 6천원〉

▲바람부는 날에는 너에게로 가고싶다(황청원 지음)=89년 〈떠돌이 별로 떠서〉를 펴낸 이후 6년만에 내놓는 황청원 시인의 네번째 시집.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책만드는집, 3천원〉

임·현·담·메·디·칼·에·세·이
효형출판
이 책이 나오자
불교계는 긴장했고, 가톨릭은 당혹했다
연속 출판
히말라야·인도에 빠진 닥터
5대 일간지가 격찬한 화제의 책!

방사선과 전문의
임 현 담
"가톨릭 의사가 「삶과 죽음」의 화두로 불교성지 히말라야·인도로 빨려 들어갔다"
효형출판 TEL.756-0262 FAX.756-0264 신국판/304쪽/6,000원 지금 전국 유명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이 권하는 책 ②
전통사찰총서
사찰문화연구원 편저
사찰 속에 깃든 한민족 문화의 뿌리 찾기
민족 문화의 과거·현재·미래가 만나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전통 사찰입니다.
'사찰문화연구원'은 전통 사찰의 연혁,
설화와 전설, 문화재, 그 사찰의 신앙적
성격을 방대한 자료 수집과 세밀한 고증으로
그 속에 녹아든 불교의 참 정신과
민족 문화의 원형질을 '전통사찰총서'에
생생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방대한 자료와 철저한 고증에 의한 정통 사지
전통사찰총서 1·강원도 I
강릉시 외 11개 시군의 유물·유적 총람 / 월정사 외 36개 전통사찰·절터의 창건 설화, 문화재, 대표적 수행자, 성보의 불교 문화사적, 신앙적 의미 해설 / 문화부지정, 강원도 소재 전통 사찰 목록 / 탑·부도·석비·불교 건축물의 부분 명칭
268쪽/신국판(사진 262매 수록) / 책값 : 7,500원
전통사찰총서 2·강원도 II
속초시 외 5개 시군의 유물·유적 총람 / 신흥사 외 19개 전통사찰(수록 내용과 체재는 '강원도 I'과 동일)
252쪽/신국판(사진 267매 수록) / 책값 : 7,500원
전통사찰총서 3·경기도 I
안양시 외 9개 시군의 문화적 특성 개관 / 용주사 외 45사찰·절터의 모든 것 / 불교문화재 목록 / 절터 목록 / 불교 금석문
362쪽/신국판(사진 217매 수록) / 책값 : 10,000원
전통사찰총서 4·서울
서울의 역사·문화 개관 / 각 구의 문화적 특성 / 54개 전통 사찰의 모든 것을 구별로 나누어 정리 / 서울 소재 불교문화재 목록 /서울 전통 사찰 주소록
472쪽/신국판(사진 297매 수록) / 책값 : 10,000원
전통사찰 5. 경기도 II편이 8월말 발간 예정입니다.
• 제작·발행 : 사찰문화연구원 02-566-4709
공급
불교서적 전문
책방 여시아문
02-737-0695

한지로 불교메시지 표현

성목스님·함순옥·임효·김영희씨등 작품 '눈길'

질박한 종이 장점 살려 회화·조각분야서 활용

한지를 이용 불교적 주제를 전달하는 화가들이 화단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지가 갖는 순수성과 안온한 질감을 자신의 작품에 도입시키는데 '성공'한 화가로는 함순옥씨와 임효씨가 꼽히고 있다. 또한 닥종이 인형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김영희씨도 '동자상'등을 통해 한지와 불교적 조소의 가능성을 보여줬었다.

이들은 한지가 한국화가들에게 가장 친근한 그림관으로 애용되고 있다는 상식에서 한 단계 앞서가는 작가들인 셈이다. 최근 전시를 마친 임효씨의 경우, 도부조라는 새로운 영역의 개척과 한지의 질박함을 살려 '한지부조의 조형성'을 일군 작가로 자리잡았다.

그의 작품은 주제의 담백함과 질박한 손맛을 일치시키면서 불교적 메시지 전달에 매우 인상적인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을 듣고있다.

지난 5월31일부터 6월6일까지 전시회를 가졌던 함순옥씨도 '불교적 소재'와 '한지부조의 조형성'을 성공적으로 빚어낸 작가다. 함씨는 석고판등을 직접 제작, 기계적인 감각을 완전히 배제시킨 부조판에서 뜬 한지의 형상들로 신선한 충격을 화단에 던져주었다. '승무' '큰스님' '스님'등의 작품을 통해 함씨는 한지의 담백함과 불교적 인상들을 매우 내밀한 작가적 감성으로 묶어 내는데 성공했던 것.

미술평론가 오세권씨는 함씨의 이같은 작품에 대해 "그린다는 의미에서 벗어나 종이로서 형태를 만든다는 의미이며 그 형태는 붓을 통해서 그려져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이로서 형태를 본뜬다는 의미로 변화된 것"이라며 새로운 시도에 대한 희망이 밝다고 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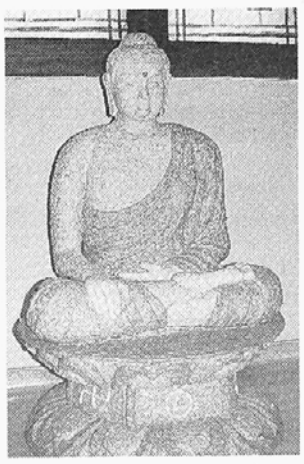
한국화가들의 한지에 대한 새로운 조형화 작업은 단순히 기교적인 도전이기보다는 불교나 사유의 세계라는 주제 전달의 극대화를 위한 끝없는 예술적 탐구란 것이 평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한지는 조소분야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한지를 이용, 불·보살상들을 조성하는 성목스님은 시집 〈떠도는 이 밤에〉 수필집 〈걸망 하나로 넘는 세월은〉등을 펴냈던 승려문인이다. 스님은 3년전부터 종이 부처님 만들기에 원력을 세우고 있다. 조소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이 분야에 전통도 없고 시도한 사람도 없어 기도하며 새로운 창작법을 그안해 내고 있다"는 스님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본격적으로 창작품을 조성, 전시회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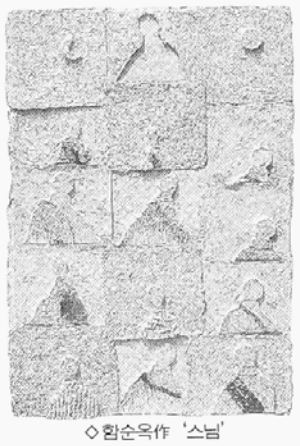
스님의 상계동에 세운 포교당 '산이 깊은 절' 법당에 모셔둔 아미타불상, 10대제자상, 지장보살상, 마명보살상등은 한지중에서도 화선지를 물에 풀어 풀과 섞은 뒤 조성한 것들이다. "획일적인 금동불상과 다른 포근한 부처님을 모시고 싶어 시작했다"는 것이 스님의 작업동기지만 본격적인 조소작업을 향한 의지는 매우 강했다. 스님은 천연색소를 한지에 배합시켜 다양한 색상의 거불조성도 시도할 계획이다.

한지가 갖는 속성과 질감등의 특성 때문에 불교를 주제로 하는 미술가들이 앞으로도 다양한 기법을 개척할 것으로 보인다.

임연태 기자



◇성목스님作 '아미타불상'



◇함순옥作 '스님'

불심시심 〈23〉

손가락에 달이 있나

百千經卷如標指 (백천경권여표지) 백천의 경전 손가락 같아서
因指當觀月在天 (인지당관월재천) 손가락 따라 하늘의 달 보네
月落指忘無一事 (월락지망무일사) 달 지고 손가락 잊어 한 일도 없으니
飢來喫飯困來眠 (기래끽반곤래면) 배고프면 밥먹고 피곤하면 잔다

서산대사의 큰 제자의 한 분이었던 소요(逍遙)대사의 시이다. 대사의 시에는 선기의 묘체를 읊은 것이 많다. 이 시도 깨달음의 길로 가는 도정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

진리의 말씀인 깨달음의 길잡이는 모든 경전에 수록되어 있어 일상의 범부로서야 경전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깨우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경전의 말씀들은 깨우침의 길잡이일뿐 그 말씀이 길의 본체는 아니다. 마치 손가락은 달이 있는 곳을 가리켜 달을 찾게 했을 뿐이지 손가락 끝이 달이 아닌 것과 같다. 이 시 역시 이렇듯 법의 실체를 찾는 길잡이를 제시하고 있다.

달을 보려는 이가 가리키는 손가락에 매달려 있으면 손가락을 보는 것이지 달은 보지 못한다. 손가락의 방향에 따라 달을 찾았으면 이제는 손가락을 잊어야 한다. 진리의 법체를 깨달으려 경전의 수 많은 길잡이에 의지하여 여여한 법체를 이해했으면 그 말씀에 매달리지 말고 법체의 참모습에 기뻐해야 할 일이다. 달을 보았으면 손가락을 잊음과 같다.

그러나 법체의 실상이 무엇인가. 인간세상의 범상한 삶 그 자체일 수는 없는 것인가. 손가락의 인도로 달을 찾아 달의 변화에 매달려 있다 보면, 달도 지고 말아 그 실상을 잃고 만다. 그러므로 외형의 달에 집착하면 내면의 실상은 또 잃는다. 차라리 손끝과 달을 모두 잊은 망념의 경지, 이것이 바로 여여한 법체의 실상이 아닌가.

모든 것을 여의고 범상한 일상사로 되돌아옴이 바로 삶의 실체요 그것이 모든 법의 근원이 아닌가. 배고프면 밥이 생각나고 피곤하면 자려고 하는 것이 가장 범속한 일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삶의 실체요 가장 때묻지 않고 꾸밈없는 본 모습의 드러냄이 아닌가. 손가락도 달도 잊은 상태, 한 일도 없음이 맑은 본 마음이 아닌가.

이종찬 〈동국대 교수〉

한·몽작가 1백여명 초대전

자유미술인작가회, 12일부터 갤러리 '터'

대한민국 자유미술작가회는 광복50주년을 기념해 한국과 몽골작가 1백여명이 참가하는 초청전을 갖는다. 12일부터 18일까지 갤러리 터에서 개최되는 이 초대전에는 한국측의 김부자 김종두 신화수씨등 60여명의 작가와 몽골의 원로작가 현직대학교수등 40여명이 참가한다.

'95 불교음악의 대향연 봉녕사 우담화합창단

수원 봉녕사 우담화합창단(단장 이숙자)이 꾸민 '95 불교음악의 대향연이 지난 1일 오후 7시30분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에서 우담화합창단은 '한마음 있음이여' '부처님 오신 날에'등을, 중창단은 '부처님께 기원합니다'등을 화창했다. 또 시명스님이 특별 출연, '청산은 나를 보고' '목련화'등을 불렀으며 한남대 사물놀이반의 사물놀이 공연도 곁들여졌다.

김덕명옹 지성승무 공연

경남도지정 무형문화재 한량무 예능보유자인 학산 김덕명옹의 소년소녀 가장돕기 '전통고전춤 발표회'가 지난달 24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렸다.

부처님마을 청년회와 실상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공연에서 김옹은 '한량무'와 '지성승무' '연등나례무'를 특유의 춤사위로 선보였다.

법고등 불교의식 시현 '나눔의 춤 50년' 공연

부산시립무용단이 지난달 21일 부산 문화회관에서 '나눔의 춤 50년'을 무대에 올렸다.

전통적인 불교의식 무용작법을 활용한 이번 정기공연에서는 광복 반세기를 맞아 민족의 아픔을 돌이켜보면서 희생자들의 영혼을 달래고 새로운 출발을 기원하는 의식을 춤사위로 결쳐보였다.

유광상씨 개인전

불두(佛頭) 그리기로 잘 알려진 유광상씨가 전원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기념전을 갖는다.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안국동로터리 백상기념관에서 열리는 이 전시회에서 유씨는 부처님 얼굴상과 풍경화등 신작을 선보인다.

통일맞이 칠석 문화제 열린다

불자 인연맺기·북녘에 편지쓰기등 다채

칠월칠석을 앞두고 견우직녀의 사랑과 민족 고유의 정서를 잇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7월11일 지선스님의 통일강연을 시작으로, 23일 탑골공원과 조계사에서 열리는 대한불교청년회의 〈통일맞이 불교청년칠석문화제〉는 남북불교도 공동법회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통일대동제는 정오 탑골공원에서 무차대회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1부 '시작하는 발걸음', 1부에서는 △칠석떡 나누기 △칠석문화제 거리홍보 △축념등포 및 함께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편지쓰기 △칠석부채 배포를 통해 일반시민에게까지 통일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이어 '본마당'에서는 참여한 청년단체들의 풍물과 노래가 함께하는 어울마당이 마련된다. 또한 통일나무 가꾸기, 민족의 만남을 실현하는 청홍색 띠 잇기, 통일한여름밤을 통일분위기 고조에 일조한다.

이밖에도 봉은사 청년회와 불광사에서는 '불자인연 맺어주기' 캠페인을 벌인다. 청신자 견우와 청신녀 직녀의 연(緣)을 이어 불자간에 부부의 오작교를 놓아주기도 하고, 한절에 다녀도 잘 알지 못하는 신도와 신도의 인연 맺어주기, 포교활동을 통해 불자 새 인연을 맺어주기 등.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칠석문화제는 초콜릿을 주고 받으며 청년들의 사교문화처럼 되어버린 서구의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를 한국화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기도하다. 〈필〉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복원



◇복원중인 수마노탑

강원도 정선군은 지난달 28일 1억6천만원을 들여 고한읍 정암사(淨巖寺)내 7층 수마노탑(水瑪瑙塔:보물 제410호)을 전면 해체해 기단부 석축을 보강한 다음 탑 복원공사에 들어가 올해 말 완공키로 했다. 또한 탑이 전면 해체되면 정밀조사를 병행해 보존상태등을 조사키로 했다.

신라 사적기에 의하면 수마노탑은 선덕여왕 12년(643) 자장율사가 정암사를 창건후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해 건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지난 72년 전면보수 이후 6~7년전부터 탑의 기단부가 침하되고 지대석의 균열로 1, 3, 4층의 탑신과 옥개부면석이 이탈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영월 흥령선원지 고려 거북상 발견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흥령선원지에서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돌거북 기단석이 발견돼 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영월향토사연구회(회장 엄흥용)와 강원대박물관팀은 지난달 21일 통일신라시대말 5교9산선문(五敎九山禪門) 중 사자산맥의 일문인 흥령선원지 답사에 나서 길이 1백79cm 전면 1백71cm 두께 54cm 머리부분 30cm의 돌거북 기단석을 찾아냈다.

의상대 복원 완공

붕괴위험으로 해체된 의상대 복원공사가 지난달 말 완공됐다.

양양군은 지난 4월1일 9천8백만원의 공사비로 기둥 밑부분 부식이 심해 한쪽으로 기우는등의 붕괴위험으로 지난해 11월3일 해체된 낙산사 의상대(강원도유형문화재 제48호) 복원공사에 착공했었다.

문화재 소식

불교문학사연구회 회원자격 개방

'동국대 출신' 탈피 모든 학자로 확대

한국불교문학사연구회(회장 이종찬)가 '동국대 출신'으로 한정했던 회원의 자격을 '불교문학에 관심있는 모든 학자'로 확대하는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회는 오는 10일경 임원과 회원들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갖고 회원 자격의 개방과 정기간행물(학회지) 발간, 정기 세미나 계획등을 논의한다. 연구회의 한 임원은 "91년 창립이후 학술서 발간과 세미나를 꾸준히 개최해 오며 일정의 역할을 해 왔지만 보다 확대된 조직과 정례적인 사업추진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임원진을 개편한 연구회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조직강화와 목적사업의 정례화 및 회원간의 소식지, 학회지 발간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회는 8월중에 지난해 가을에 개최했던 '불교와 민속' 세미나 발표 논문을 책으로 묶어 내놓을 계획과 올 가을에 '조선시대의 불교문학' 세미나 개최 계획도 이미 수립해 놓은 상태다.

불교문학사연구회는 91년에 발족, 동국대출신의 1백50여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진리의 전화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
구룡사 부설 인생상담
여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지혜의 문이 있습니다. 진리의 전화가 있습니다.
상담전화 (02) 579-3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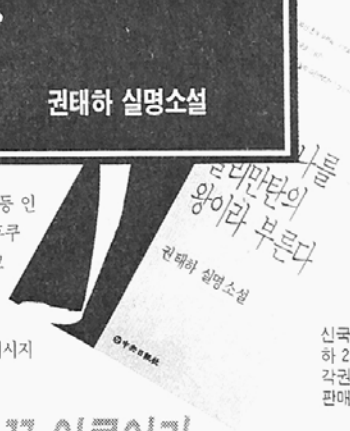


일상의 평범을 거부하고 세계속에 뛰어들어 자신의 꿈을 이룩한
大韓國人 최계월의 불꽃같은 인생드라마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

권태하 실명소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옛 보르네오)에 경상북도만한 정글을 개척, 원목·조림사업을 하는 한국인을 아는가. 인근 자바해 마두라 지역에 횃불을 밝히고 「產油 한국」의 국가적 과업에 마지막 승부를 거는 사업가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동경 시절 낮에는 야쿠자의 두목들을 휘어잡고 밤이면 일본 정계 거물들과 천하대세를 논했던 통 큰 사나이. 서슬퍼런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건습사관(소위) 임관식을 앞두고 「나는 이 전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기개와 배짱의 사나이. 일찍이 수카르노·수하르토 등 인도네시아의 전·현직 대통령, 기시·사토·미키·후쿠다·스즈키·다나카 등 일본 역대 수상들과 맺은 교분을 바탕으로 이미 수십 년전 사업의 영역을 국제무대로 넓힌 세계인 최계월. 이제 그가 바쁜 일상속에서 자꾸만 왜소해지는 우리들에게 뜨거운 메시지를 전한다.



신국판 / 상 254쪽, 하 259쪽
각권 5,000 원
판매 / 751-9468

한국인이여, 그대 가슴에 꿈을 품어라. 그리고 그것을 꼭 이루어라.

中央日報社

조계종 '법인관리법' 상정 파동

'법인관리법'(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놓았던 조계종 제117회 임시중앙종회는 '상정' 그 절차에 이의가 제기되며 논란이 가속되다가 드디어 종회까지 폐회시키는 파행운영으로 치달았다. 종법개정특위(위원장 성문)가 종회개최 3일전 서둘러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법인관리법'은 선학원 불교방송 진흥원 등 재단법인 22곳, 청소련 등 사단법인 7곳, 연꽃마을 등 복지법인 7곳, 등 국학원 등 학교법인, 공익법인, 영리법인 및 기타 특수법인 등 조계종 종무기관이나 승려·재가불자가 설립한 법인을 모두 조계종에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법안이다.

당초 '선학원특위(위원장 법등)'가 선학원 등 법인체의 문제를 근본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관리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제정필요성은 여러번 대두돼 왔다. 법인 등에 사찰을 등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잘못하면 조계종은 헛껍데기 종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법인법의 제정을 서두르게 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임시종회 개최에 따라 총무원과의 조율이 전혀 안된 관계로 종회 위주로된 내용에 총무원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종회 부설인 종법개정특위 권한에 법의 개정 및 폐지뿐 아니라 제정까지도 포함되느냐는 논란과, 심의를 한 법제위원회가 성원미달이기 때문에 심의 자체가 무효라는 지적으로 법제정이 차기종회(8월중 예정)로 넘어갔다.

총무원은 법인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종법개정위가 이번에 마련한 법안처럼, 입법기관의 역할을 넘어 행정집행권까지 행사하려 든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법인관리위원회 15인 중 중앙종회의원이 13명을 차지한다는 내용은 종회가 무소불위의 거대권력기구화해 가뜩이나 약체 총무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총무원을 더욱 위축시키는 일로 여기며 관리위원회를 총무원 산하에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인관리법 제정과 더불어 '종립학교관리위원회' 폐지 유무문제도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인관리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과 전문회라는 세류에 따라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동국학원 이사 만료 시한과 맞물려 이또한 이번 종회에서 미묘한 신경전을 노출시켰다.

이번엔 폐기됐지만 차기종회에서도 '법인관리위원회' 구성을 핵심으로 한 법인관리법안의 상정은 종회와 총무원 그리고 종회를 양분하고 있는 세력들의 이해 관계로 격론이 일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경숙 기자

BBS '밤창 가족' 자비 나누기

X세대 팬 클럽 5백여명 월 2회 고아원등서 사회봉사



◇ BBS 밤의 창가에서를 후원하는 '밤창 가족'은 방송가에서 유일한 프로그램 팬클럽이다. 사진은 고아원을 방문한 후 참가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노래가 좋고, 사람이 그립고, 불교가 따뜻하다'는 BBS '밤의 창가에서'(진행 김광석 장필순 24:20~01:55)가 장기간 인기정상을 누리는 이유는 뒤에서 후원을 아끼지 않는 '밤창가족'(회장 방미애)이 힘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94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해온 '밤창가족'은 고정회원만도 5백여명에 이르는 방송가에서 유일한 프로그램 팬클럽이다. 회원들은 막연히 노래나 연예인을 좋아하기만 하는 철부지들이 아니다. 회원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부처님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기는 야무진 X세대들이다.

작년 3월부터 고아원, 교육원, 지체부자유시설을 찾아 정기적으로 월 2회 사회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는 '밤창가족' 회원들은 봉사활동 시간을 월 4회로 늘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광석, 한동준씨가 진행하던 지난 하에는 고아원 방문계획을 발표하자 1천여명이 신청하여 관계자들을 떨떨매게 한 적도 있다.

'밤의 창가에서' 담당PD 구경모씨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용인자연농원에서 '여름캠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비해 보답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는 행복한(?) 엄살.

지난 5월 프로개편과 함께 한동안 뜸했던 김광석씨가 다시 진행을 맡고 장필순씨까지 가세하여 '밤창가족'들은 활동도 더욱 넓혀갈 계획이라고.

'밤창가족' 회원들은 기초교리강좌 등의 불교교육에도 관심을 두고 임원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 불교방송가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태고종 종단개혁안 통과

70회 임시종회, 세입세출 결산안등 처리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벽산스님)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70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종단발전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종단 개혁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종회의원 60명 가운데 32명이 참석한 이날 종회는 종단 개혁안을 비롯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총무원 간부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본지33호 참조)

향후 본격적인 개혁불사에 들어갈 개혁시안은 △사찰수입의 10%를 종단분담금으로 납부 △선암사에 불학대학 설립 △총무원청사를 봉원사로 이전 △불교의식의 한글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혁시안은 법령개정소위원회를 구성, 필요한 종헌종법개정을 위한 시안을 만들어 8월에 개최될 예정인 71회 정기중앙종회의 개정절차를 마친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btn 시청률 6위
케이블TV 조사결과

한국조사개발원이 5월9일부터 31일까지 일반시청자의 매체접촉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교TV는 20개 공급업체중 6위의 시청률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및 광주에 거주하는 만12세에서 만60세까지의 남녀 9백39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개별면접하여 이루어진 이번 조사에서는 영화, 스포츠, 음악, 오락이 수위를 차지했으며 불교텔레비전은 서울이 0.5%, 광주가 1.3%의 수치를 기록, 시청빈도가 높은 케이블TV로 분류됐다. 또 광고부분도 수주율이 5위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륵선종 법수종정 취임

미륵선종(총무원장 이혜성)은 지난달 25일 대전 구한사에서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2대 종정 법수스님 취임식'을 성황리에 거행했다.

이날 구한사는 종정 취임식에 이어 미륵대불 점안식과 6.25 전몰장병 천혼재를 봉행했다.



◇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과 중국불교협 조박초회장은 23일 한중불교의 폭넓은 교류를 다짐했다.

천태종·중국불교협 우의 확인

23일 북경서 조박초회장 만찬 주최

국청사 조사기념당 낙성식을 마친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과 전운덕 총무원장 등 70여명의 스님과 인사들은 6월23일 조박초 중국불교협회장이 초청한 만찬에서 한중 양국의 우의를 다지는 환담을 나눴다.

이자리에서 도용스님은 국청사 조사기념당 건립에 협조해준 중국측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앞서 조회장은 "국청사 조사당은 1천년후에도 역사적 의의를 지닐 것"이라며 "대각국사와 상월조사 등 한국의 두 조사를 중국에서도 조사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전운덕 총무원장 역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중국불교 발전이 동북아 불교발전과 불교의 세계화에 큰 몫을 할 수 있으므로 양국이 더욱 협력하자고 말했다.

광복절 5부작 다큐 '개화승 이동인' 제작

불교방송은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개화승 이동인'을 5부작 특집 다큐멘타리로 제작한다.

자료수집 및 연구에만 1년6개월이 소요된 특집 다큐맨타리는 동경, 요꼬하마, 교토, 오사카, 나가사키를 1달 보름동안 현지 취재하는 대작이다.

불교방송은 이와 함께 근대 정치사에 등장한 약 8개월 이외에는 행적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이동인 스님이 거쳐갔던 역사의 현장을 되짚어보고 그를 한국 역사의 전면에 끌어올린다는 제작의도를 밝혔다.



진각종 성지조성 부지희사
정인서·김복순 부부

"부처님 재물 회향합니다"

진각종이 진기 5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지조성불사에 써달라며 약 2천5백여평(시가 20억원)의 부지를 서슴없이 희사한 교도가 있어 교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진각종 경주 선혜심인당의 교도인 정인서, 김복순부부가 바로 그 주인공.

평소 불우한 이웃과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온 부부불자는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부지를 희사, 더욱더 세인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다.

반신불수로 거동이 어려운 가운데도 평소 근검 절약하는 생활자세로 주위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온 김복순 할머니는 1주일에 2, 3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남편 정인서씨의 간호도 해오고 있다.

정씨부부는 "우리 인생에 생노병사가 있듯 재물에도 갈 때가 있고 올 때가 있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라며 "부처님의 은혜로 얻게된 약간의 재물을 다시 세상에 환원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근〉

목탁소리

이 경 숙
〈취재1부 차장〉

과연 개혁종회인가

지난달 23일 폐회된 제117회 조계종 임시중앙종회를 지켜본 사람들은 세번 놀랐다.

우선은 5일간의 회기로 진행되던 종회가 안건이 5개나 남아있음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이 이틀만에 다급하게 폐회된 사실이다.

이번 임시종회를 시급히 열게 만든 안건은 처리됐다 하여도 다른 안건이 엄연히 남아있고 쉬고라도 속개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도 서둘러 폐회시킨 사실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혹 종회의원 자신들이 정한 회기를 쉽사리 줄이는 것은 종회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나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또 하나는 종회차원에서 구성됐던 특위를 즉석에서 해체하자는 건의가 나오고 이것이 표결을 거쳐 너무나 쉽게 해체된 점이다. 물론 선학원특위라든지 총무원무승인재산처분특위는 집행기관인 총무원에서 주관해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종회차원의 특위가 구준히 일을 진행시켜 성과가 가시화되는 지점에 와 있고 또 누구(?) 짐을 누가(?) 대신 져 주는 것이 아니라 종단의 첨예한 난제를 종회와 총무원이 공동보조로써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감정 폭발(?)의 결과인 특위 해체는 과연 종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지 존립 목적까지 모호해진다.

그리고 겸직금지 등 개정된 법으로 인해 초선의원들이 대거 진출, 전체의석의 80% 이상을 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나마 소수인 다선 의원들이 너무나 선배대접을 못받고 있는 점도 놀라운 일이다. 따라서 상승작용으로 다선의원들이 선배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종회는 81명의, 각 지역과 비구니계·교육·포교·학술·선원·문화 등 각 분야의 대표자들의 모임이 분명하건대 발언권자는 늘 한정돼 있다. 마이크를 멋멋 의원들이 독점, 태반이 넘는 의원들이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발언 한 번 없는 채 자리만 지키고 있다.

물론 개혁종회는 토론도 많아지고 상당히 활성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좋아졌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때 몇 점일지는 종회의원 자신들이 더 잘 알 것이다.

방송 하이라이트

btn ch32

오대산 월정사를 찾아서

한국의 명찰 (3일 오전 11시10분~12시)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 동쪽 계곡에 있는 사찰 월정사. 643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였다.

가수 설운도 인생이야기

김병조의 스타쇼 (5일 11:10~12:00) 잃어버린 30년을 시작으로 대스타가 된 설운도. 가수가 되기 위해 좌절과 절망을 거듭했던 인생이야기를 들어본다.

김지하시인 초대 토론

btn특강 (6일 오후 12시30분~13시20분) 김지하시인을 초대하여 불교의 생명존중사상에 대해 토론 한다.

사원연구가 이재창박사

나의 삶, 나의 불교 (8일 11:10~12:00) 부처님 가르침을 펴기에 변함없이 살아온 사원연구의 대가 이재창박사의 삶과 불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다.

국악관현악단 창단연주

32스페셜 (9일 오후 8시 15분~9시5분) 국립국악관현악단 창단연주회 공연실황을 녹화방송한다.

BBS FM 101.9MHz(서울) FM 89.9MHz(부산) FM 89.7MHz(광주)

현대찬불가의 기원 조명

바로보는 불교역사 (4일 14:10~15:00) '현대찬불가의 기원은 무엇인가?'에 대해 되짚어 본다.

'한국불교' 주제로 퀴즈

퀴즈대장경 (5일 오후 3시 5분~3시45분) '한국불교'를 주제로 풀어보는 퀴즈시간.

부처님 당시 수행승 생활

교리강좌 (6일 오전6시40분~7시) 부처님 당시 수행승들의 생활상을 들어본다.

밤을 주제로 한 영화음악

영화음악실 (8일 오후 10시5분~11시) 음악칼럼니스트 최우정씨와 함께하는 영화속의 밤을 주제로한 음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김흥국·이자연 등 출연

BBS백팔가요 특집 공개방송 (9일 12:10~13:55) 김창남의 진행으로 김흥국 이자연 권승엽 문희옥 녹색지대 박상민 좌희전 변진섭 Mr.2 서지원 제트 잉크 등이 출연.

30초 건강비법 "편작전자침" 공개

扁鵲

조사부 제조허가 제 502호 제조원 : (주)성한 앤드김
조사부 제조품목허가 제 1호 공급원 : (주)대 진 상 역

막힌 혈을 뚫고 멈춘 피를 돌게하는 무통무혈의 신비의 한방전자침

가정비상용 컴퓨터 전자침
살갗을 뚫지 않아 부작용이 없고 누구나가 안전하게 사용

지금!! 바로 주문 하십시요

특수센서가 스스로 "경혈"을 찾아주는 전자동 전자침 (하루 20분 투자로 온몸이 편안해 집니다.)

89년 화타전자침 국내 최초개발
7년간의 기술 축적으로 95년 "편작전자침"으로 탄생

컴퓨터가 침 자리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동양침술의 기적 "편작전자침"은 침술의 고장 중국을 비롯 미국·영국등 세계 곳곳에 수출되어,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는 가정상비용 전자침입니다.

미국·영국수출

국제 보증서로 1년간 아프터 써비스 보장

보(+), 사(−)스위치 침의 보(+) 사(−) 스위치로서 질환에 따라(+)(−)로 맞추어 사용

감도조절기 편작전자침의 핵심 기능인 침놓는 자리 (경혈)를 정확하게 찾아줌

주파수조절기

강도조절기 침의 혹수(1호~7호)

개폐스위치 전원스우치를 ON에 놓으면 탐색등에 불이 켜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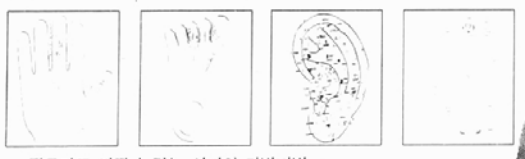
치료버튼 극초 저주파를 경혈에 주입시키거나 경혈 탐색기능

10단 탐색등(3단적색, 7단청색) 침자리를 접근하면서 청색등이 차례로 들어와 침자리에서 적색등 꺼짐

탐색 및 치료침 살갗을 뚫지 않고 경혈에 특수전류 자극하여 부작용이 없고 누구나가 안전하게 사용

24K 순금도금

■ 편작전자침은 수침, 족침, 이침, 체침을 모두 놓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도 깜짝 놀라는 신비의 단방비법 *

■ 가정에서 누구나 손쉽게 신비의 침술을 직접 체험해 보세요!

- 편작전자침은 수침, 족침, 이침, 체침을 모두 놓을 수 있습니다.
- 누구나 침을 놓을 수 있다.
- 침자리(경혈)을 스스로 찾는다 (특수센서)
- 살을 뚫지 않는다.
- 시술시 전혀 아프지 않다.(무통)
- 부작용이 전혀없다(순금도금)
- 안전하다.
- 효과가 매우 신속하다. (금성질환에 직효)
- 엄마가 아기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직접 침을 놓을 수 있다.
- AIDS나 간염에 감염될 우려가 없다.

■ 가정상비용 전자동 전자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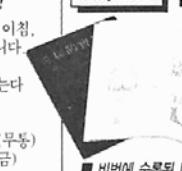
- 가정·학교·직장·운동팀·체육관·헬스클럽·테니스·골프장·에어로빅

보너스 1 편작 보감 Ⅰ



-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361혈의 정확한 위치 치료질환이 칼라도해로 쉽게 설명
- 침으로 치료 가능한 모든 질환의 경혈이 색인으로 참부
- 전문인을 위하여 14경락별 경혈을 세계공통기호로 표시
- 총350여 질환의 비방 수록
- 칼라 4×6배판 460쪽

보너스 2 편작 보감 Ⅱ



- 전면을 실제 인체를 촬영하여 질환별 경혈점 표시
- 칼라 4×6배판 192쪽

■ 비법에 수록된 비방 128가지

두통 편두통 조루 고 저혈압 위산과다 만성변비 통상 당뇨병 치통 감기 생리통 물운 냉대하 기미 주근개 알콜중독 담배끊는 법 정력증강 좌골신경통 입로틴스 설사 위 십이지장 궤양 금체 풍치 구강악취 편도선염 아놔중 무릎통증 관절염 팔 다리의 저림 마비 각종 염좌 여드름 숙취 테니스 골프 엠보우 허리통증 좀도 습진 소화불량 풍연증 콜레스테롤 등

보너스 3 실체 경혈도 3매

- 실제 인체를 촬영하여 환눈에 알아 볼 수 있게 체계적 경혈 표시
- 4절지 3매

보너스 4 건강생활 대강좌

■건강강좌 유명 강사진 —



홍문화(약학박사) 유태종((식품공학박사) 한국남(의학박사)

1 자궁암 유방암 2 원만한 부부생활 3 술 담배와 건강 4 올바른 식사의 지혜 5 담뇨병 고혈압 식이오법 6 간장병 신장병 식이오법

- 카세트테이프 6개, 총12강좌, 자연의학연구회

보너스 5 건강교실(가정건강지침서)

1 당뇨병백과 2 고혈압백과 3 신장병백과 4 간장병백과 5 암백과 6 심장병백과 7 위장병백과 8 호흡기질환 9 관절염 류머티즘 10 자율신경실조증

*편집위원 : 홍문화, 유태종, 김경빈, 원대진 (전10권)

보너스 6 이침(耳) 경혈도2매

- 인체의 상응 부위를 그림으로 세밀히 표시
- 이침 합치리를 정확히 감지

보너스 7 이침(耳) 사용비법 및 비방

- 편작전자침으로 이침 진단법 및 사용법 공개
- 최신 중국 이침 치방공개(금연, 금주, 미용 등)

보너스 8 편작 36 비방

-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걸리는 36가지 병의 비방 공개

* 상품 8가지를 추가로 증정합니다. *

수신자 부담서비스 080-922-7777 이 전화는 받는쪽에서 부담합니다.

특별공급가 ₩158,000원
■분 할 가 ₩ 30,000 × 6회
☎전화 주문 하시면 배달해 드립니다.
VISA LG
*카드소지자 장기분할 혜택드림

구입처
■서울
●서울 02)712-8711/2
●서울 02)714-9632/3
■경기도 ●인천 부천 부평 ●인천 032)502-5533 수원 오산 평택 안성 ●수원 0331)42-2908 안양 의왕 안산 ●수원 0331)45-2904 성남 하남 광주 이천 ●성남 0342)732-1257 의정부 양산 파주 동두천 ●의정부 0351)874-3174 ■충청도 대전 북천 금산 영동 충남전역 ●대전 042)581-0151 청주 충주 천안 공주 충북전역 ●청주 0431)65-8180 ■경상도 ●부산 김해 양산 ●부산 051)628-2489 대구 경산 영천 ●대구 053)653-0623 울산 현양 기장 ●울산 0522)60-7996 포항 구룡포 연일 ●포항 0562)81-2976 경주 영일 감포 ●경주 0561)749-6586 상주 영주 단양 ●상주 0582)34-0630 안동 청송 영덕 영양 ●안동 0571)52-7706 구미 왜관 김천 성주 ●구미 0546)456-4600 마산 함원 진해 충무 ●미산 0551)56-7685 진주 사천 삼천포 ●진주 0591)746-7551 ■강원도 춘천 가평 화천 양구 ●춘천 0361)51-0007 (원주 횡성 홍천 제천) ●원주 0371)46-8260 강릉 주문진 속초 ●강릉 0391)42-6830 동해 삼척 태백 ●동해 0394)32-5725 ■전라도 광주 나주 목포 전남지역 ●광주 062)524-8110 전주 이리 군산 김제 전북지역 ●전주 0652)252-8862 여수 여천 순천 광양 ●여수 0662)666-2037 ■제주도 제주 서귀포 성산포 ●제주 064)56-3007

국내최대 사회복지관 완공

능인선원 포이동에 10월 개관…노인학교·직업훈련원 등 갖춰

국내 최대의 종합사회복지관이 불자들의 원력으로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 모습을 나타냈다.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원장 지광스님)은 지난 92년 착공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오는 10월 개관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내부공사와 주변정리만을 남겨놓은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지상 3층 지하 5층 연 건평 3천5백평 규모로 법당은 물론 탁아실 유치원 청소년 교양교실 독서실 노인학교 직업훈련원까지 두루 갖춘, 매머드 지역복지센터형 포교당이다.

능인선원은 종합사회복지관 개관에 앞서 오는 8월11일 우란분절을 기해 복지관으로 법당을 이전하고 본격적인 포이동 시대를 개막할 예정이다.

원장 지광스님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 "문자 그대로 현대의 모든 피로하고 지친 사람들의 정신과 육신의 양면을 쉬게하는 참된 의미의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능인선원 종합사회복지관은 10월 개관과 함께 △저소득 지역사회주민의 자조, 자립능력 배양 △고소득 지역사회주민의 협동의식 고취 △지역 잠재자원의 발굴 및 복지사업의 환원 △지속적인 청소년 선도를 통한 청소년문제 방지 △노인복지시설을 통한 전통적인 미풍양속의 유지발전 등을 펼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의 종합복지센터 구실을 담당하게 된다.



◇능인선원이 포이동에 마련한 종합사회복지관 전경.

20기 불교학교 9월5일 개강
3천명 입교운동 전개

능인선원은 대대적인 종합사회복지관 개관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8월부터는 모든 행사를 포이동 새 법당에서 펼칠 예정이다.

특히 9월5일 개강하는 제 20기 능인불교학교는 3천명 입교운동을 전개, 현재 1천여명이 입교신청을 했다.

능인불교학교 관계자들은 "매기마다 3천명의 고급불자들을 양성하면 한국불교의 역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며 불자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능인선원은 원장 지광스님이 10여년전 서울 서초동 도심속에 포교당을 개원, 불교학교 가정법회 등을 통해 도심 포교의 모델을 세우고 이번에 대규모 종합사회복지관을 마련했다.

〈이준엽 기자〉

종상·도후·도각·현철스님등 33명
28일 사면 복권 경감 조치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제117회 중앙종회 동의를 얻은 33명 징계자에 대해 종정 월하스님의 재가를 얻어(6월24일) 지난달 28일부로 사면 복권 경감 조치했다.

이번에 단행된 사면·복권·경감 대상에는 종상(전 연주암 주지) 도후(전 백담사 주지) 보정(전 조계종 규정부 조사국장) 도각(전 조계종 사회부장)현철(전 동화사 재무)스님 등이 들어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사면=서명 수중 능혜 종상 현수 광진 영도 경우 혜오 지정 홍진 보연 덕현 도후 허정 성훈 능업 〈17명〉

△복권=세법 〈1명〉

△경감=보정 지호 진학 동연 보원 삼현 도오 영공 현철 지원 일법 도각 봉주 명선 시진 〈15명〉

원산·서주·무상스님등 새 이사로

중앙승가대 이사회

중앙승가대학(학장 송산스님) 제23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29일 승가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사 임기만료된 지하스님(법륭사주지) 엄종일씨((주)건영사장), 사퇴의사를 밝힌 설조스님(불국사 주지) 현근스님(조계사 주지) 대신 지난 23일 제117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이사후보로 동의 결의된 원산스님(교육원장) 동광스님(도선사 주지) 서주스님(소림사 주지) 무상스님(봉은사 주지)이 이사로 선임됐다. 임기만료된 정우스님(구룡사 주지) 명훈스님(금정사 주지) 은 유임됐다.

또 이사회에서는 제19차 이사회에서 통과된 용강동 소재 토지를 총 8필지 1억7천만원(토지 매입 희망자 매입가격)에 매각하도록 하고 학사 이전 비용으로 활용키로 했다.

부산불교 거사림 공병수 회장 취임

부산불교거사림회 창립 제23주년 정기총회 및 공병수 신임회장 취임식이 지난달 27일 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 정관스님(범어사 주지) 등을 비롯한 사부대중 6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최됐다. 〈인터뷰 4면〉

이날 총회에서는 23차년도 결산서와 신년도 예산보고 및 승인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대구광역시 사원연 임시총회

대구광역시 사원주지연합회 제3차 임시총회가 지난달 23일 국제오피스텔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95년도 예산안승인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결산 △청소년 교화연합회 지부구성 △사원연 창립법회 결산 △사원연합창단 창설 및 단장(동진스님) 선출 등의 안건이 심의됐다.

교정인연합회 충청지부 창립

전국 불자교정인 연합회 충청지부(지부장 정남복) 창립법회가 지난달 25일 전국교정인연합회 오희창회장과 충청지역 8개 교정기관 불자와 스님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광역시 동구 심광사에서 봉행됐다.

부처님의 정법을 구현하며 포교와 재소자 교화선도를 위해 지난해 12월18일 안양에서 결성된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는 지난 4월 영남지부 창립에 이어 두번째로 충청지부를 개설하고 이날 창립법회를 열었다.

호국금강사 전몰장병 위령재

6·25 45주년을 맞아 경기도 포천군 호국 금강사(주지 정상경)는 '제12회 6·25 전몰장병 및 회생영령 합동 위령대재'를 성황리에 봉행했다.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 교계인사 군불자등 3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위령대재는 영가 천도의식을 시작으로 위령대재, 탑돌이, 방생에 이어 도피안사, 월정리 전망대등을 비롯 6·25 격전지를 견학했다.

東大 정각원 하계수련대회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산스님)은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95학년도 신임교수·직원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했다.

1백15명이 참석한 이번 수련대회는 실천불교를 위한 참선지도, 서운암 자장암 참배, 송석구총장의 특별강연 등 다양하게 실시됐다.

석왕사 생협 생산지 견학

생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해 우리 농촌과 환경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석왕사 생활협동조합이 오는 16일 강원도 호저지역으로 생산지 견학을 떠난다.

유기농법으로 무농약쌀, 현미, 잡곡, 참기름, 들기름등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강원도 호저지역 견학을 통해 석왕사생협은 우리농촌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성을 조합원들에게 다시금 일깨워줄 계획이다.

이번 생산지 견학은 조합원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석왕사생협은 수시로 조합원을 신청받고 있다. (032)668-0072

복지재단 시설조사 착수

조계종, 불교복지시설총람 8월초 완성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이 불교계 1백50여 사회복지시설 조사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6월중순부터 각 시설단체로 우편조사문을 발송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7월초까지 반송된 조사문을 토대로 각시설의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단체 총람을 완성, 8월초 각 언론기관과 관련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이번 시설 단체 조사를 시작으로 불교복지전반에 걸친 각종 기초작업들을 펼칠 예정이다.

가야산 골프장 저지 교계 서명운동 확산

가야산 골프장 건설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보인스님등 해인사 승가대스님 15명과 대구대학생불교연합 및 환경운동연합 회원 20여명은 지난달 24일과 25일 대구 동성로에서 가두 서명운동을 벌여 2천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해인사 대책위(위원장 지관스님)는 1백만명 서명을 목표로 각 승가대 및 교구 본말사로 서명운동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내주에는 서울 부산에서도 가두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8일에는 선용·시현·법타스님등 13인의 총무원 대책위 스님들이 골프장 건설 예정지인 성주군 수륜면 백운동 현장을 답사했다.

2차 주식공모 '의외 부진'

불교TV 2백억 목표에 불과 6억…대책마련 시급

지난달 29일 불교 텔레비전의 제2차 주식공모 마감 결과 당초 목표액인 2백억원의 5%에도 못미치는 부진을 보여 불교텔레비전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30일부터 3개월간 시행됐던 제2차 주식공모에는 전국에서 총 1천4백35건에 6억55만원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차와는 달리 태고·천태·진각종 등에서도 참가하고 광주 전남등지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음에도 이같이 미진한 이유는 교계내의 대규모 모연의 증가와 전송망 설치미비 등의 전반적인 대 내외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tn의 한 관계자는 "경영관리상 주주보호측면에서 주식공모를 연례행사로 할 수 없다"며 "경영이 흑자가 되는 주식 배당시에 3차공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법상 주식회사 체제로 출발한 btn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초래될 경우 주식공모와 은행차입의 2가지 방안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한 안방부처님시대는 안정적 기반에 들어서지도 못하고 침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만평 택지로 활용가능
조계종, 봉원사 실사

분규사찰의 대명사격인 봉원사의 총 면적은 13만1천382평이며, 향후 택지로 전환,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3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종 「조·태 분규사찰특위」 위원장 정휴스님은 지난달 23일 제117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이같이 실사결과를 보고하고 "조계종과 태고종이 89년 당시 봉원사를 50:50으로 분할 관리한다고 합의했지만 다시 종회에서 전체면적 혹은 가용대지를 분할 관리토록 결론을 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에 불교가치관 심는다"

우리는 선우, 8월 4~7일 경주서 불교문화캠프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해 경주지역의 불교유적지를 도보로 답사하는 청소년 불교문화캠프가 열린다.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는 청소년들에게 불교의 문화적인 정서 함양을 위하여 '2539년 청소년 불교문화캠프'를 오는 8월4일부터 7일까지 경주일원 및 보문단지내 야영장에서 실시한다.

불교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건강하고 조화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위해 마련되는 이번 불교문화캠프는 전국 중·고 불교학생회 및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4백명을 20개조로 나누어 진행된다.

우리는 선우는 5개의 개별답사코스를 선정, 2일동안 실시하고 마지막 날에는 기림사-골굴암-감은사지-이견대-대왕암으로 이어지는 전체 답사를 실시한다.

또한 매일 아침 저녁예불과 초청강연회 캠프파이어 등의 청소년 문화활동도 펼친다.

개별답사코스는 삼릉계 용장사지 칠불암등 경주 남산지역과 황룡사지 분황사등 불교유적지에서 실시된다.

참가문의 (02)278-8672~3

농촌노인 개안수술지원 이창섭 불자

어둠 밝게하는 자비심 '귀감'

노안으로 시력을 잃은 농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광명을 찾아주는 불자가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경남 진주 이창섭씨(사업)로 이씨는 지난해부터 새생명 광명회(회장 김기원)의 추천을 받아 그동안 노인 14명의 개안수술비를 전액 지원했다.

지난달 25일에도 노인 4명의 수술을 주선한 이씨는 "눈병으로 시력을 잃은 농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으나 수술비가 없어 어둠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고자 노인 개안수술을 돕고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이창섭씨(왼쪽에서 첫번째)의 도움으로 김월임 할머니가 개안수술을 받고 광명을 되찾았다.

커졌다



KIA 기아자동차

뉴-세피아 탄생!

이제 중형의 느낌으로 타십시오.

전혀 새롭게 다가옵니다.
놀랄만큼 달라진 스타일, 대폭 강화된 안전시스템으로 — 뉴세피아
'95년 부터 더욱 강화되는 新미연방안전기준(FMVSS)을 적용하여
무려 570여 가지를 혁신적으로 바꾸었습니다.
2년만에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한 차는 아직 없었습니다.

스타일이 더욱 커졌습니다.
- 품위있는 전면 스타일을 연출해 주는 **본넬라인과 후론트 범퍼**
- 국내최초로 안개등, 콤비 램프가 내장된 **일체형 고광도 헤드램프**
- 볼륨감이 돋보이는 라운드 감각의 **리어 피니셔와 리어 콤비램프**
- 여유롭고 편리한 드라이빙을 도와주는 **일체형 대쉬보드**
- 조작성을 향상시키고 도난방지 기능을 추가한 **최고급 알파인 오디오**(선택)
- 새로운 디자인의 로터리 절환 타입의 **고성능 에어컨**(선택)

안전이 더욱 커졌습니다.
- 충격에 대한 강도가 대폭 향상된 **직선일체형 T형 버팀쇠**
- 충돌시 1차 충격흡수 능력을 더욱 강화한 **전면 관넬**
-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까지 확대 적용한 **도어 임팩트바**
- 사용 비율을 월등히 높여 차체의 강성을 향상시킨 **고강력 강판**
- '95년부터 적용되는 新FMVSS 측면 안전기준(54km/h측면 충돌시 안전도)을 만족시킨 **특수 보강재, 시트하단 특수 프레임**

성능이 더욱 커졌습니다.
- 2방향에서 연료를 분사, 가속 응답성을 향상시킨 **2스프레이인젝터**
- 최적의 연료량을 분사하여 고출력을 실현한 **다중 연료분사기능**
- 엔진고장시 즉시 그 내용을 알려주는 **자체 고장진단기능**
- 최첨단의 소음차단 설계로 쾌적함을 주는 **NVH성능**
- 엔진의 안전성을 극대화시킨 **공회전 속도 자동제어 기능**
- 진동을 대폭 줄이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는 **新형상 타이어**

NEW SEPHIA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세피아 1.5 DOHC MT 5단(1,498cc, 1,059kg) 15.97km/ℓ-2등급(4.2~ 1,400~1,700cc)
- 세피아 1.5 DOHC AT 4단(1,498cc, 1,085kg) 12.35km/ℓ-3등급(4.2~ 1,400~1,700cc)
- 세피아 1.5 SOHC MT 5단(1,498cc, 1,015kg) 15.15km/ℓ-2등급(4.2~ 1,400~1,700cc)
- 세피아 1.5 SOHC AT 4단(1,498cc, 1,060kg) 12.58km/ℓ-3등급(4.2~ 1,400~1,700cc)

• 초절약인 사용방법 급출발, 급제동을 하지 맙시다.



백두산 신곡중 일부

그림이 있는 불교에세이

내그림은 꾸밈없는 삶의 흔적

공간속에 흔적처럼 남을 수많은 線들.

오랫동안 기억 될 나의 추억, 강물 위에 던져버린 지나간 흔적.

망각의 강 너머, 모든 상상은 구애받음이 없다.

보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의 알맹이들이 다시 마음속에서 여과 된다. 그리고 여과되어 화면에서 다양한 표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렇게 펼쳐진 유동적 형상의 이미지들은 나를 항상 긴장시킨다.

그 긴장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늘 나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동양화의 전통적 기법에서 출발한 내 그림의 관심은 우리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회화의 가능성의 모색에 있다.

때문에 화선지나 고운 모시에 수묵의 담담한 표현이나 진채와 농묵의 어우러짐 등 어떠한 기법으로든 나의 삶을 극명하게 표현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나의 조형적 언어로 삼고 싶다. 인간의 삶이 모두 그렇겠지만 그림에 있어서 기법과 재료도 단순한 도구적 성격이 아닌 나의 삶의 모습과 정신이 담아지는 그릇이다. 그림은 조형예술이라는 독특한 영역이지만 삶의 진솔함과 치열함이 모두 녹아든 통합적 리얼리티로서의 예술이다. 더러 욕심을 부린다면 인간존재에 대한 확신으로서, 그리고 삶과 어우러진 조형의 美로서 꾸미는 그림이 아닌 삶이 영근 결실로서의 흔적이기를 바란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시각의 현실을 뛰어 넘어 존재하는 질서를 추구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이 삶의 과정으로서의 그림이기를 노력할 때, 영혼정화를 위한 기도하는 마음, 정진하는 마음, 영원과 하나되는 길이 보이기도 한다. '禪心/禪畵',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는 마음으로 나는 작업에 임한다.

장 상 의 〈동양화가〉

주부신행담

폭풍이 지난 들에 핀 꽃 ④·(끝)



힘들어도 항상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고 살았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 놓긴 했어도 나를 에워싼
부처님의 자비를 결코 잊은 적이 없었다

이번에는 회사 어음부도로 인해 빈털털이가 된 사람보다는 어음이서로 조그마한 거라도 건질 수 있는 우리에게 사람들은 벌떼같이 달려들었다. 1억여원이 넘는 어음이서의 결과로 또 한번 남과를 보게된 것이다.

그 일이 불과 재작년 봄이다. 어음이서로 인한 생활의 빈곤함을 메꾸어 보자고 담보로 내놓은 33평 아파트마저 얹친데 덮친 격으로 아는 사람에게 사기당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매일 울며 밤을 지새워야 했던 술한 나날들이 지금 생각하면 악몽같다. 사채업자의 돈 독촉 등살에 오열을 토했고 전화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는 노이로제에 걸려 사는 것이 그저 짐스럽기만 했다. 남편도 덩달아 야위어 갔고…. 그때의 암담하고 절망적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리고 숨이 막혀 울을 느낄 정도로 받은 상처가 심하다.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릴 수는 없다. 훌훌 털고 일어서야 했다. 힘들었던 재작년에도 항상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고 살았다. 원망과 불평을 장황하게 늘어 놓기도 했지만 마음은 항상 부처님께 향했었고 부처님을 끔찍히도 사랑했었다. 언제 어디서든 나를 에워싼 부처님의 자비를 결코 잊은 적이 없었다.

신심하나로 일구어낸 오늘의 이 자리, 힘든 고개짓을 무던히도 해보았고 울곧게 사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우리 세식구는 열심히 살고 있다. 아픔이 큰 만큼 그만큼 성숙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재작년을 생애에서 지우개로 지우듯 지우고 싶지만 전생에 갚지 못한 빚, 금생에서 갚은 것이라 위로하며 철저히 혼자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체득했다. 사람은 믿을 게 못된다는 삭막한 생각도 없지 않으나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봄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터득했기 때문이다. 우리 식구는 두다리 뻗고 편하게 잠을 자지만 넘어져서 힘들어 하는 우리를 사기친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증오심을 갖게 되는 이 괴퍅한 사회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힘들고 슬펐던 때, 혼자라고 느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던 주위 분들과 도반들 특히 우리 세식구 곁에서 항상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고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실천불교승가회 효림스님, 자성스님, 일문스님, 법안스님, 토진스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내 생에 잊지 못할 일이 또 하나 있다. 지난해 일어난 '조계종의 봄—개혁'에 동참했던 일이다.

답답하리만치 제자리 걸음이었던 불교에도 종단개혁이라는 새순 돋는 봄이 찾아와 주었다. 종도들의 간절하고 애절한 염원이 없었던들 그리 쉽게 다가올 봄은 아닐진대, 사부대중의 단합과 간절한 서원으로 한국불교의 저력을 과시하기에 넉넉했던 것이다.

나는 전경들과의 격렬한 몸싸움, 공권력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된 총무원 청사, 연일 톱으로 보도되는 불교뉴스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급기야는 시위대에 동참했다. 조계사에서, 광화문 네거리에서 '비폭력'을 외치며 직·간접적으로 불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조그만 몸을 투자해 동참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남이 한다고 덩달아 동참한 것도 아니다. 불교를 지켜야겠다는 신념 하나만으로 나를 역사의 현장으로 이끌어 내기에 충분했다. 연속되는 절박한 사태에 동참했던 일은 시간이 흐르면서 내 생애에 소중하고 값진 추억의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이다.

파주 고령산 보광사 종무실에서 근무하게 된 지도 벌써 8개월이 지나고 있다. 보광사는 실천불교승가회 근본도량으로서 하루가 다르게 새 모습을 갖추고 있다.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부처님께 삼배의 예를 올린다. "항상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하고 기도올리며 "사람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맞이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지금은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 건강해야 평생토록 부처님 일을 할 수 있기에 건강에 늘 유념하고 있다.

우리 식구가 봄을 봄으로 보지 못하고 힘들고 지쳐있을 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신 어느 스님이 계시다. 신행담을 마감하며 그분이 내게 써 주신 글귀를 소개한다.

"폭풍이 지난 들 위에도
꽃은 피고,
지진에 무너진 땅에서도
맑은 샘은 솟아 오른다.
힘내세요, 보살님!"

김 묘명심 〈파주 보광사〉

♦ He who has not found any essence in the existences, like one that looks for flowers on fig-trees, that Bhikkhu leaves this and the further shore, as a snake quits its old worn out skin.

무화과나무에서 꽃을 찾는 사람처럼(꽃을 찾을 수 없듯), 존재에서 본질을 찾지 않는 수행자는 차안과 피안을 떠난다, 뱀이 제 낡은 허물을 벗듯.

♦ He in whose breast there are no feelings of anger, who has thus overcome reiterated existence, that Bhikkhu leaves this and the further shore, as a snake quits its old worn out skin.

가슴 속에 성냄이 없고 되풀이되는 삶을 극복한 수행자는 차안과 피안을 떠난다, 뱀이 제 낡은 허물을 벗듯.

♦ He whose doubts are scattered, cut off entirely inwardly, that Bhikkhu leaves this and the further shore, as a snake quits its old worn out skin.

영어로 배우는 경전 — 숫타니파타 ②

의심을 뿔리쳐 끊어서 완전히 내면을 향한 수행자는 차안과 피안을 떠난다, 뱀이 제 낡은 허물을 벗듯.

♦ He who did not go too fast forward, nor was left behind, who overcame all this world of delusion, that Bhikkhu leaves this and the further shore, as a snake quits its old worn out skin.

앞으로 너무 빨리 가지도, 뒤처지지도 않고 이 세계의 미혹을 모두 이겨낸 수행자는 차안과 피안을 떠난다, 뱀이 제 낡은 허물을 벗듯.

♦ He who did not go too fast forward, nor was left behind, having seen that all this in the world is false, that Bhikkhu leaves this and the further shore, as a snake quits its old worn out skin.

앞으로 너무 빨리 가지도, 뒤처지지도 않고 세상의 이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아는 수행자는 차안과 피안을 떠난다, 뱀이 제 낡은 허물을 벗듯.

한명우 기자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화려했던 낮만큼이나 소중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으로 다가서는 이름—그랜드
우아한 분위기, 세련된 디자인으로
더욱 편안하게 다가갑니다.
늘 사랑이 넘치는 공간! 그랜드로 오십시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듯 아름다운 꿈이 펼쳐집니다.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침대전문 회사 — 20여 년 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한길만을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좋은 품질, 편안한 가격 —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제품에 25mm 강선을 사용한 하트 스프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 매트리스 사용 — 각기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압력을 바로 견딜 수 있으며, 수명이 2.5배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다양한 모델 — 전문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GRAND FANTASIA

꿈의 나래를 편다 그랜드침대

• 본사: 경기도 고양시 항동동 267-18
• 전화: (02)308-1818-9, 303-7376, 372-7941

DU PONT

21세기의 시각 —
듀폰의 눈은 깊고 넓습니다.

200여 년 듀폰의 역사가
바로 첨단 기술의 역사입니다.

1802년 시작된 듀폰 200여 년의 기업 역사에는
혁신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1903년 세계 최초로 민간 연구소 설립,
1938년 꿈의 섬유 나일론 개발 등,
현재 22개국 70여 개 연구소를 통해
기초 생명과학에서
섬유, 화학, 농업, 전자, 에너지,
자동차, 항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의 역사를 만들어 온 듀폰은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종합 화학회사로서
그 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듀폰은
건강한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지구촌 어느 곳에서든지
안전, 환경 및 윤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터득하여,
오늘도 이를 기업 정신으로 이어받아
성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과학적으로 —
듀폰의 21세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800여 종의
우수한 산업용 소재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듀폰은
고객과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남다른 파트너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이 최고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고객 최고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 15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듀폰은
이천 및 울산 단지의 공장을 통해
국내 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함은 물론,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의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보다 좋은 제품을 추구하는 듀폰 —
21세기의 시각으로 세계를 만들어가는
듀폰의 눈은 깊고 넓습니다.

한국 듀폰
⊕ 135-082
서울 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6번지 이레아 타워 4-5층